

〈對北協商 基礎資料〉

— 南北高位級會談 及 關聯 會談 · 接觸時 —

雙方 主要 歡談內容

1993. 12.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일 리 두 기〉

- 환담은 쌍방 대표가 회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주제로 진행하는 10분내외의 이야기로서
 - 회담장 분위기 조성
 - 사진촬영 등 기자들의 취재활동 시간제공
 - 상대측 대표 탐색등의 의의를 가지고 있음.

- 본 자료집은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과 이와 관련된 각종 회담·접촉시의 환담내용을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담순으로 분류·정리한 것임.
 -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1989.2.8 ~ 1990.7.26)
 - 남북고위급회담 (1990.9.4 ~ 1992.9.18)
 - 남북정치분과위원회 회의 (1992.3.9 ~ 1992.9.16)
 - 남북군사분과위원회 회의 (1992.3.13 ~ 1992.9.16)
 -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회의 (1992.3.18 ~ 1992.9.16)
 - 남북 핵관련 회담 (1991.12.26 ~ 1993.1.25)※회담(회의)에는 대표접촉, 위원(장)접촉 등이 포함됨.

- 환담은 주로 수석대표(위원장)간에 이루어지므로
 - 수석대표(위원장) 성명을 환담내용 앞에 표기하고 본문에서는 생략하였으며
 - 그밖의 대표(위원)가 발언할 경우에는 성명을 본문에 표기하였음.

— 목 차 —

1. 인 사	3
2. 기후·절기	45
3. 통일의 당위성.....	83
4. 자기축 행사소개	125
5. 특산물·명승지	165
6. 여론동향	181
7. 남북회담 관련사항	197
〈부 록〉: 남북고위급회담 및 관련 회담·접촉 개최현황	217

1. 인 사

1. 인 사

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1) 본 회 담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宋 漢 虎 (국토통일원 차관)	〈단 장〉 백 남 준 (정무원 참사)

(가) 제1차 회담 : 1989. 2. 8(수), 판문점 「평화의 집」

북 : 앉으시죠. 송선생, 우리 먼저 양측 총리들이 발급한 신임장 교환 할까요.

남 : 그렇게 하죠. 우리 신임장 여기 있습니다.

북 : 송선생, 정말 구면입니다.

남 : 예, 반갑습니다.

북 : 몇해만입니까?

남 : 오래 되었지요.

우리 백선생이야 뭐 70년대 초부터 남북대화를 하고 그랬으니까 남북대화에
아마 산 증인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북 : 조국통일하는 일인데 잘 할때까지 해야지요.

남 : 저는 백선생께서 단장선생으로 나온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아주 기뻐했습니다.

북 : 나도 그랬습니다. 송한호선생이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잘 될 것이다.

남 : 남북대화 전문가가 나오시고 그래서 아마 과거 대화하고 다르지 않겠느냐 생
각하고.

북 : 남북대화 전문가는 못되고.

남 : 아 아 천만에,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뭐 이제는 실질적으로 뭔가 좀 생산이 되는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북 :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되어야죠.

자주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러지 말고 결실이 있는.....

남 : 맞습니다. 우리가 미소나 짓고 악수나 하고 헤어지고 하는 무의미한 대화가 아니라 우리겨레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도 주고 열매도 안겨주는 이런 생산적인 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백선생께서 단장으로 오셔서 이번 회담은 성사가 잘되고 원만히 진행되어 총리들이 만나는 것도 멀지않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북 : 쌍방회담인데 나만가지고는 안되지, 송한호선생도.

남 : 우리도 하여간 성의를 다하겠어요. 성의와 아량을 가지고.

북 : 이번엔 잘 될 것 같습니다.

73년도에 적십자회담 7차회담이 중단되었지요?

남 :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백단장선생께서는 첫번째부터 쪽 나오시고 그랬지요.

북 : 자문위원으로 나왔지요.

그때 송선생은 무슨 임무를 맡았었요?

남 : 저는 실제로 그당시에는 대화에 직접 참가를 안하고, 백선생은 84년도에 여기에 한번 와 보셨지요?

북 : 예, 대성동에 한번 왔었어요.

남 : 사진으로 보고, 하여간 구면입니다.

북 : 구면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요.

남 : 서로 아량을 가지고 하다보면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김영철) : 용영일장군께서는 별이 몇입니까?

남 : 둘 입니다.

북(김영철) : 소장?

남 : 예, 소장.

북(김영철) : 그러면 왜 오늘 군복을 안 입고 나오셨습니까?

남 : 평상시 국방부는 군복을 입지않고 근무를 합니다.

북(김영철) : 예비역입니까?

남 : 아니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나) 제4차 회담 : 1989. 11. 15(수), 판문점 「통일각」

남 : 이거 백선생 지난번에 3차 예비회담때 우리 지역에 왔을때 우리 기자들이 하나 찍은건데, 백선생 사진이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아주 미남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 이거 백선생한테 드리니까.

북 : 이거 감사합니다. 기념이 되겠어요.

남 :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북 : 그런데 난 이런 생각 못했구만.

나도 이렇게 해서 송선생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건데.

남 : 요다음 기회 또 있을테니까.

북 : 감사합니다.

북(최성익) : 염선생, 박선생이랑은 통일각에 처음이죠?

남(朴鍾權) : 예, 그렇습니다. 와 보니까 아주.....

북(최성익) : 도중에 승차해서 처음으로 오셨는데, 원래 우리가 통일각을 지을때 화해하고 단합하고 통일하자고 지었는데 선생님들 아주 통일의 길에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 제5차 회담 : 1989. 12. 20(수), 판문점 「평화의집」

남 : 백선생, 이 해도 저물고 아무래도 새해나 가서 만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오면서 조그마한, 대표 다섯분하고 저 뒤에서 수고하는 수행원 몇분에게 드릴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인데 우리 회담 끝난 다음에 연락관을 통해서 그쪽에 전달할테니까. 성의로 알고 받아 주세요.

북 : 감사합니다.

남 : 우리 다같이 대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업자들이니까, 이 해를 그냥 그대로 보낼 수 없어서 성의를…….

북 : 우리도 이제 뒷인가, 연락관들을 통해서 다섯분 대표하고 수원 네분하고 보내 드려야지.

남 : 제가 신덕물을 좋아하니까 신덕샘물을 보내세요.(일동 웃음)

북 : 그렇게 합시다.

남 : 신덕샘물을 보내면 제가 서울에 사는 용강출신 고향분들에게 나눠드리지요.

북(최우진) : 서울에 용강출신 몇분이나 계십니까?

남 : 많지요. 많습니다.

지난번 한 3일전에 평안남도 출신들이 송년회를 가졌어요. 거기에 500명 정도의 유지들이 모여서 이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같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남(金三勳) : 샘물을 보내시려면 어려울테니까, 샘물을 거기 가서 드실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서 고향방문을 하도록 해 드리면 아주 서로 쉽고 좋겠네요.

남(朴鍾權) : 최우진대표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북(최우진) : 나, 평양입니다. 박대표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남(朴鍾權) : 부산입니다.

북(최우진) : 부산, 제일 남쪽에서 오셨구만.

(라) 제6차 회담 : 1990. 1. 31(화), 판문점 「통일각」

남 : 오늘 이 새해, 90년 새해를 맞아서 잘못된 게 없이 우리 백선생 이제 금년 더욱 건강하시고 공사간에 즐거운 일이, 매우 보람있는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다른 대표들께서도 뭐 좋은 일이 많고 우리 김대표 특히 이번에는

군대에서 진급할 「케이스」 없습니까?

북(김영철) : 아니 90년도에 그쪽에서 새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 : 그리고 작년 연말에 보내준 사과하고 신덕샘물 잘 받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신덕샘물은 내가 아주 잘 요긴하게 썼어요. 마침 지난 1월 2일날 평안남도 도민들의 신년 하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마시지 않고 보내주신 것을 다 고스란히 그 신년하례식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고향물을 맛보도록 보내 주었더니 매우 기뻐했어요.

한 7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뭐 양이 그렇게 다 충분하지는 못해가지고 나이 많은 순대로 그저 한 200명이 한모금씩 마셨습니다. 마셔가지고 고향의 그 물맛을 보면서 『고향생각이 더욱 간절히 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북(최우진) : 그것 마시면서 아마 『빨리 통일을 해야겠다』하는 생각도 나셨겠죠?

남 : 아,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빨리 고향을 가야겠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빨리 뚫려야 되겠다』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북 : 그래 분단의 장벽을 *마스고 빨리 자유왕래하고 전면개방하고 그러면 뭐 신덕수가 양이 적어서 걱정될 것도 없고.(일동웃음)

(마) 제8차 회담 : 1990. 7. 26(목), 판문점 「통일각」

남 : 자, 이제 오늘은 끝나는 날이죠?

북 : 그럼요. 1년 반만에.

남 : 최선생, 실무접촉과 문안정리를, 문안정리를 잘 하시던데. 그쪽에 보니까 회담일꾼들이 많아요.

수고 했습니다.

북(최우진) : 예, 이번에 우리가 문안정리 할때 귀측 대표들 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 신선생이나 김선생이나.

*마스다 : 일정한 대상을 무시거나 깨뜨리다. 낡은 제도·사상등을 없애버리다.

남 : 1년 반동안 예비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없지않아 있었지만 이렇게 오늘 성공적으로 타결돼서 막을 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 : 피차에 기쁩니다.

남 : 이렇게 우리가 오늘 자랑스럽게 예비회담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은 우리 회담 대표들이 인내를 가지고 또 신뢰있는 노력을 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총리회담이 빨리 열려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혹은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는 7천만 겨레들의 여러가지 희망과 기대 또 지원이 크게 기여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의 기자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열면 취재를 하시면서 공정한 보도를 해 주시고 또 회담의 여러가지 성격이라든가 의의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등 여러가지로 협조해 준 공도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기자분들이나 우리 여기 대표들이나 다같이 평화통일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한 몫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 남북고위급회담

(1) 본 회 담

〈환 답 자〉

남 측	북 측
〈수석대표〉	〈단 장〉
姜 英 勳 (국무총리, 1차~3차) 鄭 元 植 (국무총리, 4차~8차)	연 형 목 (정무원 총리, 1차~8차)

(가) 제1차 회담 2일회의 : 1990. 9. 6(목),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셀라볼룸」

남 : 어디 편히 주무셨어요?

북 : 예.

남 : 일정이 여러가지 너무 급하게 많이 뵈드리고, 좀 즐겁게 지내시게 해드릴려는
게 너무 짐이 되지 않았나 염려됩니다.

북 : 감사합니다. 귀측에서 최근에 우리 대표단을 위해서 그저 온갖 성의를 다 대
해주니까 불편한 점 없습니다.

남 : 참, 허리춤 다치신 분들 어떠십니까?

어디 안대표는 괜찮으세요?

북(백남준) : 예. *일없습니다.

남(김정우) : 많이 나왔습니다.

북(안병수) : 회담이 진척된 데에 따라 병도 나아집니다.(웃음)

*일없다 : 꺼리거나 걱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별고없이 괜찮다. 필요없거나 싫다.

(나) 제3차 회담 1일회의 : 1990. 12. 13(화), 서울 신라호텔「다이네스티홀」

남 : 어제든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인사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어제 만찬시에는 너무 좀 서둘러 끝난 감이 있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북 : 아니 일없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했습니까?

남 : 예, 나는 인사말씀만 드리고 왔는데 예결위원회는 12시 지나도록 일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북 : 바쁜 질문 받지 않았습니까?

남 : 언제나 우리 국회는, 입법부는 행정부를, 민의를 대표해 가지고, 아주 질타를 하고 비판을 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따끔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참 만찬후에 만나셨어요?

북 : 예, 만났습니다. 여러 동무 만나 가지고, 조직을 잘 해 줘서 감사합니다. 다 만났드랬습니다.

우리 김진명선생은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했드랬어요.

일흔여덟입니다.

남 :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벌써 난 전화를 몇통씩 받았는데. 아, 이분들은 이렇게 만났는데 왜 우리는 못 만나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 이산가족들이 전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아주 참 어떤 신문에는 1면에다 대대적으로 김진명선생, 또 그 동생되시는 분이 김학명선생이던가?

북 : 몇해 만에 만났다고 그러던가요?

북(안병수) : 43년.

북 : 그 사진 보니까 모습이 *빠꾸듬해요.

남 : 글썄,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대기들하고 있어요. 70세이상 되는 분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혈육들을 만나면 좋겠다 해 가지고.

* 빠꾸듬하다 : 비슷하다.

북 : 그 음악예술인들이 하기는 잘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담도 하지 않고 편지 한통 왔다갔다 하지 않는데도 제까닥 만나구요. 그래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통일이 되죠.

남 : 이번에 좀 이산가족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제3차 회담 2일회의 : 1990. 12. 13(목), 서울 신라호텔「다이네스티홀」

북 : 어디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북 : 예, 감사합니다. 이거 뭐 신라호텔 직원들이 어떻게 친절한지.

남 : 식사는 어떻습니까?

북 : 식사들 매일 품종이 다른데.

남 :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지요?

북 : 예, 좋습니다. 강선생님 평양가서 대접받더니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웃음)

남 : 아이구 무슨(웃음). 저 식단에 없는 거래두 잡수시고 싶은걸 말씀하시면 여기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북 : 예, 그렇지 않아도 호텔직원들이 늘 그 말씀을 합니다. 너무들 잘 해줘서.

남 : 어제는 참, 송년통일전통음악회인가 아주 잘 구경을 했습니다. 그 더군다나 김진명선생 같은 분은, 또 우리측에서도 김소희여사 이분도 다 70대 고령인데 그 어떻게 목소리들이 20대 청년같이 그렇게 낭랑하게 나오는데.

북 : 그 분도 아주 잘하던데요.

남 : 그런 광경을 보면 이제 인간승리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마는 나도 나이를 먹어간다고 하다가도 그런 것을 대하면 이거 분발해야 되겠다고 한편 생각을 가지게 돼요.

북 : 그동안에 우리 「평양민족음악단」예술인들이 생활과정도 그렇고 또 공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귀측에서 잘 돌봐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남 : 글썸, 뭐 관계하는 분들이 다 만족해 하는 것 보니까 아주 참 잘 됐어요.

(라) 제4차 회담 1일회의 : 1991. 10. 23(수), 평양 「인민문화궁전」

북 : 평양와서 첫날밤 지내셨겠는데, 대접 잘 받았습니까?

남 : 예, 대접 잘 받았습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음식에도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서 아주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저 오늘 아침에 밥이 하도 맛있어서 그거 어디 쌀이나고 물었더니 황해도 재령쌀이라고 그러더구만요.

제가 바로 출생한 곳인데, 어렸을 때 그쪽 쌀이 참 좋았습니다. 그 쌀로 밥도 잘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밥 맛이 좋았고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북 : 그랬구만요. 초대소는 마음에 듭니까?

남 : 아주 조용하고 편안해서, 어제 평양에 첫밤이었습니다마는 참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밖에 산책하기가 썩 좋고 또 산책로도 좋고 해서.

북 : 공기 맑은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건강하고 직접 관계 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공해방지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 : 예, 지금 어느 도시나 막론하고 대개 공해가 큰 문제가 돼 있는데 바로 도시에 붙어 있지만 아주 펍 공기가 맑고 초대소 설계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마) 제5차 회담 3일회의 : 1991. 12. 13(금) 서울 위커힐호텔 「무궁화홀」

남 : 꽤 무거운 짐을 벗은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제 그 국회의장 초청 만찬에서는 그 여야 지도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쌍방 웃음)

연총리 일행이 들어 갈때 거기 있는 일반시민도 박수 다 치고 아주 환영을 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참 모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북(김광진) : 다 기뻐할 일입니다.

남 : 그럼요.

저희도 그렇게 기대합니다만 북쪽에서도 다 기뻐하고 그러겠죠? 어제 돌아오실 때도 다 환영을 하고.

북(최우진) :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빨리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그만하면 이번 회담은 빨리 성사 된 편이죠.

남 : 그러니까 이번 대표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다는 걸 알수있고.

무엇보다도 연총리의 지도력이 이번에 크게 발휘돼서 이런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쌍방 웃음)

남(李東馥) : 이제 합의문이 채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김정우부부장 할일이, 제일 책임이 막중하고 중대할 것 같습니다.

북(김정우) : 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북(최우진) : 우리 김광진대장 동지는 자기 일이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어젯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남 : 뭐 각각 다 그런 책임을 느껴야지.

앞으로 실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첫 걸음이고 이제 실천을 위해서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 하나 극복해 나가고, 서로 정말 자중자애하면서 그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이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십시오.

북 : 이번에 쌍방 대표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에 의해서 이제까지 장시간 상호 논점으로 되었던 문제들이 100% 어제 합의 봐서 아주 기쁩니다.

남 : 아마 외국에서도 그렇게 다 기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격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표현한다면 역사적인 그런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북 : 예, 오늘 진짜 역사적인 문건을 채택하게 됩니다.

남(李東馥) : 그 한국사람 정신이 「하면 된다」 정신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면 된다」 정신을 이번에 한번.

남(宋膺燮) : 1년동안의 산고끝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우리가 잘 키워서 정말 잘 자라야 될 것 같습니다.

남 : 사실은 한 10개월만에 분만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삭이 돼 가지고 1년 3개월

결렸어요. .

참 그동안 특별히 우리 연총리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또 안선생, 또 김광진대장, 백남준선생, 최우진선생, 김정우선생, 또 김영철선생 다 그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바) 제6차 회담 1일회의 : 1992. 2. 19(수), 평양 「인민문화궁전」

남 : 비공식적으로 소개는 드렸지만 마침 이제 공식회담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교체된 대표를 제가 소개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다 아시겠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계신 한갑수위원은 이번에 대표로 교체를 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공노명대표가 이번에 교체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두분을 정식으로 소개드립니다.

북 :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 같이 잘 해봅시다.

현재 회담 횟수에 비해서는 대표교체가 너무 잦구만. 면목을 좀 익히고 친숙해질만 하니까 또 바꿨어요. 이러다간 정총리 선생도 도중에 갈리지 않겠어요? (웃음)

남 : (웃음) 하차하기 전에 다 매듭을 지어야지요. 한가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직위에 따라서 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직위를 부득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표가 교체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제는 특별히 정말 잘 자고 오늘 날이 무척 청명해서 아주 좋습니다. 좀 쌀쌀한 느낌은 듭니다마는 무척 청명한 날씨가 돼서 아주 좋습니다.

(2) UN가입관련 실무대표접촉

〈환 답 자〉

우 리 측	북 측
<p>〈수석대표〉 林 東 源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p>	<p>〈대 표〉 최 우 진 (외교부 순회대사)</p>

(가) 제1차 접촉 : 1990. 9. 18.(화),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북 : 오늘은 특히 임동원선생, 이제는 구면인데 우리가 서울에 갔을 때 잘 이렇게 환대를 해 주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판문점에서부터 서울까지 가고, 또 서울에 들어갔을 때 서울 시민들이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특히 돌아올 때 더 많은 시민들이 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상이 깊습니다.

남 :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다같이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석대표인 강영훈총리께서 연형목총리와 북측 대표 여러분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북 : 감사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연형목총리 동지가 지금 서울에 갔다 오신 다음에 이 1차 회담이 크게 특별한 결실을 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첫 만남으로써 그만하면 성과적으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고, 서로 인사도 전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남 : 지난번에 그 다치셨던 분들 백남준대표와 그외 분들 건강상태가 어떠십니까?

북 : 이제 병원에 가서 촬영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전화상으로 좀 만나봤는데 뭐 괜찮다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좀 불편해서 아마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 없겠습니다.

남 : 다행입니다. 그제 그만하면.

북 : 특히 우리 차야 뭐 아주 안전하게 됐죠.

남 : (일동 웃음)우리 운전기사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 잘 했어요. 그리고 우리 최대표계서 생명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썼던 모양이지. 그날 우리 차가 제일 안전하게 말이죠.

북 : 그리고 서울에 다닐 때도 우리 기사선생이 운전을 잘 했습니다.

그래 나는 언제나 잘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하고 맞딱뜨립니다.

남 : 아주 운이 좋으신 모양이에요.(일동 웃음)

(3) 제4차 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가) 제1차 접촉 : 1991. 8. 5(월), 판문점 「평화의 집」

북(백남준) :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남(宋漢虎) : 그래요. 건강이야 뭐.

북(백남준) : 아니, 임동원선생은 몸이 더 난 것 같다.

남(林東源) : 별로 운동을 잘 못해서 그런 모양이죠.(쌍방 웃음)

남(宋漢虎) : 어제도 운동했는데 뭘.

북(백남준) : 송선생님은 또 좀 젊어지고.

남(宋漢虎) : 젊어져요?

나보다도 백선생이 더 젊어진 것 같은데.

북(백남준) : 아, 거 감사합니다.(쌍방 웃음)

저 강영훈선생은 어떻게, 지금 무슨 직에 계십니까?

남(宋漢虎) : 며칠전에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8월12일에 아
마 이·취임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어요.

북(백남준) : 예, 그러면 이거 이산가족문제 저절로 해결되겠구만.(쌍방 웃음)

새 분이 나갔으니까, 새 기분으로 할테니까.

남(宋漢虎) : 그러지 않아도 지난 토요일날, 우리 그전 대표단들 모여가지구서 「골
프」운동을 했어요. 우리 정호근대장이 주최를 해 가지고 우리들이 나가서 운동
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 연총리라든가 또 우리 백선생 인기가
좋아요, 우리 대표단에서는.(쌍방 웃음)

북(백남준) : 감사합니다.

남(宋漢虎) : 아, 우리 최선생도 인기가 좋고, 참 좋은 분들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총리님께서서는 백선생님 만나면 안부 좀 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백남준) : 예, 제 안부를 전해 주시죠.

저, 홍성철선생은 지금 어떻게?

남(宋漢虎) : 그 분도 그러니까 작년에 그만 두셨다가. 최근에 「민주평통」 수석부
의장으로 됐어요.

북(백남준) : 역시 통일문제에 봉사를 하는구만.

남(宋漢虎) : 예, 그러니까 다 잘 됐습니다.

북(백남준) : 그 다음 이병룡선생은?

남(宋漢虎) : 이병룡선생은 또 우리 「민족통일연구원」이라고 생겼는데, 거기 원장
을 하고 있죠.

뭐 어디 가나요. 가야 뭐 한울타리 안에서 다들 못벗어나는 거지.

북(백남준) : 좌우간 변화가 대단하구만.(짱방 웃음)

남(宋漢虎) : 그래서 우리측에서는 대표로서 종사하다가 그만 둔 사람들도 다 이
제 그런 분야에서 일하게 돼서 다 좋게 됐습니다.

(4)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가) 제1차 접촉 : 1992. 1. 23(월), 판문점 「평화의 집」

북(김영철) : 그러나 저러나 합의서가 채택된 다음에 좀 늦은감은 있지만 사실상 통일업무를 직접 맡은 통일원 차관이 됐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남(李東馥) : 최대표도 축하해 주던데, 우리 김대표도 축하 좀 해주세요.

북(김영철) : 그런 의미에서 축하하는 겁니다, 이제.

남(林東源) : 통일업무에 아주 발 벗고 나서라고, 자리를 옮기라고 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북(김영철) : 그게 민족이 지켜보는 직무입니다.

북(최우진) : 지난해 고위급회담에 동원되어 가지고 상당히 공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북(김영철) :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쌍방웃음)

북(최우진) : 그래서 나는 임선생이나 동복선생 다 아주 건강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나니까 상당히 기쁩니다.

건강이 매우 중요하니까.

남(李東馥) : 우리 최대표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운동 뭐, 하시는 거 있어요?

북(최우진) : 운동, 걷기.

남(李東馥) : 다른거 운동하는 것 없어요? 정구라든가, 무슨.

북(최우진) : 나는 탁구를 좀.

남(李東馥) : 아, 탁구해요? 우리 김대표는 뭐 하세요?

북(김영철) : 나는 여러가지 운동을 합니다. 탁구도 하고 정구도 하고.

남(李東馥) : 정구해요? 우리 정구 한번 언제 해야 되겠어.

남(林東源) : 우리 이대표가 정구를 잘해요.

북(김영철) : 경험으로보면 내가 질 수 있겠는데, 패기로 보면 얼마든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남(李東馥) : 아니 그럴때는 저야 이기는 거지.

남(林東源) : 기량보다 패기가 더 중요합니다.

남(李東馥) : 평양갈 때 내가 라켓트를 한번 들고 갈까?(쌍방웃음)

우리 여행할 때는 라켓트를 늘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면서 치고.

북(최우진) : 동북선생, 정구 상당히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남(李東馥) : 탁구도 사실은 조금 치는데 요 근자에는 여러해 치지를 않아서 모르겠어요.

우리 최대표하고 탁구나 한번 해 봐야지.

북(김영철) : 오십이 가까우면 탁구가 몸에 나쁘다고 그랬어요.

북(최우진) :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운동되게끔 그렇게 해야지.

남(林東源) : 정구도 사실은 좀 과격하지.

북(김영철) : 오십이 지나면 우리 최대표가 말한 것처럼 걷기가 좋아. 슬슬 걸으면서.

남(李東馥) : 북에서는 지금 골프 더러 치는분들이 있어요?

북(최우진) : 한군데 만들었어요. 몇년전에 만들었어.

남(李東馥) : 그게 평양 서쪽에. 진남포, 남쪽에라든가?

강서인가? 강서에 있나? 거기도 언제 한번 구경을 좀 했으면 좋겠고.

남(林東源) :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겠지요.

다. 남북정치분과위원회 회의

(1)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 원 장〉 李 東 馥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위 원 장〉 백 남 준 (정무원 참사)

(가) 제1차 회의 : 1992. 3. 8.(금), 판문점 「평화의집」

남 : 이 건물 바깥 구조가 완성되고 방들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정치분과위원회가 안방 차지했습니다.

북 : 안방 차지. 합의서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게 첫 회합이고, 3개 분과위 가운데서도 맨 먼저 시작됐습니다.

남 : 맞습니다.

북 : 아주 의의가 있고 또 우리 선구자가 아니겠는가?

남 : 선구자, 북에서 그 「선구자」 노래 합니까?

북 : 하지요.

남 : 「일송정 푸른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하는, 그것은 안 하지요?

북 : 우리는 또 「선구자」의 노래가, 내용이 그것하고 좀 달라요.

남 : 그래요? 어쨌든 우리 참,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됐네요.

북 : 저 송한호선생 건강한가요?

남 : 아, 그럼요.

북 : 송한호선생이랑 우리 고위급회담과 관련해서는 수고가 많았지. 또 많은 일했지.

남 : 그럼요.

북 : 예비회담때부터, 예비회담 8차에 걸쳐서 본회담을 탄생시키고, 또 본회담 대표로 나왔다가, 그런데 마지막에 합의서 발효할 때, 그때 자리에 없으니까 좀 섭섭하더구만.

남 : 그랬어요? 우리 송한호대표, 그 뒤에 본인도 좀 서운해 합디다. 사실은 이제 이 「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서명을 우리 백대표하고 송한호 두분이 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아주 역사문건이 하나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북 : 정원식총리랑 다.

남 : 다 편안하죠. 어디, 연총리께서도 편안하시고요?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측 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 옆에 민병석위원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오셨고.

제 왼쪽으로 김달술위원, 잘 아시겠지만 통일원에서 나오셨고. 최규학위원은 저하고 같이 총리실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강근택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외무부에서 나오셨고. 신광옥위원입니다. 법무부에서 나오셨습니다.

북 : 아, 우리는 명단을 받고, 신광옥위원의 이름이 나왔길래, 이게 여성이에요?

우리는 그쪽에 위원 나오면 홍일점이 나온다고 그렇게.

남 : 여성적으로 안생겼어요?

북 : 아니, 남성적인데 뭐.

남 :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나오신 신정위원, 이렇게 여섯분입니다.

저희 위원 여섯분을 소개해 드렸고.

북 : 예, 저희들 소개, 제 오른쪽부터 김완수위원입니다, 외교부 순회대사.

남 : 예, 반갑습니다.

북 : 그 다음에 이제 최성익위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고,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분이 심태진위원이고, 정무원 사무국 상급 심의원입니다.

남 : 반갑습니다. 심선생이죠?

북 : 예, 심. 잊어버릴것 같으면 심청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상호위원입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고. 그 다음에 정영춘위원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그 다음

에 저쪽 분이 조성대위원입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부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또 한 배를 탔습니다. 호흡을 맞춰서 노를 잘 저으면 곧은 직(直)자로 갈 수 있겠습니다.

남 : 이 배는 우리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는 안되고.

라. 남북군사분과위원회 회의

(1)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 원 장〉 朴 庸 玉 (국방부 군비통제관)	〈위 원 장〉 김 영 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가) 제1차 회의 : 1992. 3. 13(금), 판문점 「통일각」

남 : 내 박준장이 이번에 민족이 지켜보는 이 북남고위급회담 본회담 대표로 도중에서 승차하고, 그 다음에 또 연이어 이 회담 테두리안에서 진행되는 군사분과위원회 위원장 책무를 다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남 : 우리 김위원장께서 저하고 이렇게 중대사를 맡게 된 것을 기뻐해 주시니까. 나도 상당히 기쁘고, 오늘 아주 회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북 : 원래 저 송응섭 차장이 내 알기로는 귀측에서 군사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됐다 그래요. 거 귀측 보도도 나왔고 또 귀측 대표들이, 우리 저 송응섭차장을 군사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이거 김영철장군이 나오는데 이거 야단났다, 이거 좀 조절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그게 뭐 큰일이겠소. 그래서 내가 아마 관직상 체면때문에 박준장한테 이번 분과위원회 위원장 차려지는데 상당히 축하합니다.

남 : (웃음)

북 : 이 관직, 계급, 우리 군사칭호라 그러는데 그런거 관련해서 내한테 아주 재미 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 : 아, 그래요?

북 : 작년 초여름인가? 미국에서 스틸웰대장이 평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저 남조선 미군사령관도 했고 귀축 군대까지 통솔해서.

남 : 예, 다 만나봤어요. 가서 우리 김장군 만나고 왔다고.

북 : 그래 그 장군이 왔는데, 평양에 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 인민군대 장령들 좀 만나겠다, 이렇게 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만났습니다. 만난 즉 하는 소리가 우리 미군은 200만 소련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나는 미합중국의 유명한 4성장군이다. 뜻인즉은 뭐인가? 김영철소장이 나왔는가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한가지 물어봤다고요. 우리 인민군대가 누굴 대상하는 군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스틸웰대장이 하는 소리가 뭐인고 하니, 『아, 북의 인민군들이야 남조선군을 대상하고 있지』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내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가지 말씀은 참 잘했습니다. 틀림없이 남조선군이 우리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미군도 우리 대상이요, 또 미군하고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군도 우리 대상이요. 그래서 조선인민군 병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이 어깨에 단 별하나의 무게는 옛날에 당신이 달았던 별 네알 무게와 같소.』 이게 계급에 대한 우리 견해입니다.

줄곧 하는 얘길 하는데, 민족사를 나누는 길에서 무슨 계급이…….

남 : 자, 계급 따질거 있나?

하기 전에 우리 군사분과위원회 특성을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른 회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회의인데, 우리 군인의 특성이라는 거는 뭐니까? 우리가 또 『말보다 행동이다』하는 우리 군인의 특성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정치분과위원회때도 보니까 귀축 대표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회의를 그런 측면에서 한번 무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열심히 토의해 보도록 합시다.

(나) 제6차 회의 : 1992. 7. 16.(목), 판문점 「평화의집」

남 : 자, 앉으시죠.

며칠만에 만났죠? 지난 번에 6월 19일날 했죠?

한달 아직 채 안됐구만. 어떻게 지냈습니까?

북 : 그저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아, 가만 별 하나를 더 박으셨군요?

남 : 예, 어떻게 또 이렇게 군사분과위원회 잘 하라고 격려하는 뜻에서 그랬는지, 지난 6월달에 우리 5차 군사분과위원회의 끝나고, 본래 그때 예정돼 있었죠. 본래 예정돼 있다가 요번에.

북 : 축하합니다.

별 하나를 더하니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졌는데, 원래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 질량이 속도가 비례를 합니다.

우리 회담의 추이를 지켜보면 별 무게가 크게 작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 : 어디한번 속도에 비례하는 걸 한번 봅시다.

북 : 또 어떤 쪽에는 물리적 개념이 꼭 맞는게 아니라, 그 무게가 주위를 잡아 당기면서 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발 그 별이 그렇게는 작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남 : 김위원장도 언제 하나 더 달고 나오셔서 내가 축하하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나도 기대합니다. 곧 이루어 지겠지요.

북 : 그저 자꾸 달기만 해서 될합니까?

우리 인민군대 *장령*군관들이 다는 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얘기 있는가 하니까 「별」하면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 별이 빛나라 해서 그 별을 하나씩 이렇게 주곤 합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는 그 별을 자주 다는 것 보다도 진짜 단 별이 빛을 내게 해야 되는게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박위원장은 집에 따님이 세사람 있는데, 뭐 딸만큼 별수를 달게 된다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던데.

남 : (폭소)거 저 우리농담을 알고 계시누만. 아무튼 그런 농담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도 아들들만 선호하기 때문에 아들 딸 골고루 가져라, 또 딸만 가져

*장령 : 소장부터 대장까지의 군사칭호

*군관 : 소위에서 대좌까지의 군사칭호

도 실망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우리 그런 재미있는 농담도 하고 그랬죠.

그럼 난 딸이 셋이 있으니까 뭐, 앞으로 봐서 딸을 하나를 더 낳든가, 둘을 더 낳든가 한번 재고를 해 봐야겠어요.(웃음)

마. 남북 핵관련 회담

(1)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가) 제3차 접촉 : 1992. 3. 3.(화), 판문점「평화의 집」

남(林東源) :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전인철부부장이 세상을 떠났다고 신문에 나왔대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북(최우진) : 조금 앓았어요.

남(林東源) : 아, 본래 지병이 있었구만.

북(최우진) : 예, 원래 있었어요. 종전에 우리 조·일(朝·日) 회담할 때도 조금 몸이 불편하면 치료를 받으면서 조·일 회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근에 병이 좀더 심해져서…….

남(林東源) : 그 전인철부부장만 해도 유명한 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 남쪽에서 보면 세상 떠난 사람들도 아주 저명한 사람이 아니면 사진이 안나는데 사진까지 나왔어요.

북(최우진) : 아니, 우리 대외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지요. 말하자면 조국과 인민들을 위해서 대외분야에서 사업을 했단말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직위에 관계없이 평가를 하지요.

북(김영철) : 사람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인민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남(孔魯明) :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이라고 발표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무슨 암인데요?

북(최우진) :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이쪽에 외교안보연구원은 대외부문인데, 우리 전인철부부장 돌아간거 무슨 조전(吊電)하나 안 보냅니까, 공대사?

남(孔魯明) : 내가 그 양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말이야.

북(최우진) : 같은 분야인데 뭐.

남(孔魯明) : 그 양반이 대외분야를 하셨어요?

북(최우진) : 외교부 부부장이지.

남(林東源) : 부부장이 몇명이나 됩니까?

북(최우진) : 부부장 그저 조금, 몇이 돼.

남(林東源) : 조금 몇이 된다.(일동웃음)

애매한데, 한 6~7명 되는 것 같죠? 한 7~8명 됩니까?

북(최우진) : 한 6~7명 되지.

남(孔魯明) : 그것도 비밀에 속하는 모양이에요?

북(최우진) : 내가 머리가 좀 기억머리가 이상하게 나빠서.

북(김영철) : 원래 정확한 소리는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거짓말 해 버릇하면 안됩니다. 사람이 원래 거짓말하면 나쁩니다. 회담이 *인차 시작될 것 같은데, 옛날에 관가에서 자꾸 거짓말을 했는데, 왕이 행차를 차리고 나가다가 강가에 있는 어부보고 얘기했던 말야. 『조금 있으면 위에서 물이 넘어 가는데 빨리 배 하고 어구를 치우고 피하는게 좋다』 그러니까 어부가 하는 소리가 뭐인가. 『관가에서 자꾸 거짓말을 해서 다 뜯기고 그저 이제는 쪽배 하나하고 어구뿐이 남아 있는데 그 말 또 어떻게 믿겠소? 아예 물이 온 다음에 떠내려 가는게 낫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제 공선생이 얘기한거 우리 최대표가 대답 안하는 것은 정확한거를 잘 대답드릴 수 없어서 하는거지.

남(林東源) :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말과 정확하지 못했다는 말은 뜻이 달라요.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6명인지 7명인지, 6명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7명이더라 이럴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지.(웃음)

*인차 : 그때 또는 그 자리에서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곧

(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가)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 원 장〉 孔 魯 明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위 원 장〉 최 우 진 (외교부 순회대사)

① 제1차 회의 : 1992. 3. 19(목), 판문점 「통일각」

북 : 난 우선 우리 공대표가 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돼서 나오신데 대해서 축하를 합니다.

남 :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우진대표를 이렇게 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으로 만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더욱 최대표께서 영전도 하신 것 같아서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북 : 우리 지난 대표접촉에서 보면 물론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공대표가 임대표와 같이 노력을 많이 해서 북과 남 사이에 합의한대로 자기 기일 내에 핵통제공동위원회가 발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공대표하고 이렇게 위원장으로 돼서 나오셨는데, 앞으로 둘이 손을 잡고 잘 일을 하면 핵통제공동위원회 사업도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위원장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사업은 상당히 사명이 주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요한 이와 같은 사명감을 안고 서로 손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앞으로 일을 잘해 나가게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남 : 감사합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 7차에 걸친 대표접촉에서 북측 최우진위원장이나 또 김영철대표께서 다 같이 노력을 하셔서 이와 같이 핵통제공동위원회의 발족을 보게 된 것을 경하하면서 더욱 우리가 합심해서 어려운 문제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다 같이 풀어 나가는 슬기를 발휘할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북 : 아주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남측에서 「통일각」에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 : 그래서 좋으시다면 우리 위원들 소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순서를 오른쪽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반기문부위원장, 그다음에 변종규위원, 그다음에 이승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왼쪽으로 가서 정대규위원, 그다음에 이부직위원, 그 다음에 홍석범위원입니다.

북 : 오늘 이렇게 다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공위원장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 사업이 매우 막중한 것만큼 앞으로 위원들의 역할도 커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측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 우측에 계시는 분이 박광원 조선인민군 소장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분이 최영관 조선인민군 대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은 우리 부위원장 직제를 겸하게 됩니다.

장령과 우리 대좌는 앞으로 주로는 핵무기와 핵기지에 관련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주로 맡아서 처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 좌측에 있는 분은 김경춘입니다. 원자력공업부 국장입니다. 그래서 핵시설과 핵물질의 평화적이용과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주로 앞으로 전담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두번째 앉은 분이 우리 장장천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좌측에 있는 분이 김수길입니다. 외교부에서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국제원자력기구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법관계들을 다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분이 김만길위원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입니다. 주로 이 북남관계에서 제기된 대화전반의 사업들을 전담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을 놓고 보게 되면 핵통제공동위원회 사업과 목적에 부합되게 자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우리 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공로명위원장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대한 수령께서 비준하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우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것을 잘 이행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은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최고사령관 동지의 뜻을 받들고, 어떻게하나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을 중국적으로 없애고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로명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이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에 합류해 주리라는 이와 같은 기대를 표시하게 됩니다.

② 제2차 회의 : 1992. 4. 1(수), 판문점 「평화의 집」

북 : 공위원장, 전번에 회담 날짜 정할 때 우리 4월1일로 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4월 2일로 하자고 그랬고, 1일로 정했는데, 공위원장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라과쪽에서는 무슨 만우절? 정해놓고 보니까 그렇게되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북남대화인데, 공위원장이 뭐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겠지 하는 생각이지. 그래서 오늘은 좀 착실하게 해 나가야지. 오늘 또 토의한 것 다 무효화 되게 되면 날짜 잡은 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 들겠단 말이야.

남 : 아니, 뭐 북쪽에서는 그런 것 다 개의치 않는 줄 알았더니 최위원장이 너무나 구라과물을 먹었는데.

북 : 아니, 나는 공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한 2년 계시더니 그걸 또 끌어들이지 않았나 했지. 한쪽으로 나는 동의해 놓고 지금 그걸 생각중이었던 말이야.

남 : 러시아사람들 만우절 없어요.

북 : 옛날에 있었다가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

남 : 미국사람들도 별로 그거 안해요. 미국사람들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근자에는 그런 낭만이 없어진 모양이에요.

북 : 그러니까 공위원장도 상당히 현대화됐단 말이야. 그렇게 믿고.

남 : 기분은 항상 젊어져야지.

북 : 그렇게 믿고서 동의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거 수고스럽게 또 한번 마주 앉겠습니까?

③ 제7차 회의 : 1992. 7. 21.(화), 판문점 「통일각」

북 : 어떻게 한분 바뀌었구만요?

남 :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 반기문부위원장 대신으로 새롭게 참여하게 된 정택익부위원장입니다.
외무부 미주국장입니다.

북 : 그런데 미주국장은 도쿄 갔을 때도 그렇고, 서울 나가서도 들어보니까 그 외무부에서도 미주국장하면 다른 국장들 보다 권세가 좀 있답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출세도 잘하고.

남 : 우리 처음 듣는 얘기인데.

북 : 아니 도쿄에 가 들었는데, 출세도 잘하고 아주 권세가 있다는거야.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미국하고 친해진다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런말 있잖아.

남 : 장차 우리 외무부장관감이니까 잘해.

북 : 그 맞겠소. 우리하고 친한 다음에 외무부장관되게 되면 우리 나쁘지 않습니
다.

북 : 핵통제 잘해서 외무부장관돼야지.

남 : 핵통제 잘되는 건 전적으로 귀측에 달려 있으니까.

북 : 그다음에, 우리 반기문부위원장은?

남 : 미국에 공사로 나갔거든. 차석 대사로 갔지.

북 : 그런데 내 워싱턴에 가게 되면 앞으로 만날 수 있겠구만.

남 : 뭐 회의차 가실 때는 한번 연락도 하세요.

북 : 그러면 공위원장은 도중에서 하차 하시지 마시고 나하고 요전에 한번 말한

게 있는데, 같은 배를 타셨으니까 우리 반핵평화의 배라고 내 이름 지었거든, 이 반핵평화의 배라는 것은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배인데 우리 목적지까지 같이 성과적으로 닿고, 그러니까 부위원장 뱃사공 하나 바뀔 셈이지 뭐. 원래 그 선수교체라는게 필요할 때는 선수교환 필요해. 그 왜 그러냐 하면 축구를 하거나 농구할 때, 배구할 때도 보면 될 잘 안될 때는 선수교체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선생 새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좀 더 우리 핵통제공동위원회사업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李富植) : 그 배역이 너무 정치선전 냄새가 나는데요.

북 : 고칠까 그럼? 그럼 한번 제안해서 해, 군사 냄새 나게 한번.

남(李富植) : 순수하게 군사 냄새 나게 한번 해 보죠.

북 :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이름 지어보세요.

남(李富植) : 다음에 근사한 걸 한번 제의를 하죠.

④ 제9차 회의 : 1992. 10. 22.(화), 판문점 「통일각」

북 : 날씨도 찬데 몸이 건강하셔야 되겠는데. 그리고 난 지금, 이렇게 썩 악수할 때마다 악수를 해야 되겠는가? 안해야 되겠는가? 그것도 생각이 들어요.

남 : 아, 그래 안할려면 안하는거지. 뭐(웃음)

북 : 그것, 왜 그러냐 하면, 기록을 보니까 악수하는 것은 옛날에 칼도 가지고, 뭐도 가지고 서로 격투를 하다가 화해할 때 생겨났거든. 그런 것 다 버렸다는 뜻에서 자, 악수하자 화해하자. 이런 기록도 있었어. 공위원장 뒤에다가 핵탄을 지고 다니는데 악수를 해도 일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서 그래.

남 :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보라니까. 왜, 보는 것이 무서워서 그런지, 좀 사찰규정 토의를 좀 열심히 하시기. 딴 얘기만 자꾸만 하곤 말이야.

북 : 그런데 하나 걱정스러운게 지금 내일이면 선거를 한다는데 내가 이러저러한 보도를 통해서 듣자 하면, 그 외교안보연구원장 자리 노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애, 지금.

남 : 그래요?

북 : 그렇게 되면 고위급회담 대표 노리는 사람도 많고, 아니 공위원장 말이야, 대표로 있을 때, 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장 있을때, 아 이것 팀스피리트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겠는데. 이제 공위원장 갈리게 되면 노리는 사람 많은데 어떡하나 그것도 걱정이라고.

남 : 아, 그래요? 잘됐구만 나도 지금 빨리 좀 어떻게 면했으면 하는데.

북 : 아니, 그 책임을 다하고 면해야지.

북 : 외교안보연구원장 자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왜 그자리 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남 : 노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것 새롭게 들었네. (웃음)

북 : 말 좀 해줄까, 그러면 임명된 다음에. (웃음)

미주국장도 그래, 미주국장 자리 노리는 사람 없는 것 같애? 지금 그 자리도 무슨......

남 : 의장자리 책상위에서 보셨어?(웃음)

북 : 그것 사람이, 그것 왜 그렇게 전부 다 저렇게 고위급회담 대표로 나와 있고, 또 핵통제에도 부위원장 나와 있는데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을까?

나는 그것 섭섭하단 말이야. 그런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남 : 아, 그런데 난 지난번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있어 가지고 최우진위원장 뭇 좀 하나 또 쓰는지 알았더니 중앙위원석에 안들어가셨더라.

북 : 그건 공위원장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라고 그런것.

이걸 우리 말하는 것을 잘 좀 응해 주면 내가 뭐 될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자기 문제도 성공 못했는데, 지금 임무도 중요하지 뭘 또 더 된단 말이야.

남 : 그런데 나는 중앙위원 후보쯤 올라 갈 줄 알고 유심히 봤더니 말이야. 우리측 정보가 잘못되고 있는것 아닌가.

북 : 그래도 내에 대해서 관심은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구만. 그러면 오늘 내가 말하는 것 거저 순순히 응하면 좋아.

⑤ 제11차 회의 : 1992. 11. 27(금), 판문점 「통일각」

남 : 나는 어저께 추운 날인데, 체육의 날이라고 그래서 등산을 했어요. 서울근교에 있는 산 하나를 다들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참 좋습니다.

북 : 어제, 추운 날씨에 공무원장 등산하는거 보니까 상당히 건강이 좋다는 소리가야.

남 : 춥긴 춥습니다. 땀을 닦은 수건이 말이야. 호주머니속에서 딱딱히 얼었어. (웃음) 뭐, 등산이야 추울 때 좋으니까.

북 : 등산을 자주하곤 합니까?

남 : 글썄요, 체육의 날이라고 해서 다들 같이 가자고 해서 등산을 했는데.

북 : 원래 건강은 이렇게 그 걸어다니는 거, 특히 등산 같은거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공무원장 연세에 등산 이따금 하곤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라는 게 지금 분열돼 가지고 근 반세기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가까운 동안 통일해 가지고 통일된 조국에서 또 이제, 한 반세기 살고 이력하면 공무원장은 한 100살 살아야 분열된 세대에 분열돼가지고 산 연령을 통일된 다음에 살아 가서 *봉창을 하겠는데 등산 좀 많이 하십시오.

남 : 감사합니다, 이거 100세까지 살려니 아득하긴 하득한데.....

북 : 너무 분열된 조국속에 살아왔는데 통일돼 가지고두 그만한 것 봉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도 이야기 했지만 뭐 겨울이 돼서 다른 것들은 얼어 붙어도 대화만은 얼어 붙지 않겠끔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하자면 오늘 대화도 잘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 : 작년 12월에 거 엄동설한에 남북대화에 소위 말하자면 막을 열었는데 금년 겨울도 그러한 좋은 전철을 밟도록, 나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 의지 좀 잘 부탁합니다.

*봉창 : 손실을 본 것과 모자라는 것을 메꾸어 채우는 것.

⑥ 제12차 회의 : 1992. 12. 10(목), 판문점 「평화의 집」

북 : 공위원장, 그새 고위급회담 대표로 됐드만요. 북남고위급회담 대변인.

남 : 아, 대변인. 뭐 새롭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대변인 하고 있는데, 이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려야 뭐 대변인 역할을 할텐데.

지금 준비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북 : 대변인 됐으면 책임이 좀 더 중요해 진 것 아닙니까?

남 : 뭐 똑 같겠지요.

북 : 그래도 그 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을 대변해서 발언을 하시는 것인데.

남 : 종전의 역할에 조금 더 보태는 것이겠죠.

북 : 종전에 이동북대표가 대변인 할 때 보니까, 회담 안할때도 대변인 자격으로 나가서 발언 하는게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공위원장 대변인 돼 가지고 첫번째 기자들하고 만났다 하고서 보도한 게 있는 것 내가 들은 게 있습니다.

남 : 아, 그것 뭐 대변인이 됐으니까 기자들하고 인사는 해야죠.

북 :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이 말하자면 좀 책임적인 발언이 되겠구만.

남 : 조심해야겠지요, 책임도 있겠고. (웃음)

북 : 앞으로는 좀 입이 무거워지게 생겼어.

북 : 앞으로 하여간 대변인 사업하면서 우리 고위급회담에 기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동북대변인은 이쪽에 뭘 총리 특보하고 안기부장 특보했다가 하나는 자리를 내놓고 하나만 한다 그런 보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남 : 그대로 있어요. 고위급회담 대표로 이동북대표가 있을테니까 섭섭해 하지 마세요.

북 : 있습니까, 그대로?

아, 그런데 뭐 평양에 왔을 때 서울에서 지시한 것을 집행 안해서 이것 대변인도 자리를 내놓게 하는 보도도 나오고 그 무슨 지령을 집행 안했는지 말아야.

동북대표가 대단한 모양이지? 그 서울 지령까지도 집행 안하고서 그러는 것 보니까 말이야.

남 : 그런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북 : 글썄, 국회에서 논의됐다고.

남 : 국회체면도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북 : 응, 국회에서 논의됐다고 하면서 보도 나오는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어떤 보도 나오는 것 보면 이인모노인을 돌려 보내고, 판문점에다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것을 동북대변인은 반 대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합의 됐다가 되지 못했다. 뭐 이것에 대한 것 책임문을 받고 물러났다. 뭐 하는 소리도 있고 말이야.

남 : 그것 옳은 이야기가 아니고.

북 : 이인모노인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뭐 조건이 몇가지 있잖아요? 뭐 평양에서부터 이야기 하던 것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뭐 여기 저기서 이야기들이 이제 말이 많으니까 잘못 와전된 것이고.

북 : 하여간 우리 공위원장은 대변인으로 됐는데 후에 무슨 발언이 동북대변인처럼 발언이 그러하게 돼가지고 국회에서 뭐 이것저것 논의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나하고 같은 동업자인데 말이야. 같은 동업자인데 그렇게 되면 나도 좋지 않지 뭐.

남 : 잘 되도록 하는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보다 이제 남북간에서 잘 돼야지 뭐.

(나) 위원접촉

① 제8차 접촉 : 1992. 12. 14.(월),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남(鄭泰翼) : 김경춘국장은 어떻게 못 나오셨어요?

북(박광원) : 오늘 저 우리 최영관위원이 나왔는데. 어디 정부위원장 군대증강되는 것 보니까, 좀 놀라는 것 같은데 미국의 핵무기, 핵기지 사찰때문에 겁나는 것 아닌가?

남(鄭泰翼) : (웃음)

북(최영관) : 놀랄 것 같아서 이렇게 사복입고 나왔습니다.

남(鄭泰翼) : 아, 놀랄것은 없고. 아니 우리 김경춘국장은 뭐 위원회접촉도 2번째 만나오고, 여기도 만나오고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북(박광원) : 예, 좀 사정이 있어서.

남(鄭泰翼) : 무슨 사정인지 이야기좀 하세요. 그래야지 이것 좀 투명성이 높아져야지, 우리가 다 서로 회담도 잘 되는 것이지. 투명성이 전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북(박광원) : 사정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북(김수길) : 그쪽에서는 그 준장이 왜 안나와요?

남(鄭泰翼) : 아니, 그리고 회담 할려면 여기 우리 저 실무접촉인데 핵전문가가 나와 가지고서 핵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서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군인만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셔서 가지고서 뭐 정치선전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북(최영관) : 아, 내가 미국의 핵무기, 핵기지를 전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 핵기지 전문을 했으니까, 그것 사찰하여야 되니까 내가 나왔습니다.

남(鄭泰翼) : 아니, 저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이라든지, 뭐 그런것 다 잘 알아요? 그런 것 확실히 아는 사람이 나와야 회담이 잘 될텐데, 가만히 보니까 좀 전망이 좀 뭐 불투명한 것 같아요.

북(박광원) : 오늘 저 정부위원장이 뭐 처음부터 만나서, 우릴 시비를 거는 것 보니까, 오늘 또 자세가 시원치 않다.

남(鄭泰翼) : 시비를 걸기는, 뭐 회담을 좀 잘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은 제8차 접촉인데 예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위원장접촉

〈환 답 자〉

우 리 측	북 측
<p>〈위 원 장〉 孔 魯 明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p>	<p>〈위 원 장〉 최 우 진 (외교부 순회대사)</p>

① 제1차 위원장 접촉 : 1993. 1. 25.(화), 판문점 「통일각」

북 : 안녕하십니까?

새해에 이렇게 처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남 : 잘 지냈지요. 어디 거기도 구정 잘 지냈어요?

북쪽에서는 구정은 며칠이나 쉬십니까?

북 : 우리 거저 요번에 일요일 끼었으니까, 우리 거저 이틀.

그런데 구정도 구정이고, 또 이쪽도 우리 새해 들어와서 공위원장 이렇게 처음 만납니다.

남 : 글썄, 뭐 작년 12월 21에 좀 만날까 했더니 뭐, 만나지 못했으니 해가 바뀌었구만.

북 : 그런데 공동위원회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서로 새해인사도 하고 그렇게 할까 했는데, 위원들 다 떼어놓고 위원장이 혼자 지금 나오셨구만.

남 :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니까. 일을 좀 잘 진행되도록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위원접촉을 하자고 그랬는데, 위원접촉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니까 할 수 없지. 어떻게 위원장까지 만나서 무슨 요다음 타개책을 논의하던지 뭐, 어떻게 해 보든지할 도리밖에 없지 않겠어요?

북 : 거야 위원장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위원들이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현재 보게되면 위원장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특히 공동위원회가 풀어야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에 들어와서는 공동위원회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가겠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좀 모여서 토의를 하면 해서 공동위원회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난 또 공위원장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어디 가서 뭘 일하겠는가 하고, 일자리 구하느라고 그래서 위원장이 바빠서 공동위원회 하는 것을 좀 피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러냐하면 요즘 보게되면 청와대에서 일하던 그 민병석, 민박사로 불리우는 그분도 어디 대사로 나가고 또 그 외교안보연구원에도 대사들 많이 나가더만, 요즘에.

난 그래서 일이 바빠서 그쪽 것을 뭐 좀 구하러 다니는가 했지.

뭐 하나 구했습니까? 그자리에 그냥 있습니까? 이제.

남 : 내 일자리까지 걱정하고 계셔.

북 : 그거야 같은 위원장인데 그걸 내가 생각해 봐야지.

남 : (웃음) 그것보다는 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갈까 하는 문제부터, 큰문제부터 걱정을 하셔야지. 남의 개인 조그만 일 걱정까지 하셔?

북 : 아니, 그래서 그것을 풀자고 공동위원회 하자고 그랬는데, 나오시지 않는 걸 보니까 아마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내 그렇게 생각했던 말입니다.

2. 기 후 · 절 기

2. 기후 · 절기

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1) 본 회 담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宋 漢 虎 (국토통일원 차관)	〈단 장〉 백 남 준 (정무원 참사)

(가) 제1차 회의 : 1989. 2. 8(수), 판문점 「평화의 집」

북 : 어저께 육로로 내려 오면서 보니까, 지금 가을걷이가 마감단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좀 그쪽보다 빠르니까.

금년도에 우리 농사가 잘 되었어요.

남 : 아, 그래 그것 참 다행입니다.

북 : 강냉이는 그저 한톤 오백 내지 두톤이 더 증수(增收)될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보면 논은 그것이 지금 우리 서해갭문 건설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남 : 예, 그렇지요.

북 : 그 덕을 금년에 많이 보았지요.

남 : 하여튼 그렇게 건설해 가지고 그쪽의 모든 뭐, 쌀이라든가 기타 다른 식량생산이 증산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북 : 밭곡식은 분수식 관수로 했는데 그 덕을 이제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중요한 가을을 어저께 맞이하여 나락을 거둬 들이는데 마음도 흡족하고 기쁨도 있고.

그런데도 한쪽으로는 조금 착잡한 감도 있고 안타까운 기분도 있었습니다.

봄에 우리하고 농민들은 같이 씨를 뿌렸는데 농민들은 풍족한 가을을 마련해 오고 우리는 아무런 것도 이제 결실을 못보고,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끝에 낙이 온다고. 좀 인내를 가지고 이 대화 앞에 가로 놓여있는 걸림들을 제치고 그리고 이 회담을 잘 해서 결실을 맺어서 겨레 앞에 선물을 내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남 : 아, 그것 좋지요.

이제 그쪽에서도 풍년이 들었다고 하고 우리도 농림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거기서 말하면 「벼 가을걷이」라고 그러지요?

아직 안되었지만 한 3천 9백여만섬 생산하고 해서 평년작을 웃돌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벼농사도 풍년이 됐는데, 사실상 아까 백선생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담은 잘 제대로 진전도 안되고 어떻게 개점휴업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우리 결실의 계절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실의 계절에 맞게 우리 회담도 잘 진전시켜 가지고 우리 겨레들에게 좋은 열매를 안겨 주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 : 예, 오늘 회담이 잘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흐리던 날씨가 또 맑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마 회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남 : 나도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같은 생각을 했네요, 결국은.(일동웃음)

(나) 제5차 회담 : 1990. 10. 20.(토), 판문점 「평화의 집」

북 : 동지는 고려때부터 작은 설이라고 그러합니다. 해가 제일 짧은 날이고 또 해가 그날부터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작은 설이다. 이틀 후면 작은 설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회담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에야 우리 마주 앉지 말고 서울에서 만나요. 그쪽에서도 동지팔죽을 쑤지요?

남 : 하지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 : 지방마다 물론 다르지만 팔죽을 어떻게 만들어 잡습니까?

남 : 뭐 팔죽에다가 뭐니까, 옹심을 넣어 가지고 만들어 먹고, 또 그걸 혼자만 아니고 옆집에다 같이 나누어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제 지내고 그러죠.

북 :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팔죽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어요. 붉은 팔죽을 썰서 거기에 이제 찹쌀가루를 말입니다. 새알처럼 비벼가지고 심을 만든단 말이요. 그래 그걸 팔죽에 넣고 꿀을 거기에 타서 그 다음에 먹는다. 그리고 재앙을 막는다고 그러면서 팔죽물을 문짝마다 이렇게 뿌린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남 : 우리 백선생 몸이 건강하신 것 보니까 동지죽을 자주 드신 모양이지.

북 : 이따가 동짓날 죽 먹을 때 송선생 생각하겠습니다.

나. 남북고위급회담

(1) 본 회 담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수 석 대 표〉	〈단 장〉
姜 英 勳 (국무총리, 1차~3차) 鄭 元 植 (국무총리, 4차~8차)	연 형 목 (정무원 총리, 1차~8차)

(가) 제5차 회담 1일회의 : 1991. 12. 11(수), 서울 워커히호텔 「무궁화홀」

남 : 제가 어제 도착하셨을 때 서설(瑞雪)이란 얘기를 했는데, 서설이란 말이 본래 그 아주 복되고 길할 징조가 있는 눈이라 해서 상서로운 눈이라 그래가지고 첫 눈을 대개 서설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일기예보가 그대로 맞았어요.

어제 우리 만찬 하는 동안에 꽤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귀가길이 좀 혼잡했고 그랬던 모양 같은데, 별 사고는 없이 지냈습니다마는, 대단히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북 : 요즘 기온이, 그저 평상기온이 늘 올라가는게 특징이거든요.

남 : 아니, 그런데 저희가 걱정한 건 아침에 기온이 내려가면 빙판이 되기 때문에 아침 출근길에 무척 어려움을 겪는데.

다행히 아침에 영하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출근에도 뭐 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북 :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세계적으로 이게 기온상태가 일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란 말이요.

남 :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죠? 평양도 좀 이제는 예전보다 따뜻한…….

북 : 예년보다 2도 정도 기온이 올라가고, 앞으로는 이게 지금 인류에게 재난을 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공업이 발전하다 나타나니까.

남 : 그렇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북 : 화력연료를 많이 때니까, 예,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이게 대기층을 자꾸 덮기 때문에.

오존층 파괴되는게 아주 위험하죠.

남 :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프레온가스의 사용도 금지가 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 : 예, 그 제일 나쁩니다. 오존층을 자꾸 파괴하는 프레온가스란 이렇게 되면 저 기상전문학자들은 30년후 되면 바닷가 수면이 한미터 높아진다.

남 : 그런 설(說)이 있죠.

북 : 그래 50년 되게 되면 1.5미터 까지 높아진다는데 그렇게 되면 야단이죠.

(나) 제6차 회담 1일회의 : 1992. 2. 19(수), 평양 「인민문화궁전」

남 : 어제가 마침 「대보름」이라고 그래서, 가장 큰 달이 둥글게 뜨는 날이 대보름, 어제 나오다가 달 봤습니다만.

북 : 나도 봤습니다.

남 : 저희 본래 전통적인 세시풍속에 의하면 대보름날 「부림」이라고 그래서 호두니, 땅콩이니, 잣이니 그런 것들을 먹고 그래서 1년동안 몸에 이상한 상처 같은 것도 안 나기를 기원하는 그런 풍속이 있지요.

북 : 요즘 서울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남 : 서울은 역시 평양보다는 조금 온도가 2~3도 높은 편이지요. 물론 금년 겨울에는 좀 이상하리만큼 추위가 많질 않았습시다. 그래 저희한테는 한편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도 많습시다. 춥지 않으면 그 만큼 에너지가 절약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북(안병수) : 대동강 물도 얼지 않았습시다.

남 : 또 남과 북사이에 얼었던 얼음이 녹아서 화해가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 편안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북 : 북남사이의 합의서가 채택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의 열기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날씨가 이렇게 온화하지 않겠느냐.

남 : 아주 대단히 좋은 해석이십니다. 사실 세계 환경문제는 꽤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오존층의 파괴인데 그래서 아마 6월달에 유엔이 주최하는 세계환경회의도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 밖에 없는 지구를 제대로 보존하느냐 하는 문제를 세계의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나 책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기회를 금년에 가지게 될 것으로 아는데 잘 이 환경을 유지한다는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북(안병수) : 작년도 85차 유엔의원총회때 남측에서 오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여기와 보고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느끼시고 계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전문가들이 한번 만나서 여기 경험을 듣고싶다.

그래서 여기 환경전문가들이 만나서. 서로 많은 의견들을 교환해서.....

남 : 알겠어요. 우선 평양이야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게, 차량대수가 적기 때문에 배기가스라는게 이게 엄청난 공기오염의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원료를 쓴다 하여도 배기가스는 결정적으로 공기오염의 주범이라고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경우에 좁은 땅에 많은 차가 배기가스를 배출하니까 공기오염이 될 건 당연하죠.

북 : 우리 차량 대수도 물론 많이 증가되니까 도시에 그 과도전차도 놓고 그러면 가스배출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남 : 저희들 지금 서둘러서 지하철 확장하고 이래서 좀 공해가 적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차야 매일 나날이 늘어나는 것은 억제할 길이 없고 또 사람들의 욕망이 또 차를 가지고 싶어하고 그래야 자유스럽게 아무데나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억제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UN가입관련 실무대표접촉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대 표〉 林 東 源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대 표〉 최 우 진(외교부 순회대사)

(가) 제1차 접촉 : 1990, 9.18(화),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북 : 우리 돌아온 다음에 그 수해인가 뭐 인제 다 일 없겠습죠?

남 : 감사합니다. 귀측 적십자, 적십자회라 그러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께서 위문의 전문을 보내 주고 또 우리 책임연락관을 통해 가지고 북측 대표들이 위문의 말씀을 전해준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북 : 예.

남 : 이 3일 동안에 서울, 경기,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 약500mm의 집중폭우가 쏟아졌어요.

65년만에 처음이래요. 그래서 좀 피해가 있었는데 전 국민이 단합을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북 : 예. 그거 좋은 일입니다.

북 : 요전에 갔을 때도 한강물이 상당히 많았는데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 이렇게 수재민들도 안착이 되고 있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나) 제2차 접촉 : 1990. 10. 5(금),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남 : 오늘 판문점에 오면서 통일로 양측에 가을의 꽃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는것을 보고 여러가지 느낌이 들어요. 코스모스도 오늘 우리 회담에 어떤 의의있는 징조를 바라고 있는 것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북 : 임선생, 저하고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평양에서 내려왔는데 양쪽에 그 벼가 아주 무르익었는데 지금 한참 벼가을을 합니다.

남에서도 벼가을 지금 시작했습니까?

북 : 예, 지금 보니까 벼가 잘 여물고, 우리 회담도 저렇게 결실을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우리 북과 남이 잘 손을 잡으면 그와같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남 : 아, 좋습니다.

북 : 예, 이 가을이라는게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상당히 좋지요. 그래서 떠나면서 뒤를 생각해 봤는가 하면 원래 우리 예비회담을 2월에 시작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봄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예비회담을 시작했던 건데 또 가을도 한번 지나고 두번째 가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본회담까지 맞이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훌륭한 결실을 볼수 있다고.....

남 : 열매를 맺을 때가 됐지요.

그 북쪽에서는 추석때 명절을 어떻게 지냅니까? 대개 같겠지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북 :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거 다 살려가지고 그대로 하지요. 특히 추석때는 교통같은거 우선 뭐 묘에 가야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통문제부터 쪽 푸는 방법으로, 열차만해도... 내가 보도를 들으니까 특별히 열차 편성된게 그 굉장히 많습니다. 삼십 몇 열차나 선을 다시 늘리고 물론 버스 같은 것도 다 방향별로 지방에서 평양 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성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남 : 민족적 명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추석은 사실 일년중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제일 좋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계절이고, 거기에다가 농사일도 대개 마무리가 되어서 한시름 덜고, 또 온갖 햇곡식과 햇과일이 풍성해서 참 모든 국민들이 즐기는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주 민족적 명절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뭐 북쪽에서도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남쪽에서는 옛날부터 이어 내려오는 풍습인 아침일찍 일어나서

햇곡식으로 빚은 송편과 술, 그리고 여러가지 햇과일을 차려가지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올리고 낮에는 조상들의 얘기를 나누며 성묘를 하고, 저녁에는 또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많은 음식을 놓고 얘기도 나누고 놀이도 하고 이런 풍습이 이어져 내려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우리가 말이에요. 남쪽은 추석이 이틀 공휴일로 되어 있어요. 이틀 쉬는데 그것이 다른 공휴일까지 몇가지가 겹쳐가지고 연 닷새를 그냥 놀았어요. 휴일이 됐습니다.

오늘 닷새를 놓고 처음 나온 날인데 국민들이 황금의 연휴라 해가지고 대단히 아주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추석은 물론 공휴일로 돼 있겠지요.

북 : 예, 그렇요.

남 : 참 좋은 현상입니다.

북 : 그렇게 하고 임선생, 북이 고향이니까 평북 나하고 같은 데니까 고향생각을 좀 했겠습니까.

남 : 이제 그 참 좋은 말씀인데 북에 고향을 둔, 고향에 가지 못한 많은 이산가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추석 하루가 슬픈 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산가족들이 임진각에 와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망향제를 지내고 하는 것이 어제 텔레비전 뉴스로 많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회담도 있고 그래서 집에 앉아 있었습시다만, 그저께 거기 가지 않았습시다만 그런 착잡한 감정이 좀 있어요.

(다) 제3차 접촉 : 1990. 11. 9(금),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북 : 금년도 비가 좀 많이 와서 가을 채소, 남새 어떻게 되겠는가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가을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오고 오늘 처음으로 비가 조금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을남새가 잘 됐습니다.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생각해 봤는가 하면 자연은 이렇게 지금 결실을 잘 가져오는데 사람들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좋은 결실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금년 보게되면 대화라는게 이거 대화풍년이죠. 지금 고위급회담이, 또 본회담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열렸지. 거기다 또 적십자실무회담도 시작을 했지.

또 이제 이달 말되면 체육회담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이렇게 말하자면 풍년인데, 그 풍년이란 뜻은 여러갈래의 대화들이 시작됐다는 의미도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좋은 결실을 가져와야 실질적인 풍년이 되니까 결실을 어떻게든지 잘가져오는게 매우 중요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표들도 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금년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역사적인 해가 될수 있어야 될텐데, 좋은 시작들을 했는데 역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상당히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하는 가운데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최선생께서 오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다시 왔습니다.

북 : 저야 그저 늘 좋은 생각을 하는 걸요. (쌍방 웃음) 늘 좋은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이거 날씨가, 난 대표접촉에 나오면서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날씨가 늘 개이고 했는데 오늘 비가 내린단 말야. 우리 대표접촉이 해가 잘 날때 될 결실이 있으리라고 봤는데 결실이 이거 두번씩 없으니까 이번엔 좀 비가 온다하고 날씨가 좀 이렇게 달라졌는데 우리도 임대표선생이 전향적인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해서 우리하고 좀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남 : 나무를 가꾸려면 물을 좀 줘야 돼요. 비가 오는 것도 괜찮아요.

북 : 그러면 우리 오늘 좀 잘해 봅시다.

(3) 제4차 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가) 제3차 접촉 : 1991. 8. 16(금), 판문점 「평화의집」

남(宋漢虎) : 어제는 굉장히 날씨가 더웠어요.

어제 평양에서 내려오시느라고 고생했겠네.

북(백남준) : 어제는 명절인데, 잘 쉬셨어요?

남(宋漢虎) : 나는 집에서 쉬었는데, 오늘 접촉이 없었으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좀 할려고 그랬습니다.(쌍방 웃음)

북(백남준) : 우린 명절날인데 여기를 내려 올려고 길에서 명절을 쇠었구요.

남(宋漢虎) : 우리는 골프치는 것을 친구들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항암제 먹는다고. 이 얼마나 건강에 좋냐고 그러는데, 어제는 운동 좀 할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북(백남준) : 왜? 어저께 하루를 할 것이지.

남(宋漢虎) : 아, 이것 때문에 못했단니까.(쌍방 웃음)

북(백남준) : 오늘은 뭐 큼직한 선물을 가지고 나오셨는가 보군요.

남(宋漢虎) : 오면서 보니까 북쪽에서는 아마 더 빠를 테니까, 비가 많이 나왔어요.

북(백남준) :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서…….

남(宋漢虎) : 예. 지난번 우리가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더워요.

입추가 지났는데도. 그전엔 더워야 할 계절에 오히려 선선하고 그래 가지고 농사일에 대해 좀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서울은 어제가 제일 온도가 높았다구.

북(백남준) :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을 날씨가 무더우면 곡식이 잘 열려요.

남(宋漢虎) :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 8월초에는 오히려 선선해 가지고, 곡식이 금년에 잘 안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하늘이 잘 도와주네요.

북(백남준) : 그래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이제는 말복이 지나고 입추가 되고 그러니까 아침저녁은 참 선선해요.

북(최우진) : 그런데 자연은 계절을 따라서 씨뿌릴때 씨뿌리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는데, 우리 회담은 자연보다도 못한 측면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宋漢虎) : 예, 자연도 결실이 있으니까 또 이 회담도 결실이 있도록 해야겠죠.

북(최우진) : 우리가 종전에 예비회담 할때도 가을을 앞두고 결실을 맺었는데, 우리 본회담도 시작된지 오래 됐고 가을이 돼오니까 결실을 맺도록 합시다.

남(宋漢虎) :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 봅시다. 아까도 내가 차타고 오면서 벼가 이삭이 많이 나오고 그런걸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벼가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익고 하면 곡식이 거두어지는데, 우리도 회담에서 뭔가 거두어 들이는 수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다. 남북정치분과위원회 회의

(1)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 원 장〉 李 東 勲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위 원 장〉 백 남 준 (정무원 참사)

(가) 제1차 회의 : 1992. 3. 9(월), 판문점 「평화의집」

남 : 우리 남쪽은 거의 겨울이 없이 지난 것 같아요. 북쪽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려서 생각을 해봐도 국민학교 입학, 개학이 양력 3월에서 4월인데, 3월이지요.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입학추위를 한다』이랬는데, 금년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요. 그냥 이제 경칩도 지났고 대동강 물도 풀렸을 테고, 개구리도 나왔을 테고, 이제 뭐 3월 20일이면 춘분이니까.

북 : 원래 경칩이 오면 벌레들이 다 입을 다시 벌립니다. 동면하던 벌레들이.

그런데 전문가들의 '애기에 의하면 이쪽 시베리아쪽 고기압이 약화되고 남으로 이렇게 열풍이 불고, 그 다음에 온습이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불어오고, 그래서 좀 덥다고 그래요.

남 : 글썄요. 이제 그 환경문제하고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요. 특히 남극 상공에 오존층이 구멍이 뚫렸다 그래가지고 미래학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우리한테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구인구가 58억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 지구는 감당할 수 없대요. 급격하게 환경이 파괴되고, 그러고 나서는 지금과 같은 인구증가 추세라면 우리 인구가 앞으로 90년 후에는 완전히 맘모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지구는 또 하나의 빙하기로 지금 접어들어 갔다. 이런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적게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참 걱정이 되고 우리까지야 이제 뭐.
북 : 걱정마시라요. 그저 자연은 사람이 정복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은 사람이 정복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람에게 의해서 정복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크게 염려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남 : 아니 그런데 또 걱정을 우리한테 불러일으켜 주는 것은 지금 우리 지구 대기권의 산소의 1/3인가 1/4을 남아메리카 아마존 정글지대에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정글이 말이지요, 매년 7%씩인가 없어지고 있대요. 그런 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는 그동안 선진국에서 우리를 이용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개발하지 않게 할려면 선진국에서 나눠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복잡한 것 같아요.

북 : 국제환경기구라는 것이 있으니까 무슨 대책이 서겠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 북남합의서도 발효되고 또 우리 민족의 통일기운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또 일기를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남 : 글썄요. 그런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백선생이 항상 이렇게 아주 동안(童顔)의 웃는 표정으로 나오시니까, 원래 겨울에 외투입은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겨울에 아주 찬 동장군이 아니라 태양의 따뜻한 웃음이라는 것 아니예요. 우리 백선생 항상 웃으시고 그러니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나) 제4차 회의 : 1992. 5. 19(화), 판문점 「통일각」

남 : 오면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 남쪽은 북쪽에 제일 가까운 쪽부터 모내기가 지금 시작이 될 텐데, 북에는 지금 모내기 거의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북 : 예, 완성단계입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지금 모내기가 상당한 정도로, 보도들에 의하면 이달 말쯤 다 끝낸다 그러합니다.

남 : 모내기라는 것이 저 북쪽 끝에서 부터 쪽 내려가니까.

원래 옛날 모내는데 품팔이 하는 사람들은 봄되면 북쪽에 가서 부터 쪽 모

를 심어서 내려 오거든.

그래가지고 전라도까지 끝으로 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큰 나라도 아닌데 기후의 차이가 그 정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북 : 우리 남포 갑문, 그것을 해냈으니까 큰 물이 개성 나오는 고속도로 주변 논밭까지 와 적시고. 그리고 뭐 청년들이 모내기를 하면서 노래부르고 모내기 기계 소리로 해서 아주 엄청나요.

남 : 요새 황해도 이쪽으로 무슨 관개수로 개통했다고 그러던데.

북 : 수천리길 물길 공사를 했으니까.

남(金達述) : 남포물이 개성까지 옵니까?

북 : 예. 그리고 거기다 또 요즘 말입니다.

북(김완수) : 그 물이 서울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북 : 그쪽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 쪽은 비가 최근에 자주 내려요.

그런데 그 강우량도 그냥 많지 않고 마춤하게 내려서 농민들은 뭐 단비라고도 하고 풍년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밭곡식도 좋고, 모내는데도 아주 유리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좋아합니다.

남 : 「농자천하지대본」인데 농사가 잘 돼야 사람들 마음도 푸근해지고 평안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렇게 되지요.

북 : 우리 7차 회담에서 좋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처음 열리는 정치분과위원회인데, 우리 모내기는 처음 오늘 시작하는 거로 되지.

남 : 그렇시다. 이제 모내기를 오늘 시작합시다.

(다) 제5차 회의 : 1992. 6. 9(화), 판문점 「평화의집」

남 : 단오절에는 뭐 하세요? 거긴 단오절이 공휴일인데?

북 : 예, 공휴일. 그쪽에 이선생은 단오절 어떻게 쇠셨어?

남 : 우리는 단오절은 노는날이 아니에요. 그냥 24절기중에 하나지. 단오하고 대개 식목일, 한식 이 근방 아닙니까?

북 : 아니지.(웃음) 망종, 망종.

남 : 아니지, 그렇지. 단오가, 망종하고 그렇지.

북 : 예, 계절로는 망종이고.

남 : 단오절 전후해서 어떻게 되나 우리가 어린이날이 대개 단오절 전후해서 있고, 그 다음에 불탄일이라고 해서 부처님 오신날, 그날이 노는날이니까 단오절은...

북 : 5월, 6월달 들어서 6월 1일이 국제아동절이고, 그 다음에 6월 5일날 단오고, 6월 6일이 소년단절이고. 그러니까 단오는 뭐 지금 보면 민속명절인데 기록은 여러가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지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파종을 끝내고 그리고 풍작과 풍어를 기원해서 굿도 하고, 제도 지내고 그런 날이라도 그래요.

그래서 단오절 그런 날은 천체가 우주 중심에 놓인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그런 양기가 가장 완강한 날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저옛날에는 천중절이라고. 그래서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리취가지고 둥글게 빚은 이런 절편을 만들어 먹는다는 거여,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남 : 창포? 그렇지, 우리도 그건 지금도.

북 : 그네도 뛰고, 남자들은 또 씨름도 하고, 그 왜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하고 성춘향이가 오작교에서 만난 것도 단오날에 만났고.

남 : 그렇지, 맞아요.

북 : 그대 우리는 공휴일인데, 그날에 보면 지방마다 아마 쇠는게 다양해요. 여러가지 즐겁게 쇠는데, 평양에서는 남녀노소 그저 떨쳐 나서서 음식을 갖춰가지고 모란봉, 그 대성산, 이쪽의 보통강, 그다음에 이쪽에 저 대동강 유역에 있는 공원, 유원지들 가서.

남 : 그 모란봉, 을밀대가 지금 일반에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72년에 모란봉 내각초대소에 있을 때는 을밀대는 공개가 안되던데.

북 : 그거는 공개 안됐던 일이 없어요.

남 : 아니, 그렇지 않던데. 그때 을밀대는 그 모란봉 내각초대소 입구에 성문 비슷한게 있고, 거기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을밀대가 내각초대소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던데.

북 : 고거는 군대가 보초선 거는 그 부벽루에 있는 초대소 있지요?

아마 이위원장이랑 한번 가 보셨겠는데 그건 초대소의 손님을 경비하느라고 서있는 거고 모란봉이야 그건 유원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을밀대랑 이미부터 다 그건 공개돼 있고.

그쪽에 지금 모내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 : 중부이북은 거의 다 끝났지요. 중부이남은 지금도 한창하고 있고,

북 : 지금 모내기는 이미 끝나고 모 김매기합니다. 물론 저기.

북쪽에 좀 냉한 곳에는 모내기가 다 끝난 상태고, 이쪽에 남쪽으로 나오면서는 모내기 이미 끝나고 지금 김매기가 한창입니다.

남 : 어떻습니까, 지금? 북에는 천수답하고 수리답하고 그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북 : 천수답이라는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작년, 재작년에 또 천리길 물길공사를 해서.

저 산간지대 좀 이렇게 경사가 높은 북쪽에는 논판면적은 얼마없고, 그러니까 일부 부분적으로 극소량인데 그게 천수답이고 그 다음에는 수리답입니다. 전면적으로.

(2) 위원장접촉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p>〈위 원 장〉 李 東 馥 (국무총리 특별보좌관)</p>	<p>〈위 원 장〉 백 남 준 (정무원 참사)</p>

(가) 제2차 접촉 : 1992. 7. 10(금), 판문점 「평화의 집」

북 : 아침에 나오실 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남 : 비가 조금씩 뿌리는 걸 보면서 나왔고, 어제밤에 소나기가 한 서너차례 꽤 있었어요. 비가 조금 더 와야 되는데.

북 : 그러게. 그러면 그쪽 전라남도 지방 몹시 가물다 그러더만. 요즘 어떻습니까? 서울이 몹시 무더웠죠?

남 : 무더웠어요.

어제 소나기 오고. 이제부터 조금 서늘하네요.

북 : 평양도 최근에는 예년에 보기도물게 무더웠습니다. 며칠전에는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남 : 평양이?

북 : 그럼.

남 : 우리는 지금 대구가 37도 8분까지 올라 갔다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 말로 사우나예요, 사우나.

북 : 사우나?(웃음)

여름철에는 위도 45도상에 있는 건조하고 더운 공기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기후영향 주는데 금년도는 한 보름 앞당겨서 이동한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해, 저쪽에 동북지방, 그다음에 중국 베이징까지 건조하고 더운 공기가 팍 차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 면적이 무려 1,000~3,000km²나 된다고 그러네. 그래서 그 걸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고, 가물고 아주 무더운 그런 기후가 생겼다고

그러더군요.

남 : 옛날 왕조시대 같으면 임금님이 이런때는 기우제를 지내는데.

북 : 아, 그럼요. 기우제라고 지내지.

남 : 판문점에서 남북합동으로 판문점에서 기우제행사 한번 합시다.

북 : 그렇게 해서 비만 온다면야.

남 : 어때요? 뭐.

북 : 그런데 오늘부터 대체로 건조하고 더운 공기가 차츰 서서하게 이동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더군요.

남 : 비가 오락가락 할 모양이야. 아직도 시원하게 올거 같지는 않고, 뭐 우리가 부속합의서나 빨리 타결하면 시원한 빗줄기가 좀 뿌릴는지 말이지.

북 :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웃음)

라. 남북군사분과위원회 회의

(1)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p>〈위 원 장〉 朴 庸 玉 (국방부 군비통제관)</p>	<p>〈위 원 장〉 김 영 철 (인민무력부 부국장)</p>

(가) 제6차 회의 : 1992. 7. 16(목), 판문점 「평화의 집」

남 : 날씨는 상당히 좋은 날씨인데, 요즘 장마철 아닙니까?

북측도 마찬가지로.

북 : 아직 장마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가끔 비는 옵니다.

남 :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상당히 좀 가뭄이 있었는데 요번에 비로 해서 이제 해갈이 완전히 됐어요.

북쪽에서는 가뭄 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죠?

북 : 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뭄보다도 7월13일날이 초복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중복, 말복까지는 더위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남 : 그렇죠. 그래요.

북 : 옛날부터 혹서기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아마 삼복더위를, 그 누구 말이나 더위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피서라는 말은 또 혹서기가 있으니까 피서라는 말이 생긴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더운 7월에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어정해지죠. 쉬운 일도 어려워지고, 어려운 일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고 해야할 일을 놓고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덤다나니까 어물어물하고, 날짜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정어정 보내고

남 : 우리는 그렇게 보내서는 안되지.

북 : 옛날 사람들이 7월을 「어정칠월」이라고 했지.

남 : 어정어정 7월 어정쩡하다?

북 : 어정7월, 어물 7월이라 우리 옛날 사람들이 하두 더위가 덥다나니까 그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거워 보인다는 겁니다.

남 : 으흠.

북 : 그래, 놓고 보면 이 7월달이 상당한 정도로 무슨 일하기 힘든다 이런 말 같습니다.

그런데 7월을 돌이켜보면 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인간의 심장속에 지닌 열정이 때때로는 자연의 혹서기를 서슴없이 뚫고 나가는 때도 많아요.

근데 그 3년전 7월이겠습니까.

그때 그쪽의 림수경 대학생이 7월달에 평양축전에 참가했었고, 20년전 72년 7월에는 7·4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 : 그렇지.

북 : 우리 인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대로, 말하자면 혹서기도 뚫고 7·4공동성명으로 나왔단 말예요.

39년전 7월이니까 53년도죠. 전쟁을 바라지 않는 인민들의 마음이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던 말예요.

49년전 7월에는 2차세계대전 종말인데, 포츠담에서 아마 스팔린, 처칠, 루즈벨트가 전후처리에 관한 회담이 있었고.

그래, 가만 놓고 보면 7월이 더워도 인간은 할 일을 다합니다.

그때 놓고 보면 또 나쁜 일도 많았어요. 가만보면 7월7일에 놓고보면.....

남 : 아, 그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나오셨어.

북 : 7월 7일 놓고 보면, 일본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대륙침략한 것도 7월 7일이지.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원자탄도 미국사람들이 7월 15일에 첫 원자탄을 만들었던 게죠. 놓고 보면 이 7월달이 꼭 무슨, 사람들이 한다 하면 또 못하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회담이 비록 더위 속에서 진행되지만 그래도 이 아직 남은 일자가

얼마 안되는 것만큼, 아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회담을 추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 : 그래요. 이제 지금 7월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우리 군사분과 위원회는 이 7월을 좋은 달로 만들어 봅시다.

이제 9월 1일까지 약속한 날짜도 별로 남지 않았는데, 좀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2) 위원접촉

(가) 제3차 접촉:1992. 8. 12(수),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남(任台淳) : 자,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 날씨같은데.

북(박림수) : 날씨도 좋고 계절도 양춘가절인데, 바람은 찬바람 불어요.

남쪽에서 찬바람 불어와요.

남(任台淳) : 뭐, 선선한 바람이 불지요.

북(박림수) : 태풍 뭐11호도 불어온다지, 포커스렌즈지 무슨 포, 풍커슨지 그런 것도 분대요.

그래서 그까짓 태풍이야 뭐 불겠든 말든 큰 신경쓸 것 없는데, 전쟁연습은 지금 우리를 크게 자극하고 대화에도 아주 나쁜 영향줘요.

남(任台淳) : 자 뭐 날씨하고는 영 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북(리길청) : 어쨌든 기분 나쁜거야 기분 나쁜거지요.

남(任台淳) : 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들녘에 벼이삭들이 누룻누룻 하게 벌써 고개를 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담을 시작을 할 적에 모도 내기 전이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자랐구나 하는걸 와 보고 이제 감회가 새로웠는데.

이것이 뭐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농민들의 땀과 노력과 성의가 깃들여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비록 네 사람이 만난 것만 하더라도 정말로 이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있다』든가 또 심하면 「사후약방문」, 사람이 죽은 후에 약방문 아무리 좋게 써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미리 잘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우리 분과위원들에게는 임무가 분명하게 주어진 만큼, 이제 시일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걸 빨리 책임량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정말 잡념, 딴 생각을 하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감을 갖고 특히 나는 오늘 회담에, 접촉에 임하면서 그런 다짐을 다시금 했습니다.

북(박림수) :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짓자면은 일년내내 수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부속함의서도 잘 되자면은 그걸 가꾸는 사람들이 옳은 립장 가져야 돼요.

회담을 진짜로 진척시키자는 립장, 대화분위기를 흐리지 않게 하는 립장 이게 중요해요.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그런 립장이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는 협상을 하자고 그러고, 뒤에서는 대화일방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예요.

농사꾼이 열매를 잘 걷자는 그런 립장이 아니예요.

마.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회의

(1)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 원 장〉 林 東 源 (통일원 차관)	〈위 원 장〉 김 정 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가) 제 1 차 회의 : 1992. 3. 19(목), 판문점 「평화의 집」

남 : 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북쪽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북 : 같습니다, 예.

남 :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판문점에 오면서 길가에 들과 산을 보니까, 벌써 양지바른 곳에는 잔디가 파릇파릇해 졌어요.

북 : 예, 파릇파릇해요.

남 : 예, 그리고 나무에 물이 들어서 생기가 솟아요. 남북관계도 이제 47년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기 시작했는데, 화창한 봄을 재촉하기 위해서 우리 잘해 봅시다.

북 : 잘해 봅시다. 내일 모레면 춘분이 아닙니까?

남 : 내일 모레 춘분이죠.

북 : 춘분이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과일나무도 옮겨 심고 뽕나무도 옮겨 심고 병아리도 깨운다는 기억이 있었는데.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우리가 협력·교류분과 1차회의를 「평화의 집」에서 하는데, 아주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1차회의는 「평화의 집」에서 하고, 다음 2차회의는 「통일각」에서 하니까 「평화통일」, 「평화통일」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분과위원회 1차회의다, 이렇게 아주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 : 아주 대단히 의미해석을 잘 하셨네, 동감입니다.

(나) 제4차 회의 : 1992. 5. 30(토), 판문점 「통일각」

북 : 금년도에 나가서 모 좀 폼아봤습니까?

남 : 이제 좀 나가려고 그래요. 농촌 일손돕기 나가서 좀 해야죠.

북 : 그 분야도 나보다 좀 늦구만, 나는 벌써 며칠 나가 했는데. 우리쪽에서는 이제 모내기 뜨게 되면 농민들뿐만 아니라 로동자, 사무원, 군인들까지 전국이 농촌을 돕습니다. 그래 지금 학생들, 군인들 다 한 보름씩 농촌에 가서 농민들 일손을 도와주고 있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를 포함해서 거의 다 며칠씩 가서 도와주고 나왔어요.

남 : 그거 아주 잘했구만.

남(朴雲緒) : 심는 솜씨가 어느 정도예요?

북 : 모 심는 것? 그거야 기계로 심으니까 손 가지고 기술 발휘 할 데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가서 주로 모를 좀 뜨고 그 다음에 논두렁이나 좀 정리를 해주고...

우리 손모는 요즘 많이 안해요. 길잡이 잡는 것, 기계모 했는데 빠진 것들 좀 보식하고...

남 : 보식이라고 그러나요?

북 : 보충한다.

북 : 지금이 원래 장마기간입니다. 아마 8월 중순까지 장마가 계속될 것 같아요.

남(朴雲緒) : 금년에 장마는 일주일 늦게 왔어요. 6월 2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주 한 3~4일 정도 되면 다 끝날 것입니다.

남 :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고 지역에 따라 좀 오고 안오고 하는데, 김달현부총리가 지난 주에 서울 다녀갔지 않습니까? 남쪽지방 쪽 여행을 하고 했는데 장마비를 하나도 맞지 않고 어떻게 교묘하게 피해서 다니는지.(웃음)

북 : 원래 북쪽 사람들이 남행할 때는 좋은 걸 좀 안고 다니니까 비도 피해 가지.

남 : 장마철에 비를 안맞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북 : 아마 합의서 리행을 위해서 좀 분발하니까 하늘도 도와주는 모양이오.

남 :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북 :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합의서 리행에 좀더 적극적인 것은 사실인 모양이야.

남 : 다 적극적이지. 남쪽이나 북쪽이나 우리 교류·협력분과에서 적극적이라는 얘
기예요, 「우리」라는 게.

(2) 위원접촉 :

(가) 제2차 접촉 : 1992. 4. 2(목),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북(손종철) : 화창한 봄날입니다.

남(金仁浩) : 날씨가 좋은 것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서로 같이 노력하십시오.

북(손종철) : 날씨가 아주 화창한 봄날인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일주일전 하고 정말 달라요. 진달래 꽃이 지금 활짝 폈어요. 그래서 아주 그림을 보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쪽도 진달래들 좀 폈어요?

남(金仁浩) : 예, 많이 폈습니다.

북(손종철) : 진달래는 말하자면 우리 민족이, 조선사람이 상당히 사랑하는 꽃이지요. 그전에 일제를 반대할 때, 항일투사들이 백두산 중국 넘나들때, 그 붉은 진달래를 보고 고향의 향취도 느끼고, 조국에 대한 향취도 느끼고, 그래서 더 조국을 해방하겠다 하는 결의를 다졌다 합니다. 그래서 진달래가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은 꽃입니다.

남(金仁浩) : 저는 다행히 북쪽에 가서 북쪽 강산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손위원은 그전에 오셨던가요?

북(손종철) : 안 나갔어요.

남(金仁浩) : 못와보셨죠? 우리들끼리만 볼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빨리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임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해야겠습니다.

북(손종철) : 계절이 올해는 좀 앞당겨 졌지요?

남(金仁浩) : 금년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예년에 비해서 빠르게 봄이 온 것 같아요.

북(손종철) : 빨라요. 우리의 경우를 보면, 진달래가 활짝 피는 것이 대체로 4월 15일, 20일 그 사이예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경사스럽게 3월말부터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어요. 상당한 길조 같아요.

남(辛鉉雄) : 아마 남측하고 계절 차이가 조금 있을 거예요.

북(손종철) : 조금 있지요.

남(金仁浩) : 지구 전체가 너무 더워지는 현상이라면 좋은 현상이 아니고, 그러나 계절이 빨리 시작하니까, 특히 봄이 빨리 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겨울이 빨리 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고.(웃음)

(나) 제3차 접촉 : 1992. 4. 10(금),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남(金仁浩) : 남쪽에는 지금 비가, 대전 이남쪽은 많이 오고 서울도 제법 옵니다만, 북쪽에도 비가 좀 오고 있습니까?

북(손종철) : 예, 아주 4월의 비라는 것이 약비라고도 하고, 금비라고도 하고, 북비라고 하고.

남(宋榮大) : 단비라고도 하고.(웃음)

북(손종철) : 밭에 들에 흙들을 아주 보드랍게 해주고, 습도 보장해 주고, 아주 좋은 비입니다.

남(辛鉉雄) : 농사에 아주 좋지요.

남(金仁浩) : 우리도 비가 그동안 안와서 아주 몹시 기다렸는데,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이렇게 또 비가 오면 오는대로, 아주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북(손종철) : 좋은 징조입니다.

남(金仁浩) : 혹시 오시는데 비 때문에 고생 안하셨는지 모르겠네?

북(손종철) : 예, 그저 비 좀 쏟아져도 좋더만. 비 좀 왔으면 했는데, 거 오는 것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일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속도있게 좀 해봅시다.

남(金仁浩) : 서로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합시다.

(다) 제6차 접촉 : 1992. 8. 21(금),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남(宋榮大) : 오늘 날씨가 아주 참 화창한 것 같습니다. 산천초목이 더 푸르러 보이고, 생기와 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 : 예, 이제 이틀 있으면 처서지요?

남(宋榮大) : 그렇지요.

북(손종철) : 이제 더위도 물러가고, 아침 저녁 선기들이 납니다. 찬 기운도 나고 그런데 또 자연적으로 오는 찬 바람도 있는데, 요즘은 화약내 나는 찬 바람도 불어옵니다.

남·북(일동) : (웃음)

북(손종철) : 그래서 좀 찬 바람 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업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분과는 우리 위원접촉에서 좀더 합심해서 빨리 좀 합의서를 만들어 나가야겠어요.

남(宋榮大) : 내가 오늘 서울에서 여기 오면서 들녘을 보니까, 이제 벼이삭이 아주 우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느낀것이 역시 자연은 변함없이, 어김없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과 함께 이제 결실의 9월을 앞두고서 우리 부속합의서 작성도 결실을 맺어야 될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금 3개 분과위원회 위원접촉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류분과위원회접촉이 제일 먼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미, 대미를 장식하는 것도 우리 교류분과위원회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좀 우리가 속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옛말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는데, 좀 더 오늘은 속도 있게 해 가지고 9월 5일 이전에 우리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부속합의서 작성이 끝나면 참 좋고, 만에 하나 어려우면 오후라도 계속을 해서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북(손종철) : 나는 지금 여기 오면서 벼이삭도 패고, 가을바람도 이젠 불어오고, 또 오래지 않아 겨울이 오지요, 생각되는 바가 많았습니다.

뭘 생각했느냐?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시작한 게 아마 겨울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덧 또 겨울이 돌아온다 세월은 아주 흐름이 빠르는데, 우리 지금 만나서 하는 일은 매우 지지하구나, 이래서 참 유감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번 6차에서는 좀 더 호상 성실한 태도로 나가 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宋榮大) : 동감입니다. 오늘 아주 의기투합이 잘 되는 것 같은데.

(3) 위원장접촉

〈 환 담 자 〉

우 리 측	북 측
〈 위 원 장 〉 林 東 源 (통일원 차관)	〈 위 원 장 〉 김 정 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가) 제1차 접촉 : 1992. 9. 7(월), 판문점 「통일각」

남 : 오늘이 백로지.

북 : 백로가 되어서 아마 비오는가 보다.

남 : 일기예보 보니까 남쪽에는 금주 내일 모레 글피 비가 올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 : 가을에 요즘 비가 그만 오고 맑으면 농업에 좋은데.

남 : 글썸, 요 얼마 전에 한참 아주 며칠 동안 뜨거운 날씨가 계속됐는데.

북 : 매년 9월달에 지나는 엔디야구도까라는 태풍이 늘 말썽이 됐는데, 이번에는 일없어요.

임위원장이 부디 10일날 쉬게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회담 다 미뤄 놓고.

남 : 10일날 추석날 나와서 회의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웃음)

북 : 추석은 11일인데 하루 전부터 쉬겠다니까 내 또 양보했지.

남 : 우린 10일부터 공휴일이거든. 거기는 또 9. 9절이 공휴일이지. 그러니까 오늘 하고 내일밖에 없는데.

북 : 그래서 내 오늘 회담하게 된 사람들 보고 오늘은 남쪽의 임위원장이 자주 놀겠다니, 좀 놀게, 가서 회담해 주고 돌아오겠다 그랬지. (웃음)

남 : (웃음)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해야지. 내가 나오는 건 문제없는데 우리 나오면 보도일꾼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좀 미안하단 말이야.

교류·협력이 잘못되는 것 같이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북 : *군중성을 좀 나타내느라고 그러셨구만. 오늘 회담해 볼까요?

*군중성 : 군중과 함께 행동하고 어울리는 품성. 군중을 위하여 몸바치는 품성.

바. 남북 핵관련 회담

(1)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을 위한 대표접촉

(가) 제2차 접촉 : 1991. 12. 28(토), 판문점 「평화의 집」

남(林東源) : 어디 북쪽도 눈이 많이 왔어요?

북(최우진) : 나는 여기서 놀았으니까, 휴식을 했으니까 모르고. 평양에서 다닌 분 말씀은 얼핏 들어보니까, 평양하고 사리원 그 어간은 눈이 많이 오고, 사리원서 부터는 눈이 좀 적게 오고, 보니까 판문점 여기도 개성쪽은 적게 왔어요. 아까 우리 안내하러 왔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에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남(林東源) : 서울쪽엔 많이 왔는데, 오히려 판문점 쪽으로 오면서 보니까 좀 적어요.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왔어요.

북(최우진) : 그래도 눈이 이만하면 많이 왔어요.

남(李東馥) : 눈도 수도를 좋아하네요. 눈도 서울과 평양을.

남(林東源) : 서울과 평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북(최우진) : 요전번에 합의들이 좀 많이 전진을 못해 나가니까 눈이 조금 오다 그만 뒀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눈이 좀 많이 왔거든. 많이 왔으니까 뭘 좀.

남(林東源) : 전망을 밝게 합니다.

북(김영철) : 대설이 대풍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가) 제3차 접촉 : 1992. 3. 3(화), 판문점 「평화의 집」

남(林東源) : 자, 이제 3월에 들어섰습니다. 봄이 오고 있고 오늘 이쪽에 오면서 보니까 벌써 나무에 물이 올라서 파릇파릇한 기운이 좀 도는 것 들이 보입니다.

북(최우진) : 아무래도 그쪽에는 우리 북쪽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남(林東源) : 그렇죠.

북(최우진) : 그래서 평양에서 개성으로 오면서도 보니까 거기도 역시 봄기운이 돈단 말야.

남(林東源) : 봄기운이 좀 나죠?

북(김영철) : 그래 옛날부터 3월은 「양춘가절」이라고 했는데.

남(林東源) : 그 남북관계도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이 아무래도 봄이 늦게 오는 거 같애, 지난번 접촉을 해 보니까.

북(최우진) : 아니야. 북쪽이 남쪽보다는.

남(林東源) : 남쪽이 역시 화해·협력도 빨리 나오고.

북(최우진) : 아니, 아니야. 이거 보라, 임선생! 임선생이 북쪽에서 살아봐서 알겠지만 가을도 남쪽보다 먼저 합니다.

남(林東源) : 가을은 먼저 하지. 가을은 먼저 하는데. (웃음)

북(최우진) :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결실을 먼저 가져온다구. (웃음)

남(林東源) : 봄이 좀 늦은 것 같애요. 우리 지금 봄을 열고 있는데 빨리 노력해서 봄을 앞당기도록 합시다.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가)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p>〈위 원 장〉 孔 魯 明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p>	<p>〈위 원 장〉 최 우 진 (외교부 순회대사)</p>

① 제11차 회의 : 1992. 11. 27(수), 판문점 「통일각」

남 : 지난겨울, 그전 겨울, 몇 년 겨울이 난동이라고 그러더니. 추워지는 모양이야.

북 : 가만보면 추위는 북쪽에서부터 오고, 태풍이런거 보면 우리 평양 이쪽에서 보면 남쪽에서부터 태풍이 오고.

남 : 따뜻한 바람은 남쪽에서 올라가지.

북 : 아, 태풍(일동웃음)

태풍이 남쪽에서 오고 그 다음에 저 시베리아에서는 한랭전선이 밀려오고 이렇게 된다 말어요.

남 : 한파전선은 북쪽에서 오고.

북 : (웃음) 그런데 아무리 자연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사람이 힘을 같이 한다면 이겨내지 못하지 뭐. 점차적으로 이제 개조되고 이렇게 되니까.

남 : 따뜻한 마음이야. 이 추위를 이겨야지 따뜻한 마음으로.

북 : 그럼, 그런데 우리 겨울에 무슨 땅이 다 얼어붙고 만물이 얼어 붙는다 해도 우리 대화까지 얼어붙으면 안되겠는데.

남 : 아 그럼, 그건 안되지.

북 : 그렇게 되면 사람이 활동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데 잘못하다가 자기본성적인 요구를 다 저버리게 되고 자연한테 사람이 못건디게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고 이렇게 되자면은 대화도 얼어붙지 않아야 되겠어.

(나) 위원접촉

① 제1차 접촉 : 1992. 5. 15(금),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북(박광원) : 어제 우리 평양에서 개성으로 오며 보니까 모내기가 한창예요. 모내기가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의외로 다들 하니가 많이 진척됐어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모내기 얼마나 했어요?

남(鄭大圭) : 요새 우리는 모내기도 말이지요, 옛날에는 남부지방이 6월 중순경에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남부지방까지도 요새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2모작 비슷하게 말이지요, 우리는 두번씩 할 수가 있어요. 벼를 빨리 끝내고 나면 다른 농사를 또 하거든요, 밭농사를.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농민들의 농가소득이 상당히 향상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벼도 빨리 심어요.

북(박광원) : 모내기 하는 농민들 모습을 보니까 가슴에 감아드는데 뭐인가, 농민들에게 핵 위협이 없는 평화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潘基文) : 우리 요즘은 농민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할때 여러가지 일손돕기 같은 것도 하고 공무원들도 가끔 나가서 농민들 손을 돕고 이런 좋은 풍경들이 있지요.

북(박광원) : 반부위원장은 농사, 모내기를 해봤겠습니까.

남(潘基文) : 저는 원래 농촌에서 태어 났어요. 충북에서 그래서 학교 다닐때, 모내기, 벼베기, 보리베기, 퇴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② 제6차 접촉 : 1992. 10. 14(수),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남(鄭泰翼) : 안녕하십니까?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북(박광원) : 예, 명절 잘 지냈습니다.

남(鄭泰翼) : 요새 천고마비의 계절이 돼가지고서 날씨도 좋고 특히 맑은 날씨와 마찬가지로 우리 핵문제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북(박광원) : 날씨, 지금 우리나라 온난기인데 온난기가 아마 20년 주기인가 70년 대 말부터 온난기이니까, 지금 풍년보다는 날이 날씨가 더웠어요.

북(김수길) : 날씨는 좋은데 자꾸 핵구름이 자꾸 몰려 오는거 같아요.

남(鄭泰翼) : 무슨 핵이, 핵구름이. 빨리 그러니까 해소해가지고 귀측에 지금 먹구름이 많은 거 같아요. 아주 시커먼 것 같은데 그거 빨리 해소를 합시다.

북(김수길) : 여러가지로 핵구름을 몰아 오겠다고 지금 귀측에서 그런 거 보니까.

남(李昇九) : 너무 오래 끌은 거 같은데 빨리.

남(鄭泰翼) : 지난 위원접촉에서 우리 사찰규정토의 이외의 문제가 자꾸 제기돼가지고서 한시간 정도 허비를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위원접촉에서는 바로 규정토의에 들어가 가지고서 우리 생산적인 토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박광원) : 그 사찰규정이라는 게 비핵화를 위한 사찰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잘 하자는 입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찰규정과 다 연관된 문제는 다 빨리 하고 넘어 가야 됩니다.

③ 제7차 접촉 : 1992. 10. 29(목),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남(鄭泰翼) : 요새 날씨가 어떻습니까? 우리 남측에서는 한창 단풍이 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눈이라도 왔습니까?

북(박광원) : 자연은 남쪽에서부터 온풍이 불어 오는데, 요새 남쪽에 거꾸로 냉풍이 불어오는 것 같아.

남(鄭泰翼) : 찬바람이 원래 북한에서부터 발생이 돼가지고서 자꾸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단풍이 잘 들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아주 평화스럽습니다.

3. 통일의 당위성

3. 통일의 당위성

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1) 본 회 담

〈 환 담 자 〉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宋 漢 虎 (국토통일원 차관)	〈 단 장 〉 백 남 준 (정무원 참사)

(가) 제5차 회담 : 1989. 12. 20(수), 판문점 「평화의 집」

남 :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식으로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를 좀 저주했어요.

사실상 우리 회담이 별로 진전을 거두지 못한다든가 혹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비판을 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걱정도 합니다.

북 : 걱정을 한다니 마침 다행입니다. 실무절차 남은게 얼마 없으니까 오늘은 꼭타결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니까 오늘 회담 잘못 했다간 이제 벌을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남 : 앞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말로 떠들고 외칠 게 아니라 이제 실천을 통해서 정말 알차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오늘 아주 타결합시다. 오늘 다 마무리져가지고 아주 내년에는 총리들의 만남이 실현되도록 이렇게 한번 공동의 노력을 합시다.

북(최우진) : 오늘 해는 이틀 있으면 이제 제일 짧아지는데 동지니까, 낮시간이

9시간 25분, 평양시간이 9시간 25분이니까 제일 짧지요. 그 다음에 하지하고 동지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는가 하면 5시간 30분 차이가 난다 말이죠. 평양시간으로. 그러니까 이틀 있으면 해가 제일 짧습니다. 낮시간이 5시간 30분 짧으니까, 다그쳐서...

남 : 전적으로 동감이고.

(나) 제7차 회담 : 1990. 7. 3(화), 판문점 「평화의집」

남 : 이제 예멘 이야기하고 독일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상 5개월동안 회담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예멘은 20여년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실현해 놓았고, 또 동·서독은 이미 경제통합, 사회통합 어제 그저께 다 이루고 금년내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제대로 진전도 못하고 정체상태에 빠져 있어서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는 불명예를 좀 씻어버려야 되지 않겠나.

북 : 동·서독에서 화폐통합했다 그러는데 자주적으로 하면 됩니다.

예멘이 통합된 것도, 그들이 갈라지고 싶어서 갈라졌다가 또 모두 모이자 그러니까 통일하는 거고.

또 동·서독에서 화폐통합했다 그러는데 뒷때문에 쩌쩌하게 화폐통합하겠는가, 전면개방·자유래왕해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해야지. (쌍방대표 웃음)

남 : 70년대 초에 적십자회담이라든가 조철위 회의 있을 때 서독에 내독관계성이란 게 있어요, 잘아시겠지만. 거기에 동·서독 대화관계를 취급하는 정치문제를 다루는 「슈바움」이라는 국장이 와 있었어요. 와 가지고서 남북의 대표단들이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며 회담하는 걸 보고 아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사람이. 그래가지고 독일보다는 우리 남북이 먼저 통일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제 18년동안 후에 오늘날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던 말예요.

우리는 제자리 걸음 걷고있고.

북 : 구태의연하게.

남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더 극복을 해가지고 빨리 고위급회담 열리면은 아마 우리도 좀 늦었지마는 거래가 기대하는 통일문제라든가 남북관계에 있어 상당한 성과와 열매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 : 이게 지금 18년 했는데 대화의 성과가 없단 말요. 하다가 끊어지고 하다가 끊어지고, 이거 민족에게도 볼 면목이 없어요.

남 : 우리 백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잘 될 것 같아요.

(다) 제8차 회담 : 1990. 7. 26(목), 판문점 「통일각」

남 :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라든가 혹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지난번 7차회담할때 백선생하고 나하고 다 끝나치고 현관을 나오면서, 손을 마주잡고 나오는 것이 우리 신문에 사진이 실려가지고 그걸 본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를 걸어 왔어요.

그래 가지고 『보기 좋더라』하고 흥분해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그렇게 좀 부드럽고 다정한 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심정이라든가 기대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 : 며칠후면 8. 15 해방 45돌을 맞이하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참 삼천리강산이 말 그대로 일제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고 조국광복을 위한 기쁨과 환희로 해서 정말 부글부글 끓었던 말이에요.

동네방네에서 남녀노소들이 떨쳐나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또 얼싸안고 등실등실 춤을 추고, 그런가하면 징병이라든지 징용이라든지 보국대에 끌려간 사람들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들 그들을 고대해서 동구길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고대하다가 재회의 기쁨을 나눈 사람들은 부둥켜안고 불을 비비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불길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하늘이 무심타고 땅을 치는 통곡을 하고 또 그때 사람들의 결의와 희망도 컸단 말이죠.

다시는 남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식민지노예가 되지 않고 자생독립,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그런 희망으로 가슴 불태웠는데, 그게 엇그제 같은데, 그러나 본의아니게 그런 기쁨과 희망들은 다른 의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또 분열의 아픔으로 바뀌었던 말이에요.

그래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됐는데 그동안 8.15당시의 기성세대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고 또 지금 이시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지금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방동이들은 어쨌든 반백이 가까와 오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의연히 이렇게 남과 북으로 흩어져서 반목·질시하고 불신과 대결속에서 남아진 남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통한 일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는 어떻게 하든지 통일의 열쇠가 되게 해야 되겠다. 특히 올해는 90년대의 첫해인데 금년에 통일의 돌파구를 여는 해로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대단히 간절합니다.

남 : 예, 좋은 말씀이었어요. 불신과 대결을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혹은 세계 사람들이 널리 부르고 애창되었던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다른 가사는 말씀드릴 수 없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서로 사랑하는 한마음이 되자. 손잡고, 손잡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갈등과 대결을 다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관계로 손잡고서 모든 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7천만겨레가 지난날의 불신과 대결을 다 청산하고 화해와 사랑으로써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번영되고 발전되는 통일된 우리 조국을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 :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북남고위급회담이 마련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회담 전도예요. 전도를 흐리게 하는 이런 일이 없게 해서 회담이 잘 되게 해야 되겠다.

이번에 며칠후에 「8. 15범민족대회」가 열리는 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걸 부당

하게 간섭을 한다든지 방해를 해서 이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가를 못하고 대회진행에 복잡성이 조성되고 이렇게 되면 고위급회담을 비롯해서 남북대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남 : 우리 총리들이 이제 45년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고가면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아주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뿐만아니라 내외의 여러가지 여건을 볼때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남북간의 중요한 현안문제라든가 민족의 장래문제를 협의·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진전과 성과가 있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단장이 좀 우려하시는데 아마 그건 기우라고 생각하고 좋은 열매, 풍부한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대화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2) 실무대표접촉

(가) 제2차 접촉 : 1990. 7. 12(목),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남(金保鉉) : 오늘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서 우리 두분 최선생 기쁜 보고를 안고 평양으로 가셔야 되지요. (웃음)

북(최우진) : 아. 물론이지요. 그렇게 하고 통일이 되긴 빨리 되어야 되겠어요. 요전에도 우리 만났을 때 이야기 했지만 합의서 문안 정리한 걸 가만히 보니까, 요전 시간 많이 걸리게 결국 표현들, 무슨 「표식」·「표지」 이러한 것들 말이야.

통일되면 그런 것 다 해결되겠는데. 「단장」·「수석대표」, 「장관」·「부장」 이런 표현들 빨리 통일해 가지고, 언어 분야에서도 통일을 가져오고 이러면 되겠는데, 전번 3시간 걸렸는데 그런 문제가지고 어떻하겠느냐는데 오늘은 그런 문제 논의할 거 없으니까, 오늘 타결해 버리고 26일날 접촉 또 해야지요.

남(辛成梧) : 얼마전에 연변에서 그런 문제 가지고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술회의가 있어 가지고 이게 자꾸 말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또 해외동포들이 쓰는 언어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이걸 통일해야 되겠다는 학술회의가 한번 있었다고 그러합니다. 좋은거 같습니다.

북(최우진) : 그럼 언어를 통일을 시켜야지, 우리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는데, 우리 문화라는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어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서로 달라지지 않게끔 통일시켜 나가는데 중요합니다.

나. 남북고위급회담

(1) 본 회 담

〈 환 담 자 〉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단 장〉
姜 英 勳(국무총리, 1차~3차) 鄭 元 植(국무총리, 4차~8차)	연 형 목(정무원 총리, 1차~8차)

(가) 제1차 회담 1일회의 : 1990. 9. 5(수),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셀라볼룸」

남 : 우리가 이번에 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높은 급의 이런 회담을 수행하는데

남 : 우리가 합의점을 발견해 가지고 한발자국 한발자국 이렇게 나가야죠.

북 : 온 민족이 회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대단히 높고요. 그래서 이거를 책임적으로 좀 잘 해 나갑시다.

어제 우리가 판문점에서 여기 서울에 올 때 보도에 술한 사람들이 서 있는데 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환영해서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 일부 군중들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고요.

남 : 얼마나 온 국민이 이렇게 회담이 성공되기를 지금 축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하여간 40년만에, 45년만에 이렇게 총리회담이 됐다는데 그 자체가 참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도 세계각국의 주요 신문들 논조를 보니까, 이 자체가 상당히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북 : 많은 사람들이, 온 민족이 지금 고위급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이 기대에 우리가 어긋나지 말고 좀 잘 해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고위급회담이라는 큰 배에 앉은 두 사공이나 같습니다.

남 : 이제는 한 배에 탔으니깐 우리가 꿈쩍 못하게 됐어요. 잘 방향을 잡아 가야지.

북 : 그래서 한 배에 탔는데 한 사공이 왼쪽으로 가자 하고 한 사공은 오른쪽으로 가자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올라 간다』고요.

남 : 그래서 우리가 착실히, 천천히 단계적으로 갈려고 하지 않고 막 덤비면 배가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 : 그래서 선생하고 마음을 합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제3차 회담 1일회의 : 1990. 12. 12(수), 서울 신라호텔 「다이네스티홀」

북 : 요즘 음악인들도 잘하고 체육인들도 대단히 잘하고 그 사람들도 유일팀 이름 달고 나온거고. 지난번에 경기하는 거 보니까 가슴팍에다 달고 나오는 그 표식도 다 없애고, 또 체육인 이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라는 감투를 쓰지않고 만나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데 언제나 말썽이 많은게 「이데올로기」란 말이야. 이제 우리가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급에서 만난 사람들 보게 되면 만나서 제까닥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러니까 수천년 역사의 한민족으로서 사상과 제도는 달라도 합쳐 살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남 : 그거야 물론이죠. 이번에도 전통음악제인가 여기에 온 남북음악인들이 전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거 여러번 부르고 그랬다 그래요.

북 :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어요. 회담 잘 해 가지고, 가만히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더 중역을 맡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감이 난단 말입니다.

남 : 글썸, 그래서 안되죠. (웃음)

북 : 그 사람들은 노래 한마디만 하고도 박수갈채를 받는데 우리는 사실 그보다 더 좋은일 하는데, 지금 박수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해결하자는 문제만 되면 아마 7천만겨레의 박수를 받을 것 같아요.

남 : 뭐 그래도 연총리 어제 오시는데 사방에서 박수들 하고 있던데. (웃음)

북 : 잘 되겠죠. 어떻게 하나 회담성사 잘 시킵시다.

남 : 북쪽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지는 않은 모양인데. 비슷비슷한 모양이에요

북 : 같더구만요. 곡도 같고.

북(안병수) : 2절 가사에 「자주」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소원은 자주」라는 게 2절 가사에 있는데 그 다음에는 다 같습니다.

북 : 그 노래만 시작되면 다 합창이에요.

북(최우진) : 립수경학생이 평양에 왔을때 그 노래가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립수경학생이 평양에 왔을때 많이 보급된 거 보면 통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됩니다.

남 : 예, 그걸 다 우리가 양측이 합의를 하고 만든 틀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학생도 참 안됐습니다만 법을 지키지 않고서 가니까 저렇게 법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어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북 : 이번 회담이나 끝나면 무슨 마련이 있겠지.

(다) 제4차 회담 2일회의 : 1991. 10. 24(목), 평양 「인민문화궁전」

남 : 김선영씨는 제가 서울에서 대학생 시절에, 1947년입니다만, 그때 김선영씨 하고 황철이라는 배우가 주역을 하는 「바람부는 계절」이라는 연극을 하나 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가 바로 어제 거기서 촬영을 하고 있더군요. 그 때 연극을 잘 했습니다. 지금 인민배우라고 하더군요. 이젠 할머니가 되셨어요.

북 : 아마 77세인데, 집에서 휴식하면서 이 배우를 등장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는 초청해 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총장이 말한거에 의하면.

남 : 특히 노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북 : 그래요. 필요하지요.

어제 그 부녀자 인민배우 문예봉이 선생님한테 어때요? 절절하게 맞으면서 자기 소감을 말합니까?

선생이 종래 대답 못 했어요.

남 : 저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연총리에 대한 얘기도 되겠습니다.

우리 둘이 다 함께 들어야 할 그런 얘가지요.

북 : 나도 이번에 뉴욕 회담에 갔다가 뉴욕에 있는 교포들 만났는데, 그 사람들 질문한거 나도 대답 하나 못 하고 온 것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조선이 통일이 안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네 생각하건데는 북남 당국자들만 모여서는 잘 안될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동포, 캐나다에 있는 동포, 중국·소련에 있는 해외동포 다같이 모여서 토의하게 되면 좋은 의견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대답 못 했어요.

나도 그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대답 못 주고 왔어요.

남 : 그러나 책임있는 당국자간에 이런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물꼬를 터야겠지요.

(라) 제7차 회담 1일회의 : 1992. 5. 6(수), 서울 신라호텔 「다이네스티홀」

북 : 정총리선생을 만난지 두달, 두달 반이 되는가?

남 : 두달 반 만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꼭 추울때 이럴때만 만나는 때가 많았는데, 이제 봄에 만나니까 또 좋네요.

북 :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압니까?

그건 그 「팀」(팀스피리트)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남 : 남산에 신록이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요사이 그 신록이 아주 온 산을 다 메우다시피 할 즈음에, 회담도 새싹이 또 돋아나올 때가 됐으니까.

북 : 내가 이번에 서울에 네번째 길인데, 이번에 올때는 좀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번째까지 올때는 북남합의서 채택에 몰두했지만 이번에는 발효시킨 북남합의서를 실천에 옮기는 첫 회담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가지고 왔어요.

남 : 지금 우리도 기대가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실행한다, 이러한다는 증거를 국민들에게.

더이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괜히 합의만 해놓고 왔다갔다만 하느냐? 그런식의
여론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북 : 그래서 그 이후에 북남 분과위원회의 결과를 놓고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
려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회담을 좀 잘 진척시켜 봅
시다.

남 : 서로 좀 잘 해보십시오.

(2) UN가입 관련 실무대표접촉

〈 환 답 자 〉

우 리 측	북 측
〈 대 표 〉 林 東 源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 대 표 〉 최 우 진 (외교부 순회대사)

(가) 제1차 접촉 : 1990. 9. 18(화),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남 : 어제 우리 서울의 신문들 보니까 북경에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그것은 뭐라
그릅니까? 「아시안게임」이라고 그릅니까?

북 : 「11차 아세아 경기대회」.

남 : 「싸이클」 선수들이 감독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환히 웃으면서 찍은 사진
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북경에서 보내온 뉴스인데, 남북
선수들이, 북쪽 선수들은 아주 아름다운 여성선수들이고 이쪽엔 남성선수들인데
아주 환히 웃으면서 즐거운 환담들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더군요.

그러니까 남남북녀인데 남쪽의 남자 어떻게 잘 생겼느냐 뭐 이러면서, 자기는
장가 안 갔는데 하면서 아주 화기에애하게 얘기를 하고, 연습도 같이 하고, 식사
도 같이, 앞으로 응원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예요.

북 : 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금 이제는 고위급회담도 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비록 우
리가 「빼이징」에서 하는 경기에 유일팀으로, 단일팀으로 가지는 못했어도, 원래
그게 성사되면 좋죠. 그래서 가지는 못했어도 응원이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되
게 되면 벌써 응원을 북과 남이 같이 하게 되면 응원분야에서는 통일된 걸로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하나로 통일되는 방향에서 그렇게 나가면 아주 좋고, 그래서 아마 공동응원문제가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 :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우선 둘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둘 사이에 잘 지내야죠.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있는 것이 하나 밖에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에요.

그래서 서로 잘 지내도록 그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우리 두 정부 사이에서도 그걸 본받아 가지고 교류·협력하고 화해하고 잘 지내노라면 통일이 아마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북 : 지금 임선생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분열된 나라들이 둘로 있던게 다 하나로 되는 추세 아닙니까?

남 : 옳지요, 그럼.

북 :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분단 45년, 이거는 너무 한겁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로 되는 걸로.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거 응원하는 것도 체육분야에서도 하나, 우리도 지금 대외관계분야에서 북무를 하는데 대외관계분야에서도 가능한 분야에서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 북남관계에서도 하나로 되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우리 민족의 슬기를 더 떨칠 수도 있고 아주 잘될 것 같은데.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오늘 우리의 첫 만남이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나는 임선생하고는 좀 구면이고 서울에 나갔을 때에도 서로 인사소통이 됐지마는 고향도 *비드름하고, 나이도 같고 또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가서 대사를 하고. 이렇게 같이 마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난 남측에서 어느 대표가 나오시겠는가, 이거 임동원선생이

*비듬하다(비스름하다) : 비슷하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남 : 저도 우리 최우진선생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최선생 얘기하신 대로 빨리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될려면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가 되는 과정을 잘 밟아나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만 떠들어대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합쳐 나가면 될거예요.

북 : 그럼. 동상이몽하면 안되지. (웃음)

남 : 그럼. (웃음)

남(林東源) : 그렇지.

그동안 아주 소중하게 잘 가꾸워 왔으니까 오늘 열매를 따시다, 그래. (웃음)

남(李東馥) : 그 요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올림픽축구 예선이 있었는데 우리가 중국을 3:0으로 이겼어요. 그랬더니 북의 축구위원회 간부가 거기가 계십디다. 그래서 사실은 북에서는 중국에게 골을 도둑 맞았는데 남쪽에서 찾아줘서 아주 굉장히 기쁘다고 그렇게 축하를 해 줍디다.

북(최우진) : 북과 남이, 서로, 서로 그렇게 지원하는 관계에 있으면 좋은거야.

(3)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가) 제3차 접촉 : 1992. 2. 7(금), 판문점 「평화의 집」

북 : (김영철) : 옛날에 홍석모선생이 「동국세시기」에서 그 음력설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그 글에서 한가지 참 잘 쓴 글이 있습니다, 무슨 글이고 하니까 음력설을 계기로 해서는 첫째는 집 안팎의 먼지를 다 털어 버린다는 것. 둘째는 마을 안팎의 오물을 청결히 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모든 사람, 늙은이, 젊은이들, 아이들 머리속에 있는 낡은 걸 싹 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해 출발도 좋고, 그해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임동원선생님도 그렇고, 동복선생의 얼굴이 상당히 밝은 것 같은데 모든 것 털어버리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남(李東馥) : 둘 다 송구영신(送舊迎新)했지. 혹시 송신영구(送新迎舊)해서 온 것 아니에요? (쌍방웃음)

북(김영철) : 그래서 오늘 우리 틀림없이 결실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쌍방웃음)

북(최우진) : 그렇게 하고, 우리 사람이라는게, 임선생 나와같이 지금 늙어 가니까 회고해 보면 어느때가 제일 보람있는가 하는 문제, 회고해 보면 뭐가, 우선 자기가 노력을 하다가 결실을 가져 올때 그때 만치 보람을 느낄 때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옛날에 어렸을때 농촌에 살았는데, 직접 도마도를 키워가지고 물을 주고 뭐해서 꽃이 피고 도마도가 달린다 말이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슬이 달린 것, 그것을 딱 따서, 빨간것 따서먹는 재미라는게 그때에 자기가 도마도를 키운 보람이 있잖아요.

남(林東源) : 옳지.

북(최우진) :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것 사다줘도 그런 진미를 모르고, 자기가 키워가지고 자기가 맛을 보는 그 맛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늘 대화라는게 상당히 보람있는 대화가 또 되겠구나.

다. 남북정치분과위원회 회의

(1)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원장〉 李 東 馥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위원장〉 백 남 준 (정무원 참사)

(가) 제2차 회의 : 1992. 3. 27(금), 판문점 「통일각」

북 : 양춘가절인데 좋은 시기에 지금 2차회의가 열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쌍방이 잘 협력해서 이미 심어놓은 화해의 씨앗을 잘 키워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풍만한 열매를 맺게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남 : 작년 우리가 12월 31일날 여기서 장장 7시간 40분간을 회의 해서 비핵공동선언을 탄생시켰는데, 오늘도 그렇게 해서라도 옥동자를 낳아보죠, 어떻습니까?

북 : 오늘 좋은 합의서안들만 내놓으쇼, 그러면 돼요. 우리 지금 정치분과위원회가 맨 선참으로 출발했는데 다른 분과위원회에 좀 뒤지는 감이 있어요.

그 협력·교류 같은데서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벌써 위원접촉을 탄생시켜가지고 사업을 아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치가 뒤진다, 화해가 늑장을 부린다, 그런 비난도 받을 것 같다 말이야.

남 : 뒤질리아 있겠어요? 그런데 분과위원회 회의들을 한번 빙돌아 가면서 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분과위원회별로 특성이 살아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정치분과위원회는 정치분과위원회로서 특성이 있고, 군사분과위원회는 군사분과위원회로서

특성이 있고, 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교류·협력분과위원회대로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이 아주 생동하는 것 처럼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에 알맞게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들이 기능을 하면 틀림 없이 삼태자가 문제입니까? 한 칠태자쯤 우리가 생산을 할 것 같아요.

(나) 제5차 회의 : 1992. 6. 9(화), 판문점 「평화의집」

북 : 요즘 어떻습니까, 그쪽에서는 을사조약때문에 굉장히 학계에서랑 민간에서랑 많이 얘기되지요?

남 : 많이 되지요. 을사조약도 그렇고 여러가지 지역안에 여러가지 문제로 우리가 여러가지 연구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네요.

북 : 을사조약 같은거 보면 일제가 날조하고 위조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 겨레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사회주의가 아주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해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격분스러운 것 뭐인가, 그러니까 1905년부터 일본의 조선 침략사를 보면 41년이거든요. 반세기나 조선사람들한테 몹쓸짓을 다했는데, 그런데 지금 똑똑한 사죄도, 반성도 보이지 않고 야망은 계속 꿈꾸고, 그러니까 상당히 경각성을 높여야 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민족적인, 민족자주적인 입장에서 똑똑히 처리해야 될거 같아요.

남 : 그 을사조약 그러니까 옥새가 날인이 안된 상태에서 그거가지고 말하자면 위조를 해서 한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에 좀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학술회의 같은거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텐데.

북 : 예, 우리는 큰 집단가지고 연구를 해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자료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남 : 금년 8. 15같은 때를 계기로 해서 남북에.

북 : 그런데 요즘은 연구하는 단계를 초월해서 공동대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똑똑히 이번엔 계산을 하고 똑똑히 처리해야 되겠다고.

남 : 그 이전에 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교환할 것이 있으면 교환하고 하는 기회를 갖는게 좋겠지.

북 : 합의서가 이행단계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겠죠.

(다) 제8차 회의 : 1992. 7. 2(목), 판문점 「통일각」

북 : 오늘 회의는 7. 4공동성명 발표 20돌을 이틀 앞두고 진행되는 회의가 되다 보니 의미가 깊습니다. 이동북위원장도 기억하겠지만 그때 평양과 서울에서 7. 4공동성명이 같은 시각에 발표될 때 그때 아주 걱정스런 순간을 잊을 수 없죠.

그쪽에서 우리가 듣건대는 이민을 간다고 짐보파리 싸났던 사람들이 7. 4공동성명이 발표되니까 아예 금방 아마 통일이 되겠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다시 놀러 왔다는, 놀러 왔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 :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북 : 아마 그때는 삼천리 강토가 정말 환희와 걱정으로 들끓었고 온 겨레가 기쁨과 통일에 대한 기대로 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쪽에서는 이번 20돌을 어떻게 지냅니까?

남 : 7. 4남북공동성명이 발표한 날을 그날대로 여러가지 기억하는 일들을 하겠죠.

북 : 우리는 7. 4공동성명 발표 20돌을 아주 크게 씁니다. 기념보고대회를 가지고 기념강연회도 하고 그리고 과학토론회도 가지고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해요.

그런데 이날을 맞으면서 나는 한가지 생각되는게 있단 말이에요.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돼서, 발효된 후 지금까지 사태를 보면.

북남합의서가 채택·발효된 이후의 사태를 이렇게 쭉 보면 7. 4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때와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남 :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 : 이제는 북남합의서가 발효돼서 벌써 5개월이 돼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거의 첫 출발선에 머물러 있고 전망도 그다지 밝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래 우리 쌍방이.

남 :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하는 말씀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런 말씀 조금 잘못하시면 금방 그게 엉뚱한 다른 뜻이 되고 이상한…….

북 : 다 생각이 있고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 쌍방이 7. 4공동성명 휴지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겨레에게 이런 좌절감, 실망감을 줬던 지난날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쌍방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채택·발효시킨 북남합의서를, 이걸 이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이런 공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보면 우리는 북남합의서 이행하는데서 쌍방대표들의 책임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 : 백위원장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데니까, 그렇게 하기위해서 한눈팔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일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책임을 다합시다. 우리 책임을 다하면 지금 백위원장이 걱정하는 일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기본 합의를 이행하는 일도 차질없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회의부터는 우리 욕심갈아서는 정말 밤잠을 자지 말고라도.

라. 남북군사분과위원회 회의

(1)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원장〉 朴 庸 玉 (국방부 군비통제관)	〈위원장〉 김 영 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가) 제1차 회의 : 1992. 3. 13(금), 판문점 「통일각」

북 : 대결 가운데서 제일 참여한 대결이 무장집단 호상간의 대결입니다. 인간들간의 대결 가운데서 제일, 말하자면 생사를 가름하는 대결이 총을 가진 군인들 사이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 어쨌든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입니다.

남 : 그래요, 정말 지금 김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진짜 우리 군인집단끼리 만나는 거는 문제 자체가 아주 날카롭고 또 첨예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게 몇십년 만입니까? 공식으로 이렇게 군인들이 마주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북 :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마당을 지켜보는 온 민족의 시각이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크고 관심도 크고 사실 이 통일의 광장으로 가는 길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두개의 큰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치적 대결이라는 장애와, 다른 하나는 군사적 대결이라는 장애.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온 민족이 통일에의 광장에 밀착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포도 갖고 있고 또 양측이 다 자기 독특한 전투기술을 이제는 갖고 있는데, 그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그 수단을 써 봅시다, 한번.

남 : 우리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쪽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귀측의 인민들도

오늘의 이 회담을 매우 관심있게 지켜볼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 좀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북 : 옛날에 남이 장군이 시 한수를 남겼어요. 『남아 이십에 미평국하면 후세 수칭 대장부라』 뜻인즉은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무슨 사내겠는가 하는 뜻인데 내 보니까, 이 북남 쌍방의 군사분과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다 40대, 50을 평균나으로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옛사람들은 아, 스무살나이에 나라를 다 평정하지 못하면 자기를 사나이라고 부르는 것도 주저했는데 우리 한번 민족앞에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 잘해 봅시다. 다른 분과위원회보다 아주 보란듯이 맵시있게 회담해 봅시다.

남 : 지금 김위원장 그 얘기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남이 장군이 말하는 그 20대는 아니지만 40대 또는 50대 이렇게 됐겠지만 그대신 우리는 더 성숙하게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자질을 우리 쌍방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군사분과위원회답게 문제를 한번 하나씩 하나씩 논의해 보면 좋은 결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크게 기대하고 우리도 지금 여기왔고, 귀측도 여기에 오셨을 테니까 한번 좋은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 제4차 회의 : 1992. 5. 25(월), 판문점 「평화의집」

북 : 시간은 확실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빠르다, 혹은 세월이 빠르다』하는 말은 이 시간이 가는 거, 수수방관하는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도 시간을 아까워 하고 귀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옛날에 시간이 아깝다는 말을, 옛날 고구려 을지문덕장군은 『시간이라는게 귀하지만 또 제일 잃기 쉬운게 시간이다.』

한즉 시간하곤 절대 룡담을 하지 말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구라파에서 희랍사람들은 제일 잃기 쉬운게 시간인 것만큼,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 : 좋은 말씀입니다.

이 시간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말이 있는데 『시간이 귀하다』 예를 들어서 본래 옛날 속담에도 한번 놓치면 우리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 몇개 있어요.

우선 『흘러간 세월도 한번 지나가면 되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말도 있고, 『한번 뺏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또 『한번 쏜 화살은 다시 못 돌아오고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시간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남북관계에서도 좋은 시간을 맞이 했고, 기회를 포착했으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이 관계가 잘 진전돼서 정말로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대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북 :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적인 그런 개념을 놓고 볼 때 오늘 25일이니까 이 달이 이제 7일 남았습니다.

다음 달이 30일 입니다. 7월, 8월이 서른 하루니까 우리가 약속된 일이 9월 1일이니까 꼭 100날이 남았어요.

남 : 그렇죠?

북 :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만들 날이 꼭 100날 남았습니다. 이 100날 동안에 우리 민족앞에 약속한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완성해야 하는 하나의 목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크게 놓고 보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태산이 높아도 하늘아래 뵈」이라고 오를 결심만 하면.

남 : 못 오를리 없지.

북 : 올라 갈 길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나 주욱 놓고 보면 사람들이 바라는 일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만 바라면 그 일이 실패가 없다고 그러잖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야 할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온 민족이 바라고, 온 겨레가 바라는 부속합의서인 까닭에 아마 우리 쌍방 위원들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치고, 진지하게 무릎을 맞대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목표도 쉽게 지

정된 100일 동안에 점령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회답에 상당한 정도로, 말하자면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 : 100일 안에 나는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모인거고 우리가 다 알지만 본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창업은 쉬워도 수성이 어렵다』. 우리가 이미 잘 지금 창업은 해냈는데, 이것을 좀 열심히, 이젠 수성을 해야 할텐데, 시작을 잘 해냈으니까 부속합의서 문제도 우리가 시작을 잘 했습니다. 9월 1일까지 채택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니까, 아마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만들어 봅시다. 난 또 잘 되리라고 봅니다.

(다) 제8차 회의 : 1992. 9. 5(토), 판문점 「통일각」

남 : 지난 일곱번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부속합의서 문제 놓고, 전반적인 남북군사문제 놓고 서로 입장도 충분히 확인을 했고 또 그동안의 과정이 결코 헛된 과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서로 입장도 확인하고, 또 조정도 하고, 이제 여덟번째쯤 되니까 이제는 좀 타결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왔습니다.

또 오다 보니까 이제는 곡식도 이제 결실을 거둘 때가 됐고, 우리도 그동안에 남측이나 북측이나 많은 땀을 흘렸으니까 한번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도 한번 결실을 좀 맺어 봅시다.

북 : 동감입니다.

약속한 9월 1일이 지켜지지 못한채 이렇게 마주 앉았으니 어떤 의미에선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했을 때, 다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처럼 죄스럽고 부끄러운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을 느낀다면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아무래도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하지 못한 부속합의서를 만들겠다는 실천을 민족 앞에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실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열매를 못맺는 과일나무 같다고 했어요.
빈말하는 자는 언제나 꿀을 못 만드는 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없을 때는, 실천이 없을 때는 마치도 알을 못낳는 암탉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일 잘 치르지 못하는 장수들이 늘 칼은 뽑았다 칼집에 자주 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장수들 격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북남쌍방 군사위원들은 큰 임무를 지니고 있는 이 땅의 남아들인데 그런 장수격이 돼야 되겠습니까?

남 : 내 김위원장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실무적인 타결기한을 넘긴거는 사실인데 나는 그 동안의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거다 라는 하나의 그 수고와 또 성과를 기대하는데 대해서 우리 김위원장 상당히 그 죄책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거 같애요?

우리가 그 상당히 지금 땀을 많이 흘렸는데 너무 우리 그 죄책감에서 묶여 있지 말고, 오늘은 고위급회담도 이제 또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우리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 하면 잘 될 것도 같습니다.

북 : 예, 자기를 위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위원장접촉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p>〈위원장〉 朴 庸 玉 (국방부 군비통제관)</p>	<p>〈위원장〉 김 영 철 (인민무력부 부국장)</p>

(가) 제1차 접촉 : 1992. 7. 23(목), 판문점 「통일각」

북 : 우리 「통일각」이 우리 고위급회담 테두리내에서 회담하는 데서는 상당한 정도로 인상 깊은 집입니다.

북남사이에 거의 모든 합의는 이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핵화공동선언도 우리 「통일각」, 그리고 내외인민들이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팀스피리트훈련 중지할데 대한 두 사이의 공동보도도 여기, 그 다음 그 각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어쨌든 거의 모든 북남합의는 남북사이에 「통일각」, 「평화의 집」서 오고가곤 했는데 거의 다 이 집에서 말하자면 결실이 이루어졌습니다.

남 : 그럼 저 오늘 우리가 개별 위원장접촉 갖는데, 뭐 하나 나오겠는데.

북 :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좀 오늘 회담에서 좀 잘 했으면 합니다.

남 : 그렇습니다. 오늘 좀 위원장끼리 단독으로 만났으니까, 우리 부속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심층깊게 토의를 해가지고.

그래야 뭐 위원접촉도 우리가 해서 문안조정도 하고 9월 1일까지 어쨌든 하기로 우리가 양쪽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사명을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3) 위원접촉

(가) 제2차 접촉 : 1992. 8. 3(월),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북(박림수) : 옛말에 8월은 「건들 8월」이라 그랬는데, 올해의 8월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가한 8월인게 아니라, 바쁜 8월인 것 같습니다.

남(李榮浩) : 항상 바쁘지요. 뭐.

북(박림수) : 하기가 온 민족이 기대하는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채택할 마무리 작업을 맡은 우리가 바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남(任台淳) : 예, 우리도 뭐 8월에 쉬지도 못하고 부속합의서 만들어야 되는 일이 이제.....

또 따지고 보면 이거 뭐 굉장히 막중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북(박림수) : 아, 그렇습죠. 아주 중요한 책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젊었을 적에는 실수가 많고, 늙어서는 후회가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중한 일을 맡아 가지고 조국이 통일이 된 다음에도 후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후회가 없게 아마 부속합의서를 빨리, 아마 잘 만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북(리길청) : 우리 박위원이 말했는데, 사람이라는게 죄를 지면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1945년도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했는데, 그 투하한 사람이 인류에게 끼친 범죄때문에 번민하고, 고심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정신병자가 되고, 마지막에 1987년도 8월 4일날엔가 자살했다구요.

그렇지만, 인류와 민족앞에 공훈을 세우고 공적을 세운 사람들은 력사와 더불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렇단 말입니다.

북(박림수) : 그래서 우린 아마 우리 리위원님이나 우리 임위원님은 우린 공적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죄짓는 사람이 돼서는 안되겠습죠?

그래 한번 잘 해봅시다.

남(任台淳) : 공적을 뭐 세우려고 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올림픽에서도 뭐 56년만에 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땀다는 낭보도 오고.

북(박림수) : 원래 우리 민족이야 재능이 있는 민족이지요.

남(任台淳) : 뭐든지 노력해서 안될 일 있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남과 북이 군복들을 입고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많이 발전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나 이거 또 사복을 입은 사람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회담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회의

(1)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원장〉 林 東 源 (통일원 차관)	〈위원장〉 김 정 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가) 제2차 회의 : 1992. 4. 18(토), 판문점 「통일각」

남 : 우리가 꼭 한달만에 만났죠, 오늘?

북 : 합의서대로 한달에 한번씩. (웃음)

남 : 너무 엄격히 지키는데. (웃음)

북 : 합의서 엄격히 지키는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분과가 모범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 : 다른 분과위원회들은 벌써 2차 회의를 갖고 내주에 3차 회의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동안 세번의 위원접촉을 갖고 사실 실질적인 내용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다른 분과위원회보다 많은 진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북 : 앞섰지요? 회의차수는 다섯번째가 아닙니까?

남 : 전부 합치면 그렇겠구만. (웃음)

북 : 그래 난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임선생을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180여개 나라에 5천개의 언어를 가진 2만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유일한 분단국가로 우리가 남아 있구나.

사실 우리 민족은 슬기로운 민족이 아닙니까? 경주에 있는 첨성대를 보아도 647년에 건설해서 우리 조상들이 기상관측을 했을 때 다른 나라는 엄두도 못

냈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금속활자를 1272년도에 만들어냈을 때 300년 지나서 독일 사람들이 겨우 만들어 냈는데, 이러한 슬기로운 민족의 혈통을 이은 우리들이 지금 유일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협력·교류분과위가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기 사명을 다해보고, 다른 분과위도 우리의 모범을 따라서 좀 통일대열에 성과를 남기도록 추동력을 주자,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남 : 옳습니다. 동감입니다. 조상들만 잘한 것이 아니라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거래들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북쪽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면에 있어서나 경제면에 있어서나 세계에서 최첨단에서 걸어나가고 있어요. 1등은 아니라 하더라도 3, 4등, 어떤 건 5, 6등, 10위권내에 다 들면서 우리 거래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어요. 우리 남북이 통일만 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힘쓰시다.

남 : 오늘 분과위가 대단히 중요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북 :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나왔겠지요?

남 : 우리 보따리 큰 것 가지고 나왔는데, 북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북 : 우리 보따리는 항상 큼니다.

남 : 기대해 봅시다.

(2) 위원접촉

(가) 제2차 접촉 : 1992. 4. 2(목),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북(손중철) : 협력·교류분과가 시작된 것이 3월 18일이지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구만. 자, 계절도 앞당기고, 진달래도 활짝 피고, 이런데 우리도 계절 앞당기는 것에 맞춰서 우리 회담도 빨리 앞당겨서 활짝 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宋榮大) : 동감입니다. 저희가 말이죠, 서울을 떠나가지고 판문점에 들어올 때 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공기가 참 신선하고 상쾌하다 그거예요.

어저께 우리 통계발표에 의하면 서울시내 자가용 승용차가 백만대를 돌파했어요.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공기가 좀 탁한데 임진강 넘어서 들어오면 아주 상쾌한 것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판문점을 비롯한 비무장지대를 하루속히 평화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여기를 교류·협력의 장으로 만들어서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류·협력분과위에서 조금 더 분발해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손중철) : 그래서 난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3월 18일에 시작해서 지금 거의 공개된 상태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담에서 「개구리작전」이런 말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쪽에서 하나 내놓으면 이쪽에서 다른 것 내놓고 덤병덤병 뛰며 나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경우를 가만히 놓고 보면 정지상태이면서 또 후퇴까지 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자칫하면 또 가재, 가재 아시죠? 가재! 가재는 나오다가 약간 자극 받으면 뒤로 쏠살같이 달아난다 말입니다. 「가재작전」을 협력·교류분과가 술어로 창조하지 않겠는지?(일동 웃음)

남(金仁浩) : 저는 반드시 손위윈 말씀하고 동감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진전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뜻에서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오늘은 저의 낙관적인 견해가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도록 우리로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바. 남북 핵관련 회담

(1) 「비핵화공동선언」채택을 위한 대표접촉

(가) 제3차 접촉 : 1991. 12. 31(화), 판문점 「통일각」

북(최우진) : 금년이 우리 대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주 뜻깊은 해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통일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인 이와같은 해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때 나는 지금 임동원선생이라든가 이동복선생이 아주 이와같은 역사적인 해로 되게 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를 한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손잡고 금년도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특히 북과 남 사이에 합의된 합의서를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잘 노력하게 되면 보다 큰 결실을 명년도에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남(林東源) :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엔 많은 약속을 했는데 명년에는 이 약속한 것들을 전부 발효시키고 또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남(李東馥) : 그동안 공로는 우리 최우진 대표하고, 김영철대표 두분이 더 크죠. 수고 많으셨어요.

북(김영철) : 무슨 그렇게 과찬의 말씀을. (웃음)

남(李東馥) : 그리고 뭐 30일날 하는 것보다 31일날 하는게 낫습니다. 이게 두고두고 기억에 남고, 30일날하면 31일날 한 것보다는 기억에 남는 서류로서는 좀 격이 떨어지죠.

북(최우진) : 그래서 이동복선생의 발기에 의해서 우리 대화가 한 그저 20년쯤 돼 오지 않습니까. 이제 31일날 대화하는거 역사를 하나 창조하는 것 같아요.

남(林東源) : 그렇죠.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날이고 이제 금년도 한 14시간 정도 밖에 안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은 참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루는 역사적인 해인것 같
아요.

우리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유엔에 함께 들어
가고, 그리고 「기본합의서」 채택할 것을 합의하고, 오늘 우리 잘하면 또 「비핵
화공동선언」채택하기로 합의하고 하면 이 해의 마지막날까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또 온 겨레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
니다.

남(李東馥) : 누가 서울에서 그런 농담합니다. 오늘은 판문점에서 오전에 끝내고
말고 오늘 자정까지 끌어서 제야의 종소리를 판문점에서 들으면서 새해 맞이하
고 돌아오라.

이런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동 웃음)

북(최우진) : 그런데 자기는 편안히 집에 있으면서. (일동 웃음)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 말듣지 말고, 우리는 오전 중에 다 끝내고 가벼운 마음
으로 돌아가서 설을 쇠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가) 제2차 접촉 : 1992. 2. 27(목), 판문점 「통일각」

북(최우진) : 온 만물이 다 소생해서 봄을 거쳐서 여름으로 해서 가을에 추수가 됐는데, 우리 지난해 주요한 씨앗을 다 심어서, 우리 전반적으로 회담가지고 놓고보면 이게 이제 금년 봄부터 움을 터 가지고서 그 새로운 결실을.

지난해에는 아주 역사적인 합의서, 커다란 열매를 맺은거지. 그 열매를 따 다시 심었던 말이지. 그게 금년에 봄에 돌아나 가지고 금년도에 가을쯤에 가게 되면 요란한 열매가 달릴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남(林東源) : 금년에 잘 가꾸어야지요. 비료도 제때 제때 잘 주고, 가꾸기도 다 잘 하고.

북(김영철) : 여러 분과위원회는 대화의 터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최우진) : 터밭에다 이래 품어온 씨를 잘 심어야 틀림없이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남(林東源) :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주 이제부터가 더 어려워요.

북(최우진) : 어려운 일을 타결하게 되면 그때 보람이 더 있습니다. 그 쉬운 것, 응당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보람이 더 그렇게 크게 못되고 어려운 것을 타결해 버렸을 때, 그 때 우리 공대사님과 같이, 같이 기쁨을 나눕시다.

남(孔魯明) : 보람을 찾기 위해서 자꾸만 어렵게 만들지 맙시다.

(나) 제6차 접촉 : 1992. 3. 10(화), 판문점 「통일각」

남(林東源) : 그런데 이번 접촉을 보니까, 남북고위급회담 역사상 몇가지의 기록을 세우는 것 같아요.

우선 여섯번째 한다는 것, 과거 여섯번 한 적이 없거든. 연거푸 이틀 회의 한 것도 처음이라.

그다음에 보니까 7시간 15분을 했잖아요. 점심 간단히 하기 위해서 쉰 것을 빼더라도 6시간 반 가까이 대화를 나눴어요.

작년 그믐날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한 회의 때 7시간 반 했지만 그때는 6번인가 쉬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5시간 정도 밖에 안했던 것같은데,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토의한 시간 수로 보면 이것도 기록이에요.

북(최우진) : 그래서 이 기록이 빛이 나게 돼야 한다고, 기록으로만 남아있고 빛이 안 나면 안되지.

남(林東源) : 이런 기록을 세우는데 우리 최대표께서 크게 기여 하셨어.

북(최우진) : 빛이 날때, 겨레들에게 기쁨을 줄 때, 그 기록이 인상에 남고, 역사에 기록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 기록은 다 헛 것이 되고 만다고.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가)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원장〉 孔 魚 明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위원장〉 최 우 진(외교부 순회대사)

① 제2차 회의 : 1992. 2. 27(목), 판문점 「통일각」

북 : 통일각에서 평화의 집으로 칩 넘어오면서 뭘 생각해 봤는가. 판문점엔 칩 이름을 단 것을 잘 달았어. 「통일각」, 「평화의 집」 이게 온 겨레의 염원을 반영해서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통일도 빨리 되어야 되겠고, 또 평화도 이룩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통일에 대한 개념은 명백한 것이고, 평화에 대한 건데.

우리가 하는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이 평화문제를 다루는데서도 기본문제 나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문제라는 것은 다른나라의 평화문제하고 좀 다르게 취급할 문제도 있겠다. 그게 뭐인가.

이 평화는 통일에 복종되어야 되겠고, 다른 하나는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핵전쟁위협을 가시게 하는건데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영원히 없애기 위한 평화를 해야되고. 이제 금방 통일각에서 자동차로 칩 넘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말입니다.

남 : 잘 됐구만. 이제 최대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되는거요.

북 : 타고났을 때부터 그런건데 뭐.

남 : 평화없이는 통일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우리가 상당한 건설적인 진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 : 공선생 좋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얼 생각했는가. 핵무기란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겨레들에게 이렇게 자꾸 여러가지 걱정을 끼치고 말이야 위협을 갖다주고 우리가 특히 공위원장 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대표접촉도 하고 또 이거 핵통제공동위원회도 하게 만들었는가. 핵무기 만든 사람이 상당히 여러가지로 생각키워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공선생 알아요?

남 :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핵무기가 잘못 쓰이면 우리 인류가 망하는데 이것이 쓰이지 않고 있을 때에는 이게 인류역사에서 2차대전이 끝나고 50년의 평화가 있는 것은 역사상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칼이라는 게 잘 쓰이면 유용하게 쓰이고, 잘못 쓰면 손벤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핵무기라는 것은 잘 처리가 되면 좋은 거고 잘못 처리되면 큰 일이죠.

북 : 공선생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면 핵무기를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지구상에 존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비스름 하구만

남 : 그거 하고는 별개 문제지.

북 : 잘 쓰는 것 못 쓰는 것은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잘 쓰는 것 못 쓰는 것이 제기된단 말이야.

남 : 아니 그전에 핵무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보유국들이 가지고있으니까.

북 : 원래 사람들이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도 존경하지만 나는 특히 자연과학자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인류를 멸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 그런 과학자는 내 두고 두고 저주한단 말이야. 그런 과학자가 없었다면 핵무기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 가지고 모여 앉지도 않아. 특히 우리 인민이 핵위협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겠는가 이런 생각도 안하고.

남 : 양면이 있는 것 같이 핵도 평화적으로 이용될 때는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소산입니다.

북 : 그럼, 그건 그렇지.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거.

남 :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그래서 내 얘기가 핵무기는 잘 쓰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잘못 쓰이면 우리 인류가 다 망하니까 그 이상 가공할 무기는 없지요.

② 제6차 회의 : 1992. 6. 30(화), 판문점 「평화의 집」

북 : 며칠전에 우리 지방에 있는 조카아가이 나왔더라 말이야 자기 어머니가 데리고, 열살짜리인데. 그 아이가 자꾸 대동강에 줌 놀러 나가자고 그래서 대동강에 우리 손자하고 같이 나갔지.

나가니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동강에 조그마한 쪽배가 있다고, 이렇게 노저어서 가는 것 그걸 댕다 말이야, 아이들 손자하고 조카를 데리고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우리 열살짜리 손자는 난 몰랐는데 왼쪽이야. 그래서 노를 젓는데 왼 쪽에도 힘이 있으니까 자꾸 배가 돌지요,

내가 젓지 않으면 계속 돈다 말이야 내가 젓게 되면 곧바로 가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나하면 우리 공위원장하고 같이 우리 「반핵 평화의 배」를 같이 댕는데 그래서 공위원장하고 나하고 둘이서 노를 손발을 잘맞춰서 잘 저으면 목적지까지 빨리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말입니다.

도중에서 내리지도 말고 또 가다가 멈춰서지도 말고 끝까지 공위원장하고 나하고 둘이 목적지까지 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말입니다.

남 : 생각은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

북 : 나는 배를 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다고, 내가.

남 : 이제 언행일치해야지.

북 : 그러니까 우리 조카아가이가 나를 데리고 나가자 하는게 상당히 잘됐죠? 휴식도 하면서.

남 : 상당히 어린애한테 많은거 배우셨구만.

북 : 그럼 그것도 배우기도 해야돼. 그 어린애들이 천진난만하고. 그러면서 내 하나 걱정한게 있어. 공위원장 그럴때 해가 심하지 않소? 그렇게 배를 타고 나가

면 모자를 꼭 쓰고 나가셔야 한다고.

공위원장 머리카락 없는데 괜히 모자 안쓰고 나갔다가 햇빛에 뱀다 쪼이게 되면 상당히 건강에 나쁘다 말이야. 내 그래서 공위원장한테 이걸 또 말씀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말이야.

남 : 내 걱정까지 하셨구만.

북 : 그렇죠.

남 : 감사합니다.

북 : 하여간 우리가 내 이런 이야기하는건 사실 또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나 회담을 좀 잘해 나가서 우리 온겨레에게 기쁨을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남 : 그래 좋아요.

4. 자기측 행사소개

4. 자기측 행사소개

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1) 본 회 담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宋 漢 虎 (국토통일원 차관)	〈단 장〉 백 남 준 (정무원 참사)

(가) 제2차 회담 : 1989. 3. 2(목), 판문점 「통일각」

북 : 85년도에 귀측에서도 고향방문단이 서울로 와 가지고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 : 잘 있지요. 서울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소식을 많이 기다립니다.

북 : 아마 피차에 다 같을 것입니다.

남 : 그때 우리가 평양을 방문했던 50명의 이산가족들 다 잘 있습니다. 일평회 조직을 갖고 있어요.

처음으로 평양을 다녀왔다해서 한일자, 평양의 평자, 즉 태평할 평자 해가지고 아마 석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 같아요. 모임을 가져가지고…….

고향을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했던 감회를 되새기면서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북 : 회담을 잘 하면 아마 이산가족들의 희망도 실현되고.

남 : 모였다가 헤어질 때는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있잖습니까? 매번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홀리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그렇습니다.

이산의 아픔이라든가 한이라든가 또 고향땅에 두고 온 가족들, 혈육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 : 그러군요. 혈육들이 갈라져 사니까,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같은 심정일 것 입니다.

남 :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빨리 해소하고 해결해 드려야겠어요.

북 : 그러자면 회담이 생산적이 되어야 합니다.

남(金三勳)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나도 북쪽땅에 처음와 봤는데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북 : 김선생, 처음입니까?

남(金三勳) : 항상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어 두번째 만났는데 좋게 만난 인연을 잘 발전시켜서 6천만 동포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잘 합시다.

(나) 제3차 회의 1989. 10. 12(목), 판문점 「평화의 집」

남 :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카톨릭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성체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행사 다 끝나치고 요한바오르 2세가 평화의 「메세지」를 마지막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수석대표이기 때문에 좀 더 감명있게 본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남북의 한국인들이 서로 존경심 가지고 또 신뢰심 가지고 이렇게 화해를 이룩해서 그야말로 형제애의 기쁨속에서 하루속히 재결합의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북 : 금년도에 우리 평양에서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많은 수반들도 오고 그리고 180개 나라에서 청년대표가 오고, 그런데 같은 민족인데 남쪽에서는 참가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남쪽을 명예손님으로도 초청을 했고 대학생들도 초청했고, 그런데 평화축전장에는 저 대양, 대륙을 건너서 수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왔는데 지적에 있

는 남쪽에서는 못 왔거든요.

그러다가 「전대협」에서 대표를 파견해서 공동의 축제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측에서도 몇 천명 들어와서 같이 축전장에서 껴안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남 : 저도 이제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 9월하순에 5일동안에 걸쳐서 「세계 한민족체육대회」가 있었어요.

50여개 국가에서 약 천 오백명의 우리 해외동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선수들도 참가를 했고 또 「사할린」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50년만에 고국 땅을 밟아 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 만나고 망향 50년만에 그 한을 푼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한 핏줄, 한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2세대, 1세 뿐만 아니라 2세대, 3세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가를 해 가지고서 자기 자랑할 수 있는 조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조국이 그야말로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놀라움을 살 정도로 발전하고 번영하고 있는데 대해 한결같이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북한측도 여기에 참가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분단된 상황에서 이렇게 세계 이산가족이라든가 혹은 「한민족체육대회」를 갖는 것 보다는 통일된 상황에서 갖게 된다면 우리 2세, 3세대에게 얼마나 커다란, 보다 큰 자긍심과 자랑과 기쁨을 안겨주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북(최우진) : 송선생 말씀하는 것 들으면서 뭐를 생각해 보았는가.

이제 평양과 서울에서 여러가지 큰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국제적 규모에서.

우리 대화를 잘 진척시켜서 통일을 이룩해야지. 그런데 북과 남이 합쳐서 통일된 조국에서 그와같은 행사들을 조직하면 우리 민족의 영예를 얼마나 더 세상만방에 떨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제4차 회의 : 1989. 11. 15(수), 판문점 「통일각」

북 : 그 천재소녀, 소녀화가 오은별, 오은별이라고. 그쪽의 출판물에도 났어요.

남 : 아직 듣지 못했는데.

북 : 87년도에 모스크바에서 국제 청소년 미술작품 현상전람회가 있었다구.

거기 60개 나라에서 3만명이 참가했는데 거기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지금 아홉살인데.

남 : 소녀예요?

북 : 소녀, 여자에요. 오은별.

그런데 세살부터 평양미술대학에서 수재교육을 받았거든, 아버지가 미술가
인데.

남 : 아, 그렇구만 우리 사실 한민족이야…….

북 : 그런데 이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통일문을 그렸단 말이야.

그 아이가 일기에 쓴 겁니다. 통일문을 그렸는데 여기다가 자기 그린 날짜를
적어 놓자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적어 놓지 말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반문을 했거든, 왜 아버지 써 놓지 말랍니까? 아직은 통일 못됐지
않냐 통일된 날 거기에다가 연월일 써 놓어라. 그제 우리 온 민족이 다 관심사
인데 오늘은 좀 능률적으로 해 봅시다.

나. 남북고위급회담

(1) 본 회 담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단 장〉
姜 英 勳 (국무총리, 1차~3차) 鄭 元 植 (국무총리, 4차~8차)	연 형 목 (정무원 총리, 1차~8차)

(가) 제1차 회담 1일회의 : 1990. 9. 5(수),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셀라볼룸」

남 : 금년에는 어떻게 북쪽에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북 : 우리 북쪽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아마 우리 평양 수도로 치면 그저 평균 한 해에 1,000mm가 예년에 오는 강수량인데 올해에는 아마 한 1,700mm,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의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대동강 유역을 따라서 비가 많이 왔는데 상류에다가 높은 갑문들을 많이 해 났어요. 그 위에다가 덕천, 덕천 아마 아시죠?

남 :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북 : 예, 거기에 언제(堰堤) 높은 대동강 발전소도 해 놓구요. 그 다음에 그쪽 아래에 내려와서 영원발전소도 해 났습니다. 그래 우리는 갑문 많이 해 났습니다.

남 : 우리측에서도 한강 상류에서부터 댐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가 나고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주 단계 단계 조절을 하게 되니까 그런 피해는 이제는 없게 됐습니다.

북 : 우리는 이쪽 그 남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포에다가 20리 날바다를 막은 서해갑문 그걸 우리가 최근에 해 놓은 덕에 올해 비에 의한 피해도 적고요. 그걸 해놓은 바람에 우리가 지금 덕을 입은

게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간석지 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 : 그러니까 북쪽은 말씀입니다. 남쪽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은데 우리가 아주 태풍을 다 막아드리거든, 태풍을.

우리는 매년 태풍이 오는데 금년에는 회담이 있어서 그런지 태풍이 피해 갑니다. 그래서 이게 회담도 잘 되리라고 봅니다.

북 : 그래 간석지를 이렇게 막아 놓으니까, 그 간석지를 해 놓으면 한 2, 3년동안 염분을 뽑아 낼거란 말이에요.

남 : 그렇죠, 예.

북 : 그래서 서해갑문을 이렇게 막다 보니까 대동강 수위가 그저 한 3미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수용량이 한 20억, 한 27억내지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염기를 뽑는데도 좋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본래 황해남도, 황해북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큰 강이 없습니다. 그 가뭄만 지면 농사일 바쁘고요. 그 대동강 물을 황해북도, 황해남도까지 끌고 가는 큰 관개공사를 작년도 한 반년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물만 마르지 않으면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남 : 우리 남쪽에서도 간척사업, 바다를 막아 가지고 국토를 넓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댐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막았어요. 그래서 농사도 옛날 같으면 천수답이 많았는데 이제는 저수지를 사방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수리관계에 문제가 없게 되고.

그래서 농사가 이제는 우리 창고에 한 천 육백만섬 정도의 쌀이 있고, 금년도 또 수곡을 하게되면 아마 평년작은 충분히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쌀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쌀이 남아서 어디 저장할 창고가 부족하다는 그런 세월이 돼 갑니다.

(나) 제1차 회담 2일회의 : 1990. 9. 6(목),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셀라볼룸」

남 : 어제는 저녁에 영화를 보셨지만.

영화는 요새 신식, 소위 현대영화인 모양인데, 국악은 좀 지루하지 않으셨어요?

북 : 한 두어시간 걸리더구만요, 잘 봤습니다.

요즘 우리 평양에서 평양국제영화제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50개 나라가 참가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날에 개막식에 참가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면 폐막식에도 또 참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영화상영주간입니다. 한 50개 나라가 참가했는데 많이 왔습니다. 축전하지요.

남 : 우리나라 국악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세계에서 아마 독특한 전통문화로서는, 어제도 보셔서 알겠지만 거문고다, 가야금이다 우리나라 독특한 것인데.

더군다나, 대금인가요? 옆으로 이렇게 부는것, 저것도 서양사람들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는 음, 이것이 서양사람 거기서는 안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 우리나라 대금연주하는걸 보고 서양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음이 나오느냐?

요새는 우리나라 국악도 현대화하는 그런 멋에서 악보도 이젠 현대식으로 만들고 또 상당히 모든 것을 그러한 그 과거에 좋은 점을 유지해 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조금 지루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 : 우리는 어제 가극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강선생이 평양에 오면 뭘 보여주겠느냐 생각했죠.

남 : 기대가 큼니다. (웃음)

북 : 우리 *3대가극 가운데에서 하나 보여주어야 될 것 같아요.

남 : 요새 사물놀이, 아주 신이 들어서, 신나서 하는.

북 : 상당히 힘들겠어요. 북판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게 하더구만요.

남 : 서민층에 대중예술로서 상당히 급속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저것도 외국사람이 와보고, 한국의 독특한 그런 멋이라고 해가지고 감동을 많

*3대가극 : 「피바다」,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을 지칭하며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를 포함하여 5대혁명 가극이라 함.

이 받고서 가더군요.

북 : 우리는 그런 것 처음보지요.

여기 지금 서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남 : 지금 천만이 넘었어요.

지금 참 인구가 너무 과밀해 가지고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화, 지역자치제와 아울러서 지방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정책, 행정의 방향도 그런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서울에 와야 여러가지 모든 문화시설도 그렇고 복지시설, 또 중앙관서에 와야 일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교육기관이 여기에 제일 역시 좋으니까.

그래 지금 지방의 교육시설도 확장을 하고 또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이제 거의 지방대학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평준화되는 그런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농촌의 복지, 지방의 복지문화시설 확장해 나가느냐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역시 시간이 걸리는구만요.

(다) 제2차 회담 2일회의 : 1990. 10. 18(목), 평양 「인민문화궁전」

남 : 어제 그 「아동궁전」, 그렇지 「소년궁전」 그림, 아주 참 천재적이더군요. 네살 짜리가 그렇게 그리는데, 두 살 때부터 그리기 시작했다던가, 그것 참 젓먹을 때부터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북 : 그 아이 이름이 뭐든가? 「오은별」.

남 : 그 붓글씨를 쓰는데 척척척 아주 명필이더라구요. 뭐 7, 8세 나면 꼬무작거리면서 이렇게 쓰기 쉬운데, 이걸 뭐 척척척 아주 달필이에요.

북(김광진) : 「12차 세계청년 학생축전」에 갔었습니다.

북 : 그것도 가고 그 다음에 「국제아동미술축전」에 가서, 그 애가 그때 여섯살 때지. 여섯살 때 그림을 갖다가 게시를 해 놔는데 『이것 거짓뿌렁이다. 여섯살 아이가 이런 그림 그릴 수 없다』 그래서 심판원들이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비행기로 그 아이를 싣고 가지 않았겠소. 그런데 그 여섯살 먹은

걸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아버지 하고 같이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그 축전장에 갔됐죠. 그래서 그 술한 심사원들 앞에서 종이를 내놓고 거기다 그리니까 사실 이지.

남 : 우리 남쪽에도요, 이 음악천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홉살 짜리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나도 「런던」에 있을 적에, 또 「서주회」라는 열여섯살짜리 피아노치는 아가씨가 와 가지고 국제콩쿠르대회에서 또 2등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전부 다 심사위원들이 『최소한도 공동 우등을 줘야 된다』할 정도로 아주 기막히게 하는 걸 봤 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 : 조선민족이 본래 똑똑하죠.

남 : 옛날부터의 독창력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 제3차 회담 2일회의 : 1990. 12. 13(목), 서울 신라호텔 「다이네스 터홀」

북 : 강선생님 요즘 두가지일 다 하자니까, 국회에도 참가해야 되지, 여기에도 참가해야 되지 대단히 바쁘신 모양입니다.

남 : 내외 중대사가 한꺼번에 겹쳐 가지고 말입니다.

남(洪性澈) : 국회가 오늘 아침 4시 20분까지 했어요

북 : 새벽 4시까지 했습니까? 아, 그렇게 오래까지 했어요?

선생님, 주무시지도 못 했겠구만요?

남 : 뭐.(웃음)

북(안병수) :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가 언제 끝납니까?

남 : 오늘까지죠. 오늘까지인데 이거 뭐 두고봐야지.

남(洪性澈) : 정책심의를 하고, 내일모레 계수조정을 하고.

북 : 그렇게 오래 합니까?

남 : 여당은 빨리 하기를 바라고, 야당은 좀 더 자세히 검토하기를 바라고 이러니까.

북 : 강선생님 하실 말씀 다 끝났습니까? 또 나가야 됩니까, 이제?

남 : 또 이제 나가야죠. (웃음)

남(洪性澈) : 국회에서는 장관이 답변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차 가지고 꼭 총리한테 답변을 듣고.

북 : 꼭 총리 대답이 있어야 되겠군.

(마) 제4차 회담 1일회의 : 1991. 10. 23(수), 평양 「인민문화궁전」

남 : 어제 만찬도 아주 썩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고 또 여흥도, 왕재산 악단 연주도, 무용이 특히 좋았습니다.

서울에 좀 와서 공연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양교예단, 교예단이 세계적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북 : 교예단, 잘해요.

남 : 마침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93년에 대전에서 세계박람회를 하는데 천만명이 관람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교예단이 와서 공연을 하면 상당히 성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북 : 우리가 오늘 회담에서 해결할 문제가 다 되면 공연될 수 있는 문제고, 체육회담 문제없고, 경제교류문제없고, 교류문제는 많이 향상이 될겁니다. 그거 다 문제없습니다.

남 : 저희는 특히 북측에서 좀 뭘 사와야 할 것이 많이 있어서 오늘 회담이 잘 되면 그런게 다 자동적으로 풀려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잘 해보도록 하십시다.

(바) 제4차 회담 2일회의 : 1991. 10. 21(목), 평양 「인민문화궁전」

북(최우진) : 우리는 맨 처음에 약속한대로 합의서에 서명이 안 되면 며칠 더 계시면서 서명할 때까지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 : 그런데 총리라는 자리가 일정이 짝 짜여 있습니다.

북 : 남측 총리하면서 제일 바쁘게 뛰입니까?

남 : 의전적인 것이 많지요. 여기선? 의전적인 진행이, 여기서 말하는 의례사업이겠지요.

외국손님 만나고 어디 행사에 가서 식사(式辭)해야 되고, 식사뿐 아니라 치사해야 되고, 연설해야 되고, 그런 의전사업이 꽤 큰 비중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각을 총괄하는 기능을 총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각간에, 각 부처에 암만해도 의견대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선 이런 의견이고, 이쪽에선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갈등 상태가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해 주고 해소시키는 역할, 그것도 꽤 많습니다. 소위 조정기능이라고 저희는 얘기 하는데, 그게 꽤 많고.

셋째는 국민들과 늘 자주 접촉을 해서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 가지고 정책에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각 지방에 다니면서 국민과 대화하고, 여론을 듣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또 갖다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니까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도 물론 해야 되고, 어떤 때는 3시간 하기도 하고.

북 : 국회에도 또 나가야 되고.

남 :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그게 꽤.

북 : 공격 좀 받으니까? 거기 가서.

남 : 아, 공격 많이 받지요. 아, 총리 답변 해보시오 하면서.

북 : 지난번에 서울에 나가서 강영훈선생하고 담화할때, 그후 행사시간에 우리하고 같이 다닐 때도 도중에 국회에서 불러서, 간단히 참가했다가 도중에 가시더구만.

남 : 국회에서 부르면 거의 절대적이지요.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국민이 부른다고 생각하고 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의 증언은 전부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 되지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단어 한자도 「아」해서 다르고 「어」해서 다르니까. 잘 선택적으로 용어도 구사해야 되고 그런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겠지요, 연총리도?

북 : 난, 제일 중대하지만 또 힘들게 집짓는 문제예요.

그게 아주 어렵고, 평양 수도는 2~3년내 안에 평양주택 문제를 완전히 풀자는 겁니다.

목표는 명년도 6월 16일 전후로, 오늘 오후에 소년궁전 나갈때, 최근에 지은 광복거리를 보시게 될겁니다.

북(안병수) : 예, 먼발치에서나 혹시 보실겁니다.

북 : 5만세대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한 3만세대는 지금 공사 다 되고 이제 한 2만세대만 지으면 되겠고.

남 : 국가에서 직접 다 짓는구만.

북 : 국가에서 짓지요

남 : 그러니까 우선사업이고, 우리는 내년까지 2백만호를 지으려고 그러다 벌써 금년에 달성해서 이미 초과달성된 형태에 있는데 그 2백만호 중에 민간건설업자,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짓는게 절반 이상이 되지요.

그리고 건설부에서 주택공사를 통해서 정부가 관리해서 짓는 것이 일부 있고, 그러니까 총리는 별로 집 짓는데는 관여를 많이 안 합니다.

건설부 장관이 책임지고 하지요.

북 : 예, 우린 저거까지만 해놓으면 평양 주택은 완전히 풀리고.

남 : 주택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군요.

북 : 완전히. 그렇게 해서 집없는 사람도 없고 못 쓸 집 다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긍지감 가질 수 있습니다, 대단히.

남 : 큰 사업이네요.

북 : 아, 그럼요. 요즘 고층건물 짓다 보니까 기초를 깊이 하거든요.

기초를 깊게 하니깐 거기서 무덤이, 하여튼 전체 합해 보니까, 한 5백여개 무덤을 발견했는데 삼국시대, 중세기초때의 무덤인데 옛날 유물들,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남 : 거기 왜 낙랑시대 유물들이 많지요?

북 : 많지요.

남 : 낙랑, 삼국시대 유물이 있었고, 그 전에 많이 발굴이 이미 됐었는데.

북 : 많이 발굴됐지요.

(사) 제7차 회담 1일회의 : 1992. 5. 6(수), 서울 신라호텔 「다이네스티홀」

남 : 어제는 더군다나 어린이날이 돼서, 식사후에 여흥을 어린이 합창으로 해서 혹시 집생각 나게 만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북 : 예. (웃음)

남 : 뭐 가족들, 어린이들 생각들 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곤 하는데 어제는 마침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런 여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 : 우리측에서는 소년단 창립절을 기념해서 6월 6일을 아동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체육경기도 하고.

남 : 아, 그래요?

북 : 예, 예술공연도 하고.

북(안병수) : 학교단위로도 하고. 학교 연합모임들도 가지고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해요.

북 : 야유회도 많이 하고, 학부모들 같이 하루 아이들을 위해서 좀 유쾌하게 보내고.

남 : 지난 4월에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 : 예, 지난 4월달에 우리가 여러가지 큰 대상들 많이 준공했는데, 정총리선생이 아마 6차때 와서 들었을겁니다.

5만세대 조업하게 된다는 통일거리도 다 끝나고.

남 : 5만세대도 완공을 했습니까?

북 : 다 완공하고 새집들이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고속도로 준공도 다 하고, 그 거리가 한 4백리 되지?

북(백남준) : 156km입니다.

북 : 156Km면 거의 4백리지? 이거는 도로폭도 많이 넓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총리 선생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 : 개성, 평양간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겠지요? 그 얘기는 서울, 평양간의 거리도

가까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북 : 예, 도로폭도 많이 넓혀놨으니깐 정총리선생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남 : 다음에 저희는 평양회담 갈 때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갔으면 합니다. 단축이 되면은요.

그저 들으니깐 고속도로를 이렇게 직선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산을 절토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공사가 좀 어려웠습니까?

북 : 아마 세계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방향을 대부분 팔백미터 이하로 잡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잡은 방향은 천미터, 천 이백미터까지 비교적 직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뚫고 나간 것이 있고 다리가 많고, 그대신 속도 많이 높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남 : 자연도 많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북 : 예, 일 없습니다.

남 : 농토 보존 잘 되겠지요?

북 : 예, 일 없어요. 산지대니까.

남 : 4차선 인가요?

북 : 예, 4차선입니다.

남 : 콘크리트?

북 : 아스팔트.

아, 그리고 6차회담 이후에 정총리 선생 몹시 바빠 보냈겠습니다. 그동안에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한 이래, 곧 연말에 있을 선거준비때문에 몹시 바쁘게 보냈겠습니다.

남 : 아직은 뭐 그렇게 바빠 준비를 요하는 게 없습니다만, 3월달 선거로는 저희가 이제 정말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꼭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선거에서는 과거의 예에서 보면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유세장에서든 그런 소란이라든가 혹은 남을 비방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만큼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고 있고 또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

을 외국의 언론들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로서는 깨끗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아) 제7차 회담 2일회의 : 1992. 5. 7(목), 서울 신라호텔 「다이네스티홀」

북 : 어제 강강수월래 가무 구경을 잘 했습니다.

그 「수월래」란, 「술래」란 것을 해명을 했습디까? 왜 「술래」라는지?

남 : 예,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우리가 들을때는 「강강수월래」 그랬는데.

북(김광진) : 본래 우리는 지금도 「수월래」라 하지요.

남 : 그런데 지금 그걸 줄여서 「술래」라고 그냥, 「강강」이란 말은 오랑캐 얘기고.

북 : 오랑캐죠, 오랑캐라는.

남 : 오랑캐를 잡는 그런 「술래」다. 그래서 이제 「강강술래」라는.

금년이 우리는 춤의 해라 그래서 무용을 좀 진흥시키기 위한 문화의 해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문화계 인사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분을 한분 지목을 해서, 가령 이달은 신사임당의 달입니다. 신사임당이라면 율곡선생의 바로 어머니 되시고 또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는 다재다능했을 뿐만아니라 아주 모범적인 그런 어머니였고 율곡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을 배출했다는 그 자체가 높이 평가될만 해서 많은 분들의 숭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달이 지금 신사임당의 달입니다.

그리고 금년이 춤의 해가 돼서 이번에 국립무용단이 특별히 그 춤을 조금 현대화도 하고, 우리민족이 이땅에 정착해서 평화스럽게 살다가 외세의 침범도 받고 그걸 물리치는 고통도 겪고 그런 내용을 담은 일종의 춤입니다.

어제 비교적 우리가락을 중심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처음 봤습니다.

북 : 처음 봤습니까?

남 : 예.

북 : 민족문화예술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족성을 살리는 문제, 이거 아주 중요한 거 같습니다.

남 : 예, 아마 어제 다 와 보셨더라면 좋았을텐데, 바로 그 춤, 또 우리 민족 그 예술이라는 면에서는 남북이 상당한 정도의 공통점이 있었던 것으로, 공통적인 인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북(안병수) : 그럼요. 한 민족이 어디 가겠습니까? 문화 바탕도 다 같죠.

(2) 제3차 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가) 제2차 접촉 : 1990. 12. 27(목), 판문점 「평화의 집」

남(李秉龍) : 이젠 그쪽에 김장해야 되겠네요.

북(백남준) : 김장 시작했어요.

남(李秉龍) : 시작했어요?

북(최우진) : 우리 집엔 했는데.

남(李秉龍) : 아, 그래요. 그런데 잘 몰라 그러는데 거기는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따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다가 그걸.

북(백남준) : 아니, 김치공장, 김치공장을 해서 농촌에서는 아직도 호별로, 도시에서는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남(李秉龍) : 그것 편한 점도 많겠네요.

북(최우진) :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하기도 하고.

북(백남준) : 예, 집에서는 편하죠. 왜 그 남쪽에서도 김치를 공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남(李秉龍) : 아니, 아직은 우리는 대부분 가정에서 그걸 하고. 요즘은 이제 생활 방식이 좀 바빠져서 그런지 시장같은데 보면 김치를 해가지고 파는 모습도 많이 있더구만요.

젊은 세대들은 아마 그런 것도 좀 활용하겠지만, 아직은 대부분 다 집에서, 우리나라는 그저 겨울에는 김치가 하나의 예술이니까.

북(백남준) : 아, 그럼, 아주 주요한 식품이니까.

북(최우진) : 서울에서는 아파트에다 김치를 담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가 합니까?

남(李秉龍) : 요즘은 그런 면에 상당히 발달이 돼 가지고, 옛날엔 땅속에다 파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저장통이 아주 완벽한 것이 나와가지고 땅속에 묻는 것하고 성능이 똑같아요.

북(백남준) : 땅속에 묻는 김장이 더 맛있대요.

남(李秉龍) : 물론이지, 그런데 이제 생활방식이 아파트에서 많이 사니까, 아무래도 거기서는 땅속에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대체수단이 자꾸 발전이 되겠죠.

북(최우진) : 조상들이 아주 현명했죠?

남(李秉龍) : 우리 조상만치 슬기로운 조상은 없으니까.

남(林東源) : 요즘은 배추, 무우 이런 것들이 보관이 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년분을, 겨울나기 위한 김장을 하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한달분씩 또는 12월에, 1월에 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북(백남준) : 그거 좋지요.

북(최우진) : 원래 그 김치공장에서 하는 방법은 그때 그때 생산해서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3) 기본합의서 내용조정과 문안정리를 위한 대표접촉

(가) 제1차 접촉 : 1991. 11. 11(월), 판문점 「통일각」

남(宋漢虎) : 지난번에 평양에 올라갈 때 보니까 「중화」 지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비닐하우스」라고 그러죠?

그거 만들어 가지고서 채소 재배하는것, 그것 있데요?

북(백남준) : 예, 있습니다.

남(宋漢虎) : 우리는 사실 방방곡곡에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개성에서 쪽 가다가 보니까 그게 하나 있더군요.

북(백남준) : 아니, 개성부터 평양까지 올라가는데 다 있죠.

북(최우진) : 도시주변에다 많이 만들었죠. 평양시 주변에는 더 많고. 농촌자체에서는 그렇게는 많지 않아요.

북(백남준) : 도시를 낀 농촌에는 많이 있어요.

북(최우진) : 평양 주변에는 많아요.

남(宋漢虎) : 그래서 농민소득을 거기서 많이 획득하고 있죠.

북(최우진) : 그래서 평양 주변 「용성」, 이쪽에는 유리, 비닐로 하지 않고 그 유리로 하고 있어요.

남(李東馥) : 완전히 온실일세.

남(宋漢虎) : 그런데 유리로 하면 그게 좋은 면도 있고 좋지않은 면도 있을거 같아요. 너무 광선이 쬐 경우에는 그게 재배하는데 오히려 불편한거 아닌가?

북(백남준) : 그건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잘..... (쌍방 웃음)

(나) 제2차 접촉 : 1991. 11. 15(금), 판문점 「평화의 집」

남(宋漢虎) : 최선생이 안 왔으니까 우리도 하나 빨까요?

남(李東馥) : 들락날락하면 되겠네, 뭐.

북(백남준) : 예? 송선생이 빠지겠소? 그러지 말고 3:2로 넘겨쳐야지, 도망가면 되겠소? 최선생이 이미 누구하고 일정이 약속이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음번

에는 나올 겁니다.

남(宋漢虎) : 최선생도 바쁘네. 뭐 판문점에 나오라, 또 외국에 가라.

북(김영철) : 이름이 「순회대사」니까.

남(李東馥) : 「순회대사」는 한문인데,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나. 「팔랑개비 대사」, 「팔랑개비 대사」가 되나?

북(백남준) : 그쪽에는 외무부에 「순회대사」의 직제가 없나요?

남(李東馥) : 「순회대사」라는 직제는 없죠.

북(김영철) : 일반적으로 구라파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4)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가) 제2차 접촉 : 1992. 1. 29(수), 판문점 「통일각」

북(최우진) : 사냥을 좀 하십니까? 임선생이나 이선생은.

남(李東馥) : 사냥? 사냥은 우리 별로 안 하는데요.

북(최우진) : 안 해요?

지금은 무슨 사냥 좋아하는가 하면 꿩사냥, 눈이 좀 녹아야 됩니다. 꿩이 좀 있긴 있더라. 있는데 눈이 좀더 많이 와야 꿩사냥이 좋다는 데, 많이 온 다음에 눈 녹은데 발사이 이런데 꿩 싹 모이지. 그러면 꿩사냥이 좀 재미있죠. 지금 눈이 없으니까 꿩이 다 이렇게 분산됐어. 발견하기도 힘들고.

남(李東馥) : 꿩 말고 무슨 사냥?

북(최우진) : 노루, 노루가 있습니다.

지금 사냥하는 계절에는 꿩사냥하고 노루사냥, 그런데 꿩사냥이 재미있는게 뭐인가, 대개 꿩사냥도 혼자 다니는 것보다 둘씩 다니는 것이 좋다 말이야. 꿩이 나타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 쏘는 방법 있잖아요.

쏘는 방법을 둘 난다 해서 앉아 있는걸 둘이 쏘게 되면 그 두마리 둘이 같이 쏘면 못 잡을 수 있어. 한사람이 먼저 앉아 있는걸 「탕」쏜다 말이야.

그래 한사람이 쏘게 되면 날아가지 않겠어? 날아갈 때 또 한사람은 그걸 쏘지. 날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두마리 다 잡는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앉아 있는걸 제각기 쏘겠다고 하다가 두마리 다 못잡을 때가 있지.

북(김영철) : 그 뭐냐 하나가 장끼하고 까투리, 맨날 둘이 쌍을 이루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두마리 단번에 잡자면 이제 최대표 말하는 두마리 잡는 전술로 하면 됩니다.

남(李東馥) : 옛날 그 「장끼전」 보면 그 장끼가 좀 미련하고 까투리가 똑똑하고 그렇지.

장끼가 독약 든 콩 먹고 죽는걸 보고 까투리가 노래부르는게 그게 「장끼전」이거든 이게.(쌍방 웃음)

북(최우진) : 핑이 있더라고, 자동차 타고 오는데. 무슨 생각했는가. 이것 우리 임
동원대표하고 이동복대표하고 이제 사냥꾼들 있지 않소. 사냥꾼들이 핑 잡는 식
으로 우리 합의서 만드는게 기본 목표니까 양쪽이 서로 잘 손발을 맞추게 되면
이게 뭐이 잘 되겠구나.

남(李東馥) : 사냥 나왔어? (쌍방 웃음) 딱 썩서 이렇게 날으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대 까들릴 작정이지.

북(최우진) : 그렇게 해서 합의서 턱 나오고. (쌍방 웃음) 뭐, 제각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식으로, 목표만 추구하는 식으로 하다가 다 작성 못하면 안 되겠다.

남(林東源) : 아, 역시 최선생 답구만. (웃음)

남(李東馥) : 완전히 오늘 최포수가 돼서 나오는군, 최포수.

북(최우진) : 사무원들은 상당히 운동이 돼요. 사냥하느라 총들고 돌아다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운동이 되고.

북(林東源) : 아, 운동되지.

다. 남북정치분과위원회 회의

(1) 본 회의

〈환 답 자〉

우 리 측	북 측
<p>〈위원장〉 李 東 馥 (국무총리 특별보좌관)</p>	<p>〈위원장〉 백 남 준 (정무원 참사)</p>

(가) 제1차 회담 : 1992. 4. 23(목), 관문점 「평화의 집」

남 : 4월은 식목의 날이 있고, 식목의 달이지요.

4월 5일이 한식이자 식목일이고, 그래서 많이들 가서 나무 심고 그러는데.

북쪽에도 식목일이 있습니까?

북 : 그럼, 우리는 식수절이 있어요, 식수절.

4월 7일로 되어 있어요.

남 : 4월 7일. 우리는 4월 7일은 신문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은 신문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는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날 대개 그런 일을 해요, 4월 7일날, 신문에 안 나니까.

북 : 그동안 위원장은 식수 다녔겠구만.

남 : 식수도 다니고.

북 : 좋은 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식수절이 돼서 허리를 굽히면서 직접 가서 심지는 못했어도 조력도 하고.

우리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 탄생 80돌, 가장 큰 경사도 성대하게 기념했습니다.

남 : 여러가지로 아직도 바쁘실텐데.

북 : 지금도 그 경축 분위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위원장이랑 평양에 들렀을 때 보시던 그 통일거리, 다 완공이 돼서 새 집들이 시작했고, 평양·개성사이 고속도로도 개통했습니다. 천천히 걸려서 그제 두시간이면 돼요.

남 : 요전에 최영림부총리, 김달현부총리, 김복신부총리 세분이 3중창 하시는 것 봤어요.

그중에 김달현부총리는 성량이나, 대단한 음악 소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음악을 본격적으로 하는 분은 성악가라고 그리고 유행가를 부르는 분들을 가수라고 그러는데, 김달현부총리는 아주 훌륭한 성악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때요?

북 : 내 이위원장이 높은 평가하더라고 가서 내 전달해 줄게요.

남 : 꼭 좀 그러세요.

성악가, 가수 그렇게 구별합니까, 거기서도?

북 : 아니, 그렇게 안하고, 그제 노래부르는 사람은 가수라고 그리고.

가수 가운데는 민요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대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또 고음 부르는 사람, 저음 부르는 사람, 중음 부르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지만, 그제 가수라고 합니다.

남 : 성악가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북(김완수) : 성악 배우, 화술 배우, 영화 배우 이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남 : 아니, 그날 놀랐어요.

그것 들으면서 김달현부총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내가 우리 친구더러 그런 얘기 했어요. 김달현부총리 정도면, 미국의 카네기 홀이라고 해서 아주 음악가들이 선망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노래 불러도 충분히 되겠다고.

북 : 우리는 좀 다른 점이 뭐인고 하면, 우리는 군중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 다루고.

그리고 젊고, 늙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사회적인 기풍으로 그렇게 장려
를 하고.

남 : 집단 문화를 주로 이제 많이 하시네요.

북 : 나도 이제 뭐인가 하면, 악기도 다루고 노래 부르는데 끼어드는데, 원래 성대
가 나빠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부르는 것 보고서는 음치라고 그러더구만.

라. 남북교류 · 협력분과위원회 회의

(1)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원장〉 林 東 源 (통일원 차관)	〈위원장〉 김 정 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가) 제4차 회담 : 1992. 5. 20(수), 판문점 「평화의 집」

북 : 내가 요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규장각 자료총서에 을사오조약 하고 정미칠조약이 허위날조된 문건이다, 이런 것이 아마 역사적인 사료로 고증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 : 그래 그런 보도가 좀 나왔죠. 우리 신위원께서 자료 좀.

남(辛鉉雄) : 일부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게 아마 학술적으로 좀더 확실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게 역사학계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는 것인지는 아직 보도를 통해서 접하지 못했습니다.

북 : 그게 아주 귀중한 자료인데.

해방 후 반세기가 가까와오도록 그 자료가 아직 확정 못됐다는 자체가 유감스럽지. 때문에 빨리 좀 힘을 넣어서 그 자료를 고증하고 또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리조오백년실록 번역 · 출판 · 편찬사업들을 다 끝내고 아주 잘됐어요. 그게 술한 품이 먹었는데 당국들에서 역사자료들을 고증하고 확정하는 사업에는 힘을 넣고 투자도 좀 해야 됩니다. 아마 임선생이 도움이 좀 되어주어야 될 것 같구만. 저 문화예술계에다.

남 : 통일원에서

북 : 예. 일제가 악랄하고 교활하다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누구나 다 알고 반일감정이 높는데, 더욱이 그 고종과 순종왕이 인정을 안한 것을 인정을 한 것으로 날조 발표했다는 이 자체가 아주 우리 인민을 놀랍게 하죠. 그런 자료고증에 필요하면 우리가 *방조도 좀 드리겠습니다. 。

남 : 관련되는 자료가 뭐 좀 있어요?

북 : 아니 우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만약에 고증하는데 필요한 게 있다 하게 되면 좀 방조를 해서라도 고증을 해야지.

남(辛鉉雄) : 사회문화공동위원회가 운영되면 역사적인 면, 문화적인 면에서 협력할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료들도 서로 교환을 하고 또 이조실록도 우리가 번역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교환하고 하면 서로 보충할 분야가 한글, 사전분야 등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남 : 그래서 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북 : 우리 리조실록은 선생들도 잘 아는 홍명희선생 아들 홍기문선생이 책임지고 번역을 했는데, 아주 잘 번역됐다고 호평이 높습니다.

그쪽 학계에서도 아마 호평을 했는 것 같아요.

남(辛鉉雄) : 우리측에서 수입하려고 그래요.

북 : 내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남 : 수입은 뭐, 여기서 막바로 건네주면 받아오면 되는 것인데.

북 : 나한테 직접 사려면 돈을 좀 많이 부르는데.(웃음)

남 : 역시 경제하는 사람들이라 돈에 관심이 많구만.(웃음)

남(辛鉉雄) : 아주 시장경제체제를 빨리 몸에 익히신 것 같아요.

북 : 아니 뭐 돈이란 건 시장경제나 계획경제나 다 계산하게 되는 기초니까.

(나) 제6차 회의 : 1992. 7. 28(화), 판문점 「통일각」

남 : 남쪽에서는 지금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우리 코리아의 나이 어린 딸이 올림

*방조 : 거들에서 도와주는 것

픽의 첫 금메달을 먼저 땀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들 좋아하고 있어요. 여자공기 소총에서 첫날 첫 경기에서 금메달을 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역도에서 또 하나 따서 금메달 두개가 되어서 대단히 좋아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북 : 원래 우리 민족은 슬기로운 민족이니까.

남 : 그럼, 그리고 우리 민족은 여자들이 우수한 것 같아요.

북 : 탁구도 잘하고.

남·북(일동) : (웃음)

남 : 남북 다 봐도 여자들이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북 : 우리한테도 김광숙이던가, 체조를 아주 잘하는 어린 처녀가 있고, 그 다음에 사격경기에서도 아주 이름있는 그러한 선수가 여성이에요.

남 : 좋은 성적들을 어디 기대해 봅시다.

북 : 이제 마지막에 다 남북의 금메달을 합치면 더 많아지는 그런 숫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 : 그렇지요. 이것이 이제 남북이 따로 따로 출전하는 마지막 올림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이제 단일팀으로 나가야지.

북 : 아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다) 제7차 회의 : 1992. 9. 3(목), 판문점 「평화의 집」

북 : 우리는 그저께부터 학교 개교를 이제 전반적으로 남쪽에는 3월달이던가요?

남 : 신학년도는 3월이죠. 그런데 이제 가을학기 시작은 9월초, 마찬가지로.

북 : 우리는 진학도 9월 1일부터 하고, 개학도 9월 1일부터 하고.

개성에 오니까, 개성에서는 원래 「경공업단과대학」이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7차 고위급회담 시작하는 날 5월 5일에 우리 주석님께서 개성을 현지도하셨는데, 그때 경공업단과대학을 「경공업종합대학」으로 이렇게 승격시키고, 「성균관박물관」을 현지도 하셨어요.

북 :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이번에 그 경공업종합대학이 「고려성균관」.

남 : 대학.

북 : 대학은 안붙이고, 그 성균관이란게 대학이란 뜻이니까 남쪽에서는 「성균관대학」이라고 붙어 있죠?

남 : 예, 성균관대학이 있어요.

북 : 대학, 대학 두번 들어가는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고려성균관, 주석님께서 그렇게 명명하여 주셨는데, 한자어 그 다음에 우리말로 둘 다 고려성균관이라고 이제 그 명명을 화강석에다가 친필로 쓰셨어.

그리고 보니까 원래 992년 고려 6대 왕인 성종 11년에 「국자감」이라는 그런 걸 세웠더랬는데, 금년이 천년이 되는 해예요. 1992년이니까.

남 : 오, 그것 아주 뜻깊네요.

북 : 그래요. 그래 국자감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지었다가 1362년도에 성균관이라고 고려 31대 공민왕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데, 이번에 천년을 맞으면서 고려성균관이라고 경공업종합대학을 명명했어요.

남 : 거 아주 참 뜻깊은 일이네요.

그러면 단과대학으로 있던 것을 종합대학으로 올리니까 현재 학생들은 꽤 있겠네요?

북 : 그럼요. 단과대학 학생들이 있었죠. 이제 종합대학이니까 학부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더 많이 모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이제 크게 짓습니다.

(2) 위원접촉

(가) 제6차 접촉 : 1992. 8. 21(금),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남(宋榮大) : 우리쪽에서는 오늘 새벽에 낭보가 하나 와서 상당히들 기뻐했습니다.

뭐냐 하면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에서 우리 황영조선수가 금메달을 땀어요.

텔레비전 중계하는 것을 보니까 일본선수하고 1,2위를 다투다가 막판에 가서 일본선수를 제치고 결승테이프를 끊는 것을 봤는데, 아마 돌이켜보면 지난 36년에 베를린올림픽 때 손기정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래 56년만에 세계를 제패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참 값진 금메달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족적 영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손종철) : 우리도 지금 올림픽을 보면서 아주 조선민족이 슬기롭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경량급에서는 아마 우리가 대체로 다 메달을 딴 것 같습니다. 레슬링, 권투.

남(宋榮大) : 저도 경기 봤어요.

북(손종철) : 더 통쾌한 것은, 우리 모두 보면서 그랬는데, 우리 선수들이 권투하고 자유레슬링에서 미국선수들을 제끼는 장면, 이것은 대단히 아주 통쾌하게 봤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민족이 슬기롭다.(웃음)

남(宋榮大) : 그래서 지금 우리 부속합의서 내용을 보면 사회문화교류부문이 있는데, 이것 부속합의서 빨리 타결지어 가지고 앞으로 사회문화공동위원회 가동되면 단일팀부터 먼저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번에 단일팀 내보냈으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제치고 한 4위정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 남북 핵관련 회담

(1)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을 위한 대표접촉

(가) 제1차 접촉 : 1991. 12. 2(월), 판문점 「통일각」

북(최우진) : 전원회의 보도 들었습니까?

남(林東源) : 대충 들었어요.

북(최우진) : 전원회의 보도, 우리 전원회의에서 지난 5차 북남고위급회담의 진행 정형이라든가 우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찾자는 과업, 우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아주 성대히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전원회의 보도 나왔지만 우리 총리동지가 고위급회담 단장이기 때문에 제 5차 고위급회담 진행 정형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예비회담부터 그런 의미에서 임동원선생이 아주 공로가 크죠.

예비회담때부터 계속 대표접촉 있었잖아요? 대표접촉 과정 다 개괄하고 이렇게 해서 특히 5차 고위급회담 합의서를 어떻게 타결하게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합의서를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데서 제기되는 과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 합의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와같은 합의서가 채택된 것을 역사적인 사변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합의서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추진시키는 북과 남의 공동의 강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잘 해 나갈데 대한 문제를 전원회의에서 토론했습니다.

남(林東源) : 그럼 아주 합의서 실행을 위한 실천의지를 좀 다진 것 같군요?

북(최우진) : 그것은 뭐 남측에서도 그렇지 않았겠나요?(웃음)

남(林東源) : 아 우리야 뭐 항상 준비돼 있어요. 실천하려고 합의한 것인데.

북(최우진) : 남측에서도 우리 합의서 채택과 관련해서 중대하게 토의된 것이 있습니까?

남(李東馥) : 우리도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국무회의에서 승인을 했고 이제 여러가지 발효에 필요한 내부적인 발효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게 곧 완결될 겁니다.

그날 평양으로 출발들을 하시고 나서 그날 저녁때 내가 KBS에 나가서 담화한 것이 있는데 보셨어요?

북(최우진) : 난 직접 못 보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은 여러가지 사업들이 제기됐다고요.

바로 평양으로 갔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떠날때 기다리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여기 도착하니까 *직승기를 보내 주셨더군요. 그래 타고 가서 대표들이 그날 저녁으로 위대한 수령을 만나뵈옵고, 위대한 수령께서 만찬을 친히 마련해 주셔서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만찬을 하고 그런 영광을 지냈습니다.

남(林東源) : 그러면 그날은 여기서 청와대 오찬을 하고 올라가서 또 만찬이 있고 아주 바쁜 날이었네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그렇죠.

북(최우진) : 그렇습니다.

(나) 제2차 접촉 : 1991. 12. 28(토), 판문점 「평화의 집」

북(최우진) : 내가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우리 26일날, 소식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남 : 애기 들었지? 우리 이쪽에 채택된 것.

남(林東源) : 비준.

북(최우진) : 그럼.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남(李東馥) : 아, 그렇게 비준하는 방법도 있네요?

북(김영철) : 성격에 따라서 민족문제를 다루는 법을 다루는게 다르고. 또 이런 국제기구를 다루는 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런 성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각이합니다.

남(李東馥) : 그런데 우리가 그쪽의 법을 조금 연구해 보고, 필요한 부분을 연구

* 직승기 : 기관에 의하여 수평회전날개로 뜨고 나는 항공기

해 보는데 그 조약이나 협정에 대한 비준이 반드시 최고인민회의에서 하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최우진) : 최고인민회의 거쳐야 될 것도 있고, 또 이쪽의 절차상 그런 절차도 있고, 또 주석 비준 절차도 있고 각이합니다.

북(최우진) : 남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국회 비준입니까?

남(李東馥) : 우리도 이제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요. 가령 국가간의 조약은 그것은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고 이거 우리처럼, 합의서의 전문에 있는 것처럼, 민족 내부문제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런데 일부 의견은 사안이 중요하니까 준(準)비준, 이런 궁색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최우진) : 그래서 예견하는 것은 필로 예견합니까? 이번에 우리 합의서, 비준할 것은 어디서 할 것을 예견하십니까?

남(李東馥) : 예견은 뭐, 잘 비준되는 것으로 예견하지요.

북(최우진) :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남(李東馥) : 국회에서 지지결의를 받고 그리고 비준하게 되겠지요. 당연하지요.
국회가 국민들의 대표가 모인 데니까.

(2)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가) 본 회의

〈환 답 자〉

우 리 측	북 측
〈위원장〉 孔 魯 明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위원장〉 최 우 진 (외교부 순회대사)

① 제10차 회의 : 1992. 11. 18(수), 판문점 「평화의 집」

남 : 근데 북쪽에선 뭐 내일부터 큰 대회가 열린다고 그러대, 최고인민회의?

근데, 우리 북쪽 연구가들 얘기는 1년에 보통 1번씩 하는데 금년엔 두번 열린다고 그러는데 뭐 큰 좋은일 있습니까?

북 : 그런데 그, 저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가 좀 부족한거 같구만.

남 : 어, 그래요? 공부 잘 못했구나.

북 : 공위원장한테 뭘 좀 정확한 걸 이렇게 말씀드렸어야 되겠는데. 그건 1번도 하구 두번도 하구.

남 : 아니, 글썄 헌법상으론 뭐 두번 하는 걸루 돼 있더라.

북 : 그럼, 그렇게 돼 있다가.

그거 공위원장 헌법 보셨으면, 지난 4월에 했으니까 또 이거 한번 하구.

남 : 아니, 나두 소련에서 소련헌법보니까, 일년에 두번하기로 돼있데.

북 : 음, 그러니까 우리 한번도 하구 두번도 하구 이렇게 하는거지 뭐.

그래서 우리 최고인민회의에 이렇게 무슨 다른.

남 : 근데 오래간만에 한다가 그러던데 그 두번 하는 것은.

북 : 아니, 한 예도 좀 있다가.

남(鄭泰翼) : 88년도에.

남 : 그래 뭐 이번에 좋은일 있어요?

우리 최위원장 또 뭐하나 되는거요?(일동웃음)

북 : 보도를 좀 들어보고 그러면 이제 아시겠는데, 뭐.

난 공위원장 가만 보면, 근데 이번에 대통령후보로 출마 안했습니까?

남 : 아, 이거 큰일날 이 양반 이거.(일동웃음)

북 : 이번에 출마했어도 지지는 하나 받을거 같애.

남 : 이 양반, 이거 이나마도, 이것까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거구만.

북 : 왜 대통령후보야 뭐 지금은 8명인가 출마했는데 뭐 9명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이젠 늦었나? 이젠 좀 늦긴 늦었지.

남 : 대통령은 하늘이 주는거지 자기가 한다고 해서 되는거 아닙니다.

북 : 아니야. 그건 내가 지원좀 해주면 된다구. 이거 공위원장 지금 수고 많은데.

대통령 되게 되면 북남관계 개선에 많이 기여할 수 있겠다. 북남관계 개선, 통일 이거 중요한 문젠데 그거 왜 안되겠어.

남 : 그건 북쪽에 가서 해야지 도움을 받지, 남쪽에 와서 우리 최위원장한테 도움 받을 수야 있나.

북 : 아니, 내가 좀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이야기 하는거지. 그렇게 하면 지지좀 받을 거 같애.

남 : 음, 그러다간 북쪽에 가서 한번 출마를 해 봐야겠다.

북 :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후보들이 유세하는거 보니까, 주로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가 많이 관계되는거 같더라. 근데 서로 너무 비난해. 그 인신공격 하는 식으로 이런것도 있구 말이야.

남 : 하여튼 뭐 인제.

북 : 좀 점잖지 못한게 있두만. 그래서 공위원장이 되게 되면 그렇게 안하구서 점잖게 돌아다니면서 선거유세를 하게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질 않겠는가 생각하구 말이야.

② 제12차 회의 : 1992. 12. 10(목), 판문점 「평화의 집」

북 : 남쪽에서 이젠 선거날짜 정해졌드만요.

남 : 그래요.

북 : 그래 공위원장은 누구 지지 합니까?

남 : 여기서 이야기 하게 되면 그것은 비밀투표가 아니게?

북 : 안되나? 그건?

남 : 우린 비밀투표를 하거든.

북 : 아, 그래도 나한테 좀 이야기해주지 뭐.

남 : 이따 조용하게 이야기할까요?

북 : 조용히?(웃음)

그런데 나는 왜 물어보냐면 공위원장이 이제 또 선거를 해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고 이렇게 되면 공위원장도 또 자리를 내놓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또 다른 대상으로 맞닥뜨리면 이것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아는 것인데 내가 그대로 뒤통도록 어떻게 좀 노력을 해보나 하는 생각도 있고.

남 :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사귀기 전에 우리 그동안에 현안으로 되어 있던 것 빨리 빨리 해결해 놓으시는 것이 아마 유리할거예요.

북 : 내가 오늘 제기하는 것 그저 한두마디만 제각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제각 풀릴 수 있어.

남 : 내가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 내용을 들어봅시다.

북 : 미주국장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부터는 이렇게 뭐 정부교체에 관계 없습니까? 없지요? 대개 차관까지 그렇게 되지요?

남(鄭泰翼) : 관계 없습니다.

북 : 그런데 미국에서 공화당정권이 민주당정권으로 교체되면 저쪽에도 밑에 사람은 일없을 수 있으니까.

남(鄭泰翼) : 우리 저 최위원장님은 신문을 열심히 읽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잘 안읽으신 것 같어요.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도 대한정책, 또 미·북한관계

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북 : 아니, 나는 사람이 새 분으로 이렇게 맞닥뜨려가고 하게되면 어떻게 서먹서먹 할 것 같기도 하고 뭘 뭘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번에 보도를 보게되면 그쪽에 대통령들 출마하기 위한 것을 이렇게 후보들 당선되고나면 뽑는다든지, 무슨 추천회의라든지, 뭘 할때 보게되면 남쪽에서도 보면, 공화당 계통에서 회의할 때는 보내고, 민주당 계통에서 할 때는 보내지 않고 이래서 또 미국 민주당계열에서는 뭐 좀 속이 언짢아서.

미주, 귀족에서 워싱턴에 가 있는 대사한테 가서 뭐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 말 이야. 그러니까 나는 미주담당 국장이 어떻게 잘 돼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난다고.

남(鄭泰翼) : 아, 그 부분도 우리 최위원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주미대사가 양당 전당대회에 다 참석을 했고 국회의원도 국민당이 다 갔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정국 상황이 있어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못가셨지만.

북 : 민자당에서는 가지 않고?

남(鄭泰翼) : 그 때는 상황이 민자당, 민주당 다 그 때는 못갔지.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주미대사가 참석을 해가지고서 다 청취를 했어요.

북 : 민자당이 안갔으니까, 민주당이 싫다고 그러지, 뭐.

남 : 뭐, 또 가만히 보니까. 최위원장은 저렇게 이 남북회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보다 딴 일에 걱정이 많아.

아니, 그런데 그렇게 걱정이 많은 양반은 머리가 있고 왜 나같이 걱정안하는 사람은 머리가 없지?

북(최우진) : 앞으로 연구해보면 알 수 있지.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데 머리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대신에 머리가 좋다는 말이 있어. 왜 그러냐면 머리 번들어진 사람은 달구지꾼은 없으니까.

남 : 그럼 나도 그 덕분에 머리가 좋아져야 겠는데, 이제 뭐 늦었지. 뭐 좋아지기는.(웃음)

5. 특산물 · 명승지

5. 특산물 · 명승지

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1) 본 회 담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수 석 대 표〉 宋 漢 虎 (국토통일원 차관)	〈단 장〉 백 남 준 (정무원 참사)

(가) 제2차 회담 : 1989. 3. 2(목), 판문점 「통일각」

북 : 처음 오셨으면 오미자 좀 마시지요. 오미자라는 것이 다섯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오미자입니다.

신맛, 짠맛, 매운맛, 단맛, 그 다음에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 : 회담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차도 주시고.

북 : 동맥경화도 방지하고 로화도 방지하고 아주 좋은 건데 오미자 잎하고 순, 이것을 가루로 빻아서 조미료로 쓰면 아주 좋습니다.

남 :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신덕수 좀 준비했습니까?(일동 웃음)

신덕수 맛이 있던데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북 : 그래서 우리쪽에서는 오미자가 어느 지방에서든 다 납니다.

신덕수를 송선생이 좋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신덕수 나는 지방에 사람들은 다 장수합니다.

남 : 용강입니까?

북 : 예, 남포시 용강.

장생하는데는 물이 좋아야 합니다.

북 : 송선생의 신덕수 욕구를 충족시키자면 빨리 통일이 되어야겠습니다.

남 : 그야 물론 빨리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닙니까?

(나) 제4차 회담 : 1989. 11. 15(수), 판문점 「통일각」

북 : 얼마전에 금강산에, 강원도에 내려갔다 왔어요. 가니까 날씨가 좋다니니까 단풍이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저 만폭동 있죠. 거기에 봉래 양사언이가 그 바위에 썼는데 봉래, 풍악, 만폭동이다. 정말 금강산 가운데서도 만폭동의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양사언은 원래 아주 호방한 기개를 간직한 시인이고 열렬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 왜 시가 있지 않습니까.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뉘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뉘만 높다 하더라』.

남 : 오늘 시적으로 나가니까 오늘 회담 잘 되겠구만.

북 : 아마 양사언이 지금 살아 있으면, 『분단의 장벽이 제 아무리 높다한들 민족이 제 마음먹고 힘을 합치면 못 허물리 없으리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남 : 금강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서산대사가 말씀하시길 금강산은 빼어나기는 한데 웅장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리산은 웅장한데 빼어나지 못하다. 대신에 묘향산은 아주 빼어도 나고 웅장도 하다고. 아마 서산대사께서는 묘향산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강산은 옛날 신라시대에 우리 화랑들이 호국훈련을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마지막 도착지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제사도 지내고 노래와 춤도 추고 그렇게 되었었죠. 그래서 유명한 산인데 옛날 해방되기 전에 거기에 절이 아마 한 40여개가 있다, 그렇게 돼 있었고.

거기에 서산대사나 사명대사의 능, 유적지도 있고 마의태자의 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있습니까?

북 : 다 있습니다.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것도 큰 관리소가 있어 가지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남 : 아주 잘 돼 있겠구만요.

북 : 그래요. 세상사람들이 지리산은 몰라도 금강산 하면 조선을 아는 것 같아요.

남 : 금강산이야 한민족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명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측도 금강산 한번 구경하고 싶고 또 그럴려면 자연스럽게 남북간에 이렇게 개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 제6차 회담 : 1990. 1. 31(수), 판문점 「통일각」

남 : 그쪽 사과도 맛있던데요? 내가 평양에 1985년도에 갔을 때보다도, 그때 먹던 사과보다 많이 개량된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는 사과입니까?

북 : 「황주」

남 : 「황주」? 옛날부터 「황주」가 사과 명산지죠?

북한에서는 「황주」하고 함경도의 거기 어디입니까?

북 : 북청.

남 : 북청. 예, 북청이 사과 잘 되지요.

북 : 지금은 황해남도 「과일군」, 「과일군」이라고 해가지고.

남 : 「황주」가 황해남도입니까? 황해북도입니까? 황해북도죠?

북 : 예, 그리고 황해남도에는 「과일군」이 있어요. 한개 군이 전체가 과수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과, 배를 비롯한 과일류들을 심고 있어요.

전번에 송선생이 보내준 꺾은 사과도 먹어 봤는데 꺾은 맛은 북의 꺾은 사과나 그 앞의 꺾은 사과나 뭐 다름은 없더구만요. 황해도도 사과 많이 생산합니다. 그거 아주 단연.

남 : 아, 그래요? 그것 이렇게 「비닐」에다가 생산합니까?

북 : 예. 지금은 대체로 온실 그런.

남 : 「비닐 하우스」로?

북 :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괜찮게 달리고. 차츰 기후에 익숙시켜 가지고 바깥에다 내야 하는데 잘 돼요.

본래 송선생 아시겠지만 양강도 백두산 밑 같은데야 옛날에는 사과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북송아도 없고. 그런데 해방후에는 그쪽에서는 사과, 북송아 다 심

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 개량했어요.

남 : 우리는 대체로 제주도에서 곶이 나죠. 제주도에서 이제 보통 연간 한 50만톤 정도 생산하는데 작년의 경우는 아주 풍년이 되어가지고 한 70만톤을 생산했어요.

그런데 풍년이 되어 가지고 생산업자가 가격이 좀 적정수준을 유지하면 좋은데 예년보다 오히려 더 폭락을 해서 별재미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 : 인민들은 좋아할 것이고.

남 : 그래서 사실 제주도의 감귤 생산자들간에 이런 말을 해요. 한 2만톤만 귀족에다가 보내면 귀족 주민들 한 세대당 한관 정도씩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 관정도 한 세대당.

그래서 이제 빨리 우리 남북간에 물자교류의 길도 트여 가지고 그렇게 귀족에다가 이제 감귤도 보내서 국민들이 싼값으로 감귤도 맛볼 수 있고 또 우리 생산업자들은 가격폭락도 좀 막고 하면 서로 상호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남북고위급회담

(1) 본 회 담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수 석 대 표〉	〈단 장〉
姜 英 勳 (국무총리, 1차~3차) 鄭 元 植 (국무총리, 4차~8차)	연 형 목 (정무원총리, 1차~8차)

(가) 제2차 회담 1일회의 : 1990.10.17(수), 평양 「인민문화궁전」

남 : 이번에 와서 대접을 받아보고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데, 뭐 특별 초대소라고 하던가요? 음식을 얼마나 그렇게 참 산해진미를 해주는지, 이 걸 먹어 보면서 연총리 요전에 왔을때 대접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되더라구요.

북 : 앞으로 내가 갈 때는 대접을 좀…….

남 : 열심히 좀 잘 해드리겠습니다.

북 : 서울에서 자시던 음식보다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남 : 아,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제 처음 먹었지만 감자떡.

아주 즐깃 즐깃하고 맛있고. 지방의 특산품이라고 그러던데. 자강도.

북 : 양강도겠지. 양강도가 감자로 아주 유명한 곳이지.

남 : 감자 하나가지고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고, 민족의 우수성이라는게 그런데 음식하나에서도 솜씨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먹었습니다만, 오래간만에 김치도 아주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북 : 서울에서 하는 김치보다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남 : 그게 내 입에는 꼭 맞는 것 같습니다.

(나) 제2차 회담 2일 회의 : 1990.10.18(목), 평양 「인민문화궁전」

남 : 평양가면 평양냉면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맛이 다르더군요.

그 뭐인가. 모밀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쫄면은 안 잡수시는 모양이지?

북 : 쫄면이요?

남 : 평양냉면하면 이제 쫄면이 나와야 하는데.

북 : 쫄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쫄면이 나올 때는 안 되었으니까요. 가을이 끝나고 좀 차지고 산에 먹을게 없을 때 쫄면이 밭에 나오거든요.

남 : 그렇지요.

북 : 밭에 나올 때 잡지, 산에 있는데야 어떻게 잡겠어요. 나무속에 있는 거.

남 : 옛날에야 산에 있는 것도 막 갖다 주워 가지구선.(웃음)

북 : 그렇게 해가지구 식탁에다, 난 보지 못했어요.(웃음)

남 : 그런데 쫄면고는 없어도 육수국을 어떻게 맛있게 했던지 말이예요. 무슨 고기를 쓰는지 아주 맛있더라구요.

북 : 소고기 국물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남 : 하여간 잘 먹었습니다.

북 : 예. 본래 남측에서 온 손님들은 와서 서너그릇씩 잡수신 분들이 많은데, 어디 한 그릇밖에.....

남 : 분량이 한 그릇이라고 갖다 주는데 남쪽의 두어그릇은 되드라구요.(웃음)

북 : 우리 그릇이 크지요.(웃음)

남 : 그래 평양인심이 좋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다) 제4차 회담 2일회의 : 1991.10.24(목), 평양 「인민문화궁전」

남 : 오늘은 여기 평양에 왔다가 냉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야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옥류간 냉면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북 : 어제 내가 차안에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 알아보니까 오늘 점심에 물려있네.

남 :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는 냉면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북 : 평양냉면 맛을 보고 가서야 될 것 같아요.

남 : 아, 그럼. 평양에 와서 평양냉면 먹고 가야지요.

북 : 지금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냉면 질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수 맛 들이는데는 몇가지 보충적인 비결이 있지요.

우선 소문내야 되고, 소문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남 : 아니, 그런데 옥류관은 서울에서 소문났어요.

북 : 소문났지요.

그 다음에 시기를 길게, 다 앓은 다음에, 앓자마자 주지 말고 찬찬히 좀 있다가 줘야.

남 : 국수를 그때 눌러줘야 되니까.

북 : 한참 있다가 눌러줘야 돼요. 좀 배고플때.

(라) 제5차 회담 2일회의 : 1991.12.12(목). 서울 워커히호텔 「무궁화홀」

북 : 「롯데 월드」 민속관, 그것도 재미있어요.

남 : 북한술도, 아침신문 보니까, 파는거. 거기만 아니예요. 백화점에 「북한코너」라는게 있어 가지고.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용성맥주」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인삼술」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어요.

북(김정우) : 총리선생! 우리가 가보니까 말입니다. 이제 남쪽에서 세관통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 : 아! 그래요.

북(김정우) : 그 동북지방에 있는 조선민족들이. 북쪽 술이라고 만들어 가지고서 남쪽에다 무관세로 넣는게 있는 거 같습니다.

남 : 그 술만 아니라 인삼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쌍방 웃음). 고려인삼이라고 있어.

북(김정우) : 일이 잘돼서 직교역이 되면 들어오는데, 아직 직교역이 없는데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금패인삼술」이라고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금패」라는 말 안씁니다.

남 : 아! 그래요?

북(김정우) : 보나마나 중국에는 그런 「패」자를 많이 붙이는데 동북지방 사람들이 술을 만들어서 이쪽에다 팔면서, 또 남쪽에서 사오는 사람들은 관세없이 받자니까, 아마 그 북쪽술이다. 이렇게 해서 들여오고. 요새 「팔」문제, 「땅콩」문제 뭐 거론할 게 많습니다.

남 :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있을 거예요. 그런게.

북(김정우) : 우리 때때로 통신보면 말입니다.

우린 팔지 않았는데 남쪽에서 「팔」을 뭐 몇천단 사갔다. 그 다음에 「땅콩」을 사갔다. 그래가지고 알아보게 되면 관세를 안 물라고, 상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남 : 그거 그렇겠어요.

남(金宗輝) : 북쪽에서 나왔다고 찍혀 있는 거도 아니고.

북(김정우) : 그래요. 보면 모르죠.

남 :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 중국에 있는 교포들 들어오면, 전부 한국동포란 말이에요. 너무 심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뭘 좀 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모처럼 고국이라고 찾아오는데 일일이 짐 다 뒤질 수도 없고 말이죠.

북(김정우) : 무역하는 건 통제해야 됩니다.

북(김광진) : 북한코너에다가는 진짜 북한상품만 놓아야지. 가짜 북한 거 놓지말

고.(쌍방 웃음)

북(김정우) : 있다고 하게 되면, 초청을 하면 내가 와서 분별을 좀 해주든가.

남 : 그렇지.(웃음)

남(李東馥) : 우리 김정우 대표께서 감정을 좀 많이 해주시고 가시면.

북(김정우) : 원래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한 조건에서 계약을 하고, 그걸 보고 관세를 면제해 주고. 원래 무역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남(宋漢虎) : 그러니까 그건 상주연락대표부가 생기면 그렇게 해줄 테니까.(쌍방 웃음)

(2) 제4차 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가) 제2차 접촉 : 1991. 8. 10(토), 판문점 「통일각」

남(宋漢虎) : 내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기대를 갖는 것은 이 신덕샘물이라구.(쌍방 웃음) 이게 참 좋아요. 여기서 내가 북쪽땅에 들어갈 때 항상 기대하는 거는 신덕샘물하고 또 하나는 여러가지로 좋은 음식들 대접을 해서 잘 먹는데.

그전에 내가 한번 여기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송어국, 그게 맛이 좋았습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북(백남준) : 지금 단고기 맛은 못 봤어요. 아직은 단고기 잡숯겠다는 소리는 안하누만.

남(宋漢虎) : 8월 27일에 가면 송어국이 나오겠는지? 요새 송어국이 잘 안나오는 모양이요.

북(백남준) : 해요

남(宋漢虎) : 그 다음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는 이제 말한 그 단고기를 다 이야기기하데. 고위급회담을 갔다온 사람들이라든가, IPU총회에 갔다 왔던 국회의원들이 한결같이 단고기에 대해서는 아주 극구 찬양을 하더구만.

북(백남준) : 단고기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건 조금도 찬양 안해요?

남(宋漢虎) : 찬양하고, 우리 백선생하고 최우진선생에 대해서 다들 아주 짐작다고 평을 하고.

다. 남북 핵관련 회담

(1) 「비핵화공동선언」 채택을 위한 대표접촉

(가) 제2차 접촉 : 1991. 12. 28(토), 판문점 「평화의 집」

남(李東馥) : 언제 한번 개성에 들리는 길에 박연폭포를 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 기자들이 더 희망한다구요.

그전부터 기자들간에 얘기가 오가는 게 있을 거예요. 언제 한번 지나가는 길에 박연폭포 한번 좀 들려서 넘어오게 하든지, 그런 얘기가 아마 기자들간에 상당히 오가고 있을 것입니다.

요 다음에 기회있을 때, 판문점에서 회의할 때 기자들 들어오는 기회있으며 한번 좀 주선해 주시든가, 그 박연폭포, 여기서 가는데 한시간쯤 걸려요?

북(최우진) : 한시간 안 걸려요.

북(김영철) : 달라진 세상인데, 앞으로 자주 왕래가 찾아지고 하면 그런 문제쯤이야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남(李東馥) : 아니, 우리가 평양회담 때문에 오가는 길에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판문점에서 할 때.....

북(최우진) :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의서도 발효시키고 이런 것 쪽 되면, 그런 것은 종전에는 힘들었다면 앞으로 가능할 수 있어. 가능할 수 있지요. 우리 대변인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건데.(웃음)

남(李東馥) : 난 기자들 가는데 따라가니까.(웃음)

북(최우진) : 아니, 원래 대변인선생은 기자들하고 상대하니까 상당히 기자들의 사정을 봐주시느만, 왜 그러냐 하면 대변인이 기자 사정 봐줘야지, 기자 사정 안 봐주고 그랬다가는, 그 다음에 나와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또 뭣이라 할 수 있지.

(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가)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 원 장〉 孔 魯 明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위 원 장〉 최 우 진 (외교부 순회대사)

① 제7차 회담 : 1992. 7. 21(화), 판문점 「통일각」

북 : 오늘 기온이 좀 떨어졌어요. 서울은 덥죠?

남 : 더워요. 굉장히 무더워요.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밤이로구만. 밤에도 29도, 30도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북 : 이 삼복더위는 남쪽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북쪽에서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 뭐인가 하면 단고기 식사하는거야, 말하자면 그 개장이지, 단고기. 그거 하게 되면 더위도 안타고 아주 건강하고, 그래서 공위원장 어디 삼복더위에 단고기 좀 잡숴봤어요?

남 : 개고기는 난 입에도 안대요.

북 : 그러기 때문에 개고기 아니라 단고기라니까, 우리가 구라파에서 온 분들한테 이름을 단고기하고 내놨거든, 단고기하면서 먹어보라 맛있다고 말야. 그래 다 먹은 다음에 이게 무슨 고기인가 그래서 개고기라고 그러니까, 야, 안먹는걸 먹었다고. 그 다음번엔 슬그머니 와서 단고기 달라고 그러고 말야. 그 이름을 모르고 잡숴보면 좋다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대개 휴가를, 휴식하는데 대개 어느달에 합니까? 우리는 대개 7, 8월 더울 때 많이 하는데.

남 : 우리도 7, 8월에 많이 하지.

북 : 7, 8월에 많이 하죠. 주로 공위원장은 어디에 많이 다닙니까?

남 : 난 휴가 안갔어요. 우리 최위원장 휴가 안보내줘서, 내 휴가 못갔어요.

북 : 그럼 금년에 우리가 휴가 보내 올리지요. 우리도 7, 8월에 많이 하는데, 우리는 등산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두산 쪽엔 선선하니까, 그 다음에 해수욕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산, 금강산 쪽으로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평양 사는 사람들은 멀게 되면, 가기 불편하면 남포쪽으로 와서 와우도쪽으로 가서 해수욕 하고, 확실히 평양도 여름에는 평양시 안쪽에 있는 게 조금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북더위에는 교외로 빠져 나가면 상당히 좋고 그런건데, 특히 우리는 남쪽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휴양소를 많이 지어놨으니까, 백두산 같은데, 묘향산 같은데, 원산, 금강산 다 요양소 지어놓고, 그러니까 그런거 다 일부러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가 휴식하고 이런 건데 난 이거 공위원장이, 그러면 공위원장 덕분에 나도 휴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원래 금강산지구를 좋아해서 금강산 가게 되면 산악에 올라가기도 하고 삼일포에 가서 해수욕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내 서울 올라갔을 때 보면 삼일포란 담배있어요, 금강산 호수라고, 그래서 너무 경치가 좋아서 옛날에 왔다가 그날로 갈려고 그러다가 삼일밤 자고 갔다고 해서 삼일포인데, 거기도 물이 좋고 공기 좋고 해서 좋다고.

남(李富植) : 이번에 핵통제위원회들 전부 한번 초청하시죠?

북 : 그렇게 할까?

그러면 오늘 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표창휴가란 게 있다고, 표창휴가로서 우리 공위원장을 비롯해서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금강산장에 가서 놀 수 있어.

북(김수길) : 명사십리도 좋아

남 :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가 이제는 크게 진전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최위원장 짐이 무거워요.

6. 여 론 동 향

6. 여론동향

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1) 본 회 담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수 석 대 표〉 宋 漢 虎 (국토통일원 차관)	〈단 장〉 백 남 준 (정무원 참사)

(가) 제4차 회담 : 1989. 11. 15(수), 판문점 「통일각」

남 : 알다시피 우리 언론이라든가 혹은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지난 9일날 동독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비롯해서 동독의 모든 국경을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서독으로 이동하는 동독의 여러사람들의 이동을 아주 크게 환영하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동독의 관영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ADN통신을 보면 그런 개방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벌써 500만명에 대해서 서독행 비자를 발급했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에만 하더라도 300만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을 다녀왔다.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동베를린의 시민들이 말이지 서로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고 껴안고 춤추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장면들이 보도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쇠파망치, 도끼 등을 들고서 베를린 장벽을 부수는 이런 장면들이 아주 다 방영되었는데, 그 장면을 본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개방과 개혁의 바람이 불고 또 국제정세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 우리 한반도만 이런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도 이제 뭔가 서독처럼 이산가족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러다보면은 분단의 고층이라든가 불편 등이 많이 해소될 것 아니냐.

북 : 보도 보니까 자유개방조치 취하기 전에, 전에 넘어간 사람 가운데서 거기 정착하려고 간 사람은 100%였는데 자유개방조치 취한 후에 넘어간 사람 가운데 정착한 사람은 0.2%예요.

남 : 그래, 한 만명, 만여명 정도가.

북 : 그저, 이 남북관계도 그저 개방만 하면 됩니다.

한번 그쪽에서 개방할 의지가 있다면 실천을 한번 보여야.

남 :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부당국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모두 서로 협약을 맺자 이거지.

북 : 군사분계선도 없애버리자, 문 다 열어놓자, 우리는 문 다 열어 놨단 말이야.

담을 쌓고 요거 가로막는 거야 그쪽이지 뭐.(일동 웃음)

그래서 이거 회담 빨리 잘해서, 우리 송선생도 왔다 금강산에 같이 동행하자, 묘향산에도 가고,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오고 가고 싶은 사람은 다가고.

(2) 실무대표접촉

(가) 제1차 접촉 : 1990. 7. 6(금),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남(辛成梧) : 국내외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도도 많이 나오구요.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 합의가 됐으니까 오늘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북(최우진) :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예비회담 날짜가 확정되고, 이미 정해진 게 아닙니까? 본회담도 이제 저로서도 상당히 아주 기쁘구, 또 아주 상당히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구.

남(金保鉉) : 동감입니다. 보람을 느끼죠.

북(최우진) : 그렇지요. 90년대 통일의 돌파구를 이젠 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선생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3일날 예비회담이 이렇게 잘 되는데 대해서 내외적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을 들으면서 오늘 실무접촉을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나. 남북고위급회담

(1) 본 회 담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수 석 대 표〉	〈단 장〉
姜 英 勳 (국무총리, 1차~3차) 鄭 元 植 (국무총리, 4차~8차)	연 형 목 (정무원총리, 1차~8차)

(가) 제2차 회담 2일회의 : 1990.10.18(목), 평양 「인민문화궁전」

북 : 어제 우리가 2차 회담 첫날 회의를 했는데 서울측에서는, 보도계에서는 어떻게들 말하고 있습니까?

남 : 보도? 뭐 잘 진행돼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 : 잘 진행된다고 그러니까?

남 : 『한 술에 배부르겠느냐』하는 말도 있듯이 갑자기 뭐이 다 척척척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선 우리가 상대방의 그러한 입장과 시각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가 뚜렷하다는 것이 표현되는 그 자체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곁해서 오늘도 부쩍 잘 합시다.

북 : 잘 합시다. 그런데 여기 평양시 주민들은 어떤 평이 있는가 하면 말입니다.

남 : 잘 안 됐다고 그래요?

북 : 북남고위급회담 이라는게 이 「고위급」이 달려서 회담수준도 대단히 높은 줄 알았는데 회담수준이 대단히 낮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준이 낮다구요.

남 : 교육을 어떻게 그렇게 시켰어요? (일동 웃음)

아니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밥 먹는데, 그 밥해 주는 아가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실망했다고.

북 : 실망했다고 그래요? 그래 무엇때문에 실망했는지 모르죠?

그 각자들이 결합을 찾아야 돼요.

남 : 아니, 45년간 우리가 이런 대립된 상태를 어떻게든지 결합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된다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걸 그렇게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서 한 발자국을 전진했고 평양에서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을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해 주셔야지, 『우리 주장한대로 남쪽에서 온 친구들이 이거 말 안 들어주니 말이야. 이거 다 글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회담이 되겠어요?

북 : 전에 서울에서 올라올 때 선물보따리를 좀 큰 걸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우리가 나갈 때는 선물을 큰 걸 가지고 나갔는데.

남 : 우리 지금 대표들 얼굴들 보라구요. 활짝 웃는 얼굴을 보는게 이게 큰 선물이지.(일동 웃음)

북 : 우리 선물 가져간 것은 너무 커서.

남 : 난 연총리를 믿는게, 언제나 웃는 낮이거든. 그랬으면 됐다 이게야. 우리들이 항상 웃는 낮으로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이게 되어가는 게지.

그렇게 우리가 대국적 견지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하나하나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됩니다.

북 : 웃는 낮에 또 웃는 얼굴이고 마음도 웃는 얼굴이래야 되지.(웃음) 그건 그래야 됩니다.

남 :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쪽의 국민들은 역시 이게 하루 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만치 현실을 직시하고 역시 대표들이, 남북의 대표들이 차근차근히 서로 이해를 하고 하나하나 벽들을 쌓듯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게 우리 남쪽의 국민들의 기대요, 희망입니다.

(나) 제4차 회담 2일회의 : 1991. 10. 24(목), 평양 「인민문화궁전」

남 : 어제는 참 유익한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기자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귀측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귀측 기자들은.

북 : 어제 여기 대표 접촉하느라고 그쪽에서 세분 참가했지요.

밤늦게까지 하셨더구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최측의 대표들은 응당히 고생해도 좋은데, 손님들이 와서 밤늦게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제 좋은 문건 많이 채택했더구만요.

남 : 예. 정말 제가 어제 기조발언에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밤을 지새워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지. 교착상태를 더 이상 지속시킬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비추어 본다면 어제 12시까지 우리 백선생이나 최선생, 또 김영철대표께서도 많이 고생한 것 같습니다.

북(김영철) : 12시 20분까지 했습니다.

남 : 아, 그렇습니까? 자정을 넘겼군요.

북(최우진) : 어제 휴식시간에, 휴식을 두번 했는데 그때도 재미 있었습니다.

휴식시간에 환담할 때는 누가 서울에서 왔고 누가 평양에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휴식시간에는 다 통일됐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남 :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의기상통하고 투합이 됐군요.

북 : 회담하는 걸 가만히 반응을 따져보면 1차 회담할 때는 우리 북남 인민들이 다 그랬지요. 1차 회담때는 기대 상당히 컸고, 2차 회담을 하고서는 걱정했고, 3차 회담때는 실망하고, 이번 4차 회담때는 결과를 아직도 인민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될는지.

오늘 아마 이 회담 다 끝나면, 좀 기쁨을 준다고 말할 수 있어야겠지요.

남 : 그만큼 4차 회담에 대한 기대가 특별히 있다는 말이지요.

북 : 우리 인민들이 질문하는 거, 인민들이 요구하는 대답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다) 제6차 회담 2일회의 : 1992. 2. 20(목), 평양 「인민문화궁전」

북 : 이번 합의서 발효와 관련하여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남 : 마침 어제 말예요. 어제 남북사이에 정말 대화의 통로가 열린지 20년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만, 특히 연총리와 제가 문본을 교환하고 서명하고 하는, 그 다소 좀 의식적인 절차가 한 20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서울에 생중계가 됐어요. 생생하게 그 시간에 그대로 서울 시민에게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돼서 아주 대단히 깊은 인상들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는 생중계를 보지 못 했지만 중계된 것을 신문이 받아서 처음으로 남북사이에 텔레비전 생중계가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평양에서 축구 시합을 하거나 운동경기를 하더라도 생중계가 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 : 회담에 대한 내외인민들의 여론이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남 : 이쪽에서도 역시 비교적 긍정적이지요?

북 : 대단히 좋아하죠.

지난 4차 회담때까지는 좀 신통치 않은 회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5차 회담, 6차 회담을 겪어보니까 좋은 합의문건도 나오고 그러니까 대단히들 좋아합니다.

남 : 양측에서 다 좋아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야당들이 여러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환영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엔 연총리 이하 여러 대표들께서 참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남북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만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 :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데까지는 아마 한 1년 반 됐어요. 그 동안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7천만 겨레에게 기쁨을 주게 됐으니까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남 : 그렇게 됐어요. 제가 참여하기 시작한지는 작년 10월부터니까 불과 한 4개월 남짓됩니다만 그 동안에 정말 들어서 호흡도 잘 맞고 이래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2) UN가입관련 실무대표접촉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수 석 대 표〉 林 東 源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단 장〉 최 우 진 (외교부 순회대사)

(가) 제3차 접촉 : 1990. 11. 9(금),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남 : 우리 떠나오는 날 가두에 많이 나와서 환송을 해준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북 : 그건 우리 인민의 통일열망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면을 볼수록 우리들의 책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남 : 앞으로는 평양에 갈때도 나와서 환영을 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북 : 우리 인민들의 감정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하면 더 많이 환영을 하고 기대하고 좀 어긋나게 되면 잘 환영을 안하고, 그렇게 인민들의 감정이 예민하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게 되면 환영을 많이 받게 되겠습죠.

남 : 기대를 많이 한다는 뜻이 되겠죠?

북 : 그렇요.

다. 남북 핵관련 회담

(1)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가) 제1차 접촉 : 1991. 12. 26(목), 판문점 「통일각」

남(林東源) : 우리 남쪽에서는 독립적인 여론조사기관이 여러개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들의 합의서에 대한 반응을 조사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지지·환영,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북녘동포들은 반응이 어때요?

북(최우진) : 이번 합의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다 지지해요. 지지해도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남(林東源) : 그렇죠. 온 겨레가 다 그렇게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꼭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것이 실천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실천이 잘 될 것이다』,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대략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좀 두고 봐야 될 것이다』 그런 뜻을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가? 지난 46년 동안 서로 불신의 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실행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사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회담이 그런 뜻에서 중요한 회담이라고 보고 우리 대표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북(최우진) : 그렇습니다. 우리 70%가 이렇게 반신반의하면 나가서 잘 좀 해설을 해주십시오. 그거 의심을 안해도 된다고.

남(林東源) : 그런데 해설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잘 되면 저절로 믿게 되는 거니까.

북(최우진) :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서울 나갔을 때 대표접촉을 하고 본회담에서 도장을 찍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런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우리 대표들이 잘

노력하면 이 문제 타결도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갈 때도 보게 되면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이 합의서가 이번 5차에 타결되겠는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동원선생 뭐 70%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한 99%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합의를 탄생시켰는데 그 70%야 극복 못하겠습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다.

(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가)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 원 장〉 孔 魯 明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위 원 장〉 최 우 진 (외교부 순회대사)

① 제4차 회담 : 1992. 5. 12(화), 판문점 「평화의 집」

북 : 우리 이번에 서울회담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남 : 좋습니다. 최위원장! 같이 판문점 자동차 타고 오면서 봤지만 연도에 우리 시민들이 손 흔들어 주고 웃고 박수쳐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 : 그런데 반응이 국제적 반응도 물론 북남이 반응이 다 좋고 국제적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게 우선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들을 몇개 만든게 있고 또 연락사무소 구성을 위한 합의서를 만들고 그러면서 보면, 특히 남북에서 반응이 좋은게 북남합의서가 채택된 이와 같은 현시점에서 우리가 첫 선물로서 노부모 방문단, 또 예술단 방문단을 할데 대한 교환장, 이거 첫 선물은 우리측이 내놨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게 특별히 반응이 남쪽에서 좋더라 말입니다.

남 : 그건 이산가족 문제니까.

북쪽에서 왜 우리 수석대표께서 누차 강조하는 이산가족 문제의 절박성, 그것을 잘 듣지 않으셨던 모양이로구만. 실증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그 좋은 반응을.....

북 : 아니야. 이번에 남쪽에서 이산가족 문제 실제 관심이 있는가 했는데, 말로는 지난 시기 많이 표시해 왔는데 이번에 남측 그 발언 있잖아요. 거기 이산가족

문제 없다가 그 어떻게 펜으로 첨가해 넣었던데 마지막에. 리산가족을 비롯한 무슨 정계, 사회, 무슨 종교인, 무슨 경제인 이렇게 해서 축하단인지, 무슨 8.15에 교환하자. 리산가족 문제 한마디도 없던 것, 첨가해 가지고 제기했더라고. 우리가 노부모 방문단 한다는 것 미리 알려줬더니. 그 보면 말로는, 실천행동은 남쪽의 리산가족문제도 사실은 관심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 못해. 우리 실제 선물 있잖소.

남 : 최우진위원장이 기억력이 저렇게 좋은지 알았더니 그냥 또. 아니, 발언은 누가 먼저 했기에. 우리 총리께서 먼저 하셨지.

북 : 아니, 그쪽 발언을 펜으로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더라고. 준비한 데는 없고, 저 준장님이 인정하는데 뭘 그래.

남(李富植) :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거.

북 : 내가 말하자는 것은 세상이 다 우리 첫 선물로 내놓은데 대해서 좋아 하는데 그런데 남쪽에서 보도 나온 것 보게 되면 그 선물을 우리가 첫 선물을 내놨으면 누구나 다 좋다고 그러고, 또 선물은 남쪽에서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거는 무슨 북에서 대미, 대일 관계하고 관계되는 것 같다, 국제정세의 무엇하고 관계되는 것 같다 하면서, 우리가 선물로 내놨으면 고맙다해야 되고 감사히 받았다고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또 다르게 분석하면서 우리를 좀 이렇게 자극해 볼까 하는 그런분들도 있드만, 그래서 돌아가서 말씀 하시라요.

우리가 아무리 큰 선물이건 작은 선물이건 이렇게 내놨으면 받을 때는 다 감사하다 그러고 그 문제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고. 그게 있더라도. 내가 어제 그저께도 보도 들으니까 그렇게 나와.

남 : 아니, 그런데 최위원장! 우리 민족의 좋은 풍습 하나는 생색을 안 내는게 좋은 풍습이라고, 덕이 있는 거라고. 그 선물 좋은 거 나왔으니까 선물은 좋으니까, 연도에서 국민들 환영하고 박수치잖아요. 그중엔 선물은 고맙지만 그거만 내놓지 말고 이산가족 1천만이나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길이 신작로 같이 트이라 이런 얘기로 한 것이지.

북 : 그런데 남쪽은 무슨 선물을 마련했겠는가 했는데, 선물 마련 안했더라면 이번에 7차 회담에, 마련 안하고 그래서 평양에 올 때 무슨 선물을 또 마련해 가지고 오겠는지 하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한 서너달 기다려 볼라고 그러합니다.

남 : 연락관 회의에서 이번에 선물 없다고들 합의했다고 그러더니 무슨 또 선물은 기대했던 모양이지요.

북 : 공위원장! 하여간, 정치적인 선물하고 무슨 다른 선물하고 지금 혼돈된단 말 이야. 지금 시작할까요?

(나) 위원접촉

① 제6차 접촉 : 1992. 10. 14(수),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남(鄭泰翼) : 오늘은 우리가 사회를 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빨리 장내를 정리 해 가지고서 바로 토의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북(박광원) :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공개로 합니까? 비공개로 합니까?

남(鄭泰翼) : 관례에 따라서 비공개로 합시다.

북(박광원) : 한번 좀 공개로 해 봅시다. 기자선생들이 직접 한번 보고서 보도기사 도 좀 쓰고 좋겠고.

남(鄭泰翼) :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 귀측 언론보도를 보니까, 토의된대로 보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박위원장 일방적인 얘기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도를 해서는 안돼요. 있는대로 우리가 토의한대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박광원) : 그래서 우리 위원접촉이 오늘 14번째 아닙니까. 공동위원회까지. 지금 겨레가 공동위원회 지금 뭘 하는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궁금해 하고도 있고 우려도 표시하고 있는데 한번 직접 보고 그렇게 합시다. 요전에 정부위원장이 자꾸 우리 보도 시비를 하던데, 귀측보도는 완전히 왜곡이야.

남(鄭泰翼) : 무슨 소리야. 박부위원장! 우리 보도 잘 읽어 보시기나 하셨어요? 그 보지도 않고서 얘기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북(박광원) : 보도야 다 들으면 되지. 더 읽겠나.

남(鄭泰翼) : 우리는 자세히 있는대로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의라는 것은 우리 비공개리에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이 생산적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박광원) : 정 걸리면 귀측의 요구대로 합시다.

남(鄭泰翼) : 자, 장내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남(鄭大圭) : 오늘 따라서 빨리 장내정리고 안되고 하는 거는 뭐 좀 분위기가 어 수선해지는데요. 왜 이러나.

북(박광원) : 좀 들었으면 하는 모양이야. 기자선생들도.

7. 남북회담 관련사항

7. 남북회담 관련사항

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1) 본 회 담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수 석 대 표〉 宋 漢 虎 (국토통일원 차관)	〈단 장〉 백 남 준 (정무원 참사)

(가) 제3차 회담 : 1989.10.12(목), 판문점 「평화의 집」

북(최우진) : 내가 오늘 판문점으로 나오면서 무엇을 생각해 봤는가 하면, 요전에 여러 갈래의 대화들이 쭉 진행되었는데.

이 적십자 실무접촉도 진행되고 또 이제 국회회담 예비회담도 하게 되고 또 체육회담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이게 다른 회담보다는 조금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잘 좀 해서.

남 : 글썄, 아까 우리 선생 말한대로 하여간 과거 것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열심히, 성실하게 합시다.

북(최우진) : 그래서 체육회담도 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향방문단·예술단 교환하는 것도 잘 돼서 우리가 지원되게끔 하고.

그래 우리 책임이 상당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남(金三勳) : 귀측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다행스럽고 마음이 놓이는데, 지난 봄에 만나가지고 씨를 뿌려놓았고 가을이 왔으니까, 아까 그쪽에도 풍년이 들고 우리도 풍년이 들었는데 그 수확을 거두어 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회담에서 이 회담을 잘 이루어 가지고 수확을,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참 많이 하고 왔는데, 듣고 보니까 수석대표께서나 우리 최대대표께서 다 좋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특히 이 당국간에 하는 고위당국 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이 예비회담이 잘 되어야 되겠다, 말씀하신대로.

적십자회담이다, 체육회담이다 이런 것들은 민간간에 접촉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당국간의 회담을 하루속히 빨리 잘해야 됩니다. 가을에 결실을 거둬들이듯이 해야 되겠다.

두분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나) 제7차 회담 : 1990. 7. 3(화), 판문점 「평화의 집」

북 : 오늘 회담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공동으로 세상에 공표한 7. 4남북공동성명 19돌되는 하루 전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회담이 아주 의의가 깊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때 돌이켜 보면 평양과 서울에서 공동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 온겨레는 물론이지마는 세상 사람들이 아주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거든요.

그해는 바로 그해 72년도는 동·서독에서는 분단협정 체결하고 공포를 했었단말야 우리는 또 통일선언을 발표했었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근 두번에 걸친 10년이 흘러갔는데 통일을 위해서 해 놓은 게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남 : 7·4공동성명이야기가 나오니까.

북 : 예멘도 통일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통일이 무르익어 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이 구태의연하단 말야. 그래서 필요한 것은 대화에서 어느 일방의 노력이 아니고 다같이 공동으로 진지하게 노력해야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건데,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 협력하고 단결해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이런 성실한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고 대화분위기를 흐리게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대화앞에 난관조성이 없어야 하고, 그래 이제 더는 무의미하게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이 대화를 명실공히 생산적으로 능률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1990년대에는 기어코 통일해야 돼요.

남 :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7·4공동성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8년전이죠? 그때 사실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일반국민들은 그야말로 이제 통일이 멀지않아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그렇게 했고, 특히 우리 이산가족의 경우는 사실상 어제 떠 나온 고향에 가서 자기 헤어진 가족들, 친척들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속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7·4공동성명이라는게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그 당시는 한 25년되었지만 4반세기간 누적되었던 오해·불신 다 해소하고 상호간의 이해·신뢰를 조성을 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를 실현하자.

나. 남북고위급회담

(1) 본 회 담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수 석 대 표〉	〈단 장〉
姜 英 勳 (국무총리, 1차~3차) 鄭 元 植 (국무총리, 4차~8차)	연 형 목 (정무원총리, 1차~8차)

(가) 제2차 회담 1일회의 : 1990.10.17(수), 평양 「인민문화궁전」

북 : 이번에 베이징에서 열린 경기대회 같은데서 유일팀으로 못 나오게 된게 좀 애석한 점이 있긴 했는데, 그러나 공동응원이 실현됨으로써 좀 의의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갔다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북남체육인들이 그저 만나자마자 한집안 식솔이 다 됐다고 그러더라.

남 : 글썸 말이예요.

북 : 아마, 이게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도 그렇게 내외 인민들에게 다 민족은 하나이고 조국은 하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남 : 참 아주 흐뭇한 그러한 광경들이 었었는데, 우리 기자들이 여기와서 시민들과 더러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북쪽에서 금메달 12개 탄것은 아는데 전체 참가국에서 몇등했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더구만요.

북 : 지금 우리가 경기하는데서 승부라는데 기본이 아니지요.

남 : 아, 그렇지요.

북 : 경기를 하는데서도 민족단합이 기본입니다.

남 : 그래요. 이번에 남북이 아주 팀들이 잘 서로 화해분위기로 응원단도 그렇고

아시아 큰 민족들앞에서 좋은 정경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만나가지고 모든면에서 이렇게 좋게 해 나갑시다.

북 : 좋습니다. 이번에 체육인들 만나서, 내년도인가? 도쿄에서? 세계청소년 대회? 동경탁구선수권대회에 유일팀으로 나가게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남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다가 마지막에는 언제나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좀 잘 되도록 우리 다 노력을 합시다.

북 : 지금 체육인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나가요.

이 사람들 유일팀 구성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앞서야겠는데 체육인들이 더 앞서 나가요.

우리 정치에서 유일팀을 하나 구성해야겠어요. 예?

남 : 이게 우리 유일팀 구성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다. 남북정치분과위원회 회의

(1)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 원 장〉 李 東 馥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위 원 장〉 백 남 준 (정무원 참사)

(가) 제7차 회의 : 1992. 8. 28(금), 판문점 「평화의 집」

남 : 또 9월초에 우리 아주머니 여러분들이 가십니다.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북 : 그 민족이 우리한테 오는 손님인데, 걱정마쇼.(쌍방 웃음)

남 : 더군다나 아주머니들만 가기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됩니다.

북 : 염려될 거 없어요. 붙잡아 두지 않을 테니까. 대체로 보니까, 늙은이들이 돼서 우리 총각들이 그렇게 붙잡아 두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남 : 아,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가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할머니도 계시고 아주머니도 계시고 또 젊은 미모의 여성들도 있고.

북 : 건물생심이라고.

남 : 뭐 하기가 남남북녀이니까, 남쪽에서 취할 점이야 남자밖에 없지. 잘 부탁드립니다.

(2) 위원장접촉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수 석 대 표〉 李 東 馥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단 장〉 백 남 준 (정무원 참사)

(가) 제2차 접촉 : 1992. 9. 4(금), 판문점 「통일각」

남 : 다행스러운게 할머니들 지금 여행하는데, 용케 비를 피해다니는 거 같아요.

북 : 어저께 금강산을 갔는데, 비가 왔단 말이에요.

남 : 아, 비가 왔나?

북 : 근데 오늘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마 어저께 비가 왔어요. 근데 금강산도 비오면 또 비오는 때 경치를 볼 만한게 있단 말이야. 구름위에 금강산 봉우리들이 솟아 있으니까, 구름은 그 허리에 돌고.

남 : 그 구름위에 올라가면 장관이겠조?

북 : 예. 근데 오늘은 좀 개었으니까, 아마 어저께 못한 봉창을 아마 오늘. (쌍방 웃음)

남 : 뭐 여러가지로 여행을 잘 하는 것 같아서 여러가지 고맙게 생각합니다.

북 : 우리 당국은 마주 앉으면 밤낮 입씨름인데, 민간인들 마주 앉으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쨌 거기에다 이양해 버려야 되겠어.

남 : 그러지 뭐. 여자들한테 말기지 뭐. (쌍방 웃음)

우리도 이번에 가면 금강산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북 : 아, 보시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라. 남북군사분과위원회 회의

(1)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 원 장〉 朴 庸 玉 (국방부 군비통제관)	〈위 원 장〉 김 영 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가) 제2차 회의 : 1992. 3. 31.(화), 판문점 「평화의 집」

북 : 내 지난해 미국에서 온 「스칼라피노」라는 선생을 만난 적이 있소. 아마 박준장 알거야.

「스칼라피노」 선생이 교수이고 박사이고 또 무슨 아세아문제 전문가라고 해요.

남 : 그렇지요.

북 : 그 미국의 대아세아 정책, 대조선정책에서 일정한 권위가 있다고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을 만나서 저는 군인답기 때문에 그저 생각나는대로 통명스럽게 말했어요.

내 선생을 한번 만나자고 했다, 만나면 내 한번 욱하자고 했소 이러니까, 나 이 지긋한 본인데 참을성 있게 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왜 나를 욱하고자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내가 욱하고자 하고, 만나자고 한 것은 다른게 아니라 내 우연한 기회에 당신이 쓴 조선반도정책에 대한 글을 읽었다 근데 그 글은.

남 : 독서를 많이 하신 모양이구먼. (웃음)

북 : 그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는 우리 조선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글을 썼더라.

두번째는 내 그 책을 보고서 느낀 감이 우리 조선 민족, 특히 우리 공화국에 사는 우리 인민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을 모르고 썼더라.

결국 그렇잖으니까, 모르고 쓴 글이다보니까, 견해가 대단히 일방적이고, 편협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조선정책이 막말하면 강도적인, 그것도 좀 있더라.

그러니까 「스칼라피노」가 하는 소리가 뭐인가?

이북 평양에 와서 본즉 상당히 옛날에 들던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 확실히 모르고 쓴 글이 많다는 것, 이 아무리 교수이고, 박사고, 전문가고, 원로고 해도 무얼 모르고 쓰면 그렇게 누구말마따나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피해를 지울 수 있습니다.

헌즉, 우리는 민족사를 논하는 큰 마당에 참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번 회담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조선 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둘째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셋째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가 뭐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겠다.

남 : 좋은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바로 우리가 다 잘 아는 옛날 손자에도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패(百戰不敗)」라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 남북한, 남북양측간에 서로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 동족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서로를 좀 알아야 되겠다, 동족의 특질도 알고 지향도 알아야 겠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칼라피노」교수도 그렇고, 「스틸웰」장군도 그렇고 이북에 갔다 하면은 김영철만 만나는데, 우리 김위원장께서 모든 외국의 주요인사들을 다 도맡아 놓고 만나시는 것 같아요?

북 : 아니 뭐, 누구든지 다 만나는데.

남 : 아, 그런 점에서 김위원장.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또 상당히, 지금 북측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

는 것을, 그걸 보고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북 : 감사합니다.

남 : 그러니까, 앞으로 김위원장이 외국사람들 만나서 하는 모든 좋은 말에 또 지혜를, 이제 남북한관계에서 좀 지혜를 발휘하셔서 가지고 오늘 우리 회담이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회의

(1)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 원 장〉 林 東 源 (통일원 차관)	〈위 원 장〉 김 정 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가) 제4차 회의 : 1992. 5. 30(토), 판문점 「통일각」

남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측에서 두분이 참석을 못했어요. 김인호위원하고 유득환위원하고 두분이 국외출장중입니다. 두분 다 경제일꾼인데, 그러나 뭐 문제없어요. 여기 또 든든한 경제일꾼이 있기 때문에.

북 : 협력·교류분과사업에 경제가 기본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맡깁니까?

남 : 일당백의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웃음)

남(朴雲緒) : 두분이 불가피한 일로 해외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북 : 우리는 북남간에 이런 문제를 토론할 때가 되면 해외출장도 다 조절합니다.

민족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중시하고 다른 문제들은 좀 뒤로 미루는 자세에서 회담을 해야 회담이 또 잘되고.

남 : 지난번에 우리 김위원장 해외출장 나갈 때는 미리 나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날짜를 조정했는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되어가지고 미리 조정을 못했어요.

북 : 이번에는 통지도 전화통지문이나 연락관 통해서 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여기 도착해서 통지하는구만.

남 : 내가 직접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북 : 아니, 방금 연락관 통해서 두명이 못 참가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남 : 아, 그랬어요?

북 : 앞으로 그런 건 미리 좀 통지합시다.

남 : 그렇시다. 그것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북 : 그래서 3차 고위급회담때인가, 서울에서 고위급회담할 때 김종휘대표가 외국 출장 간다 해서 회담에 안 참가해서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더니.

이번에 또 두명이나 안 참가해서 4차 분과위원회가 잘되겠는지 모르겠어.

남 : 걱정할 것 없어요. 잘될 거예요.

(나) 제5차 회의 : 1992. 6. 26(목), 판문점 「평화의 집」

남 : 최근에 조그마한 일이지만 경사스러운 일은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

북 : 거, 합의했지요.

남 : 남북간에 합의했는데, 한 5년 걸려서 합의했다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하나씩 합의를 이룩해 나간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북 : 5년중에는 합의서 채택 전이 많고 합의서 채택 이후에는 석달만에 합의했으니 까, 합의서가 지금 운을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 :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면 좋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북 : 다른 분야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남 : 물론이죠. 모든 분야가 그렇게 되어야죠. 노력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장내 정리하고 회의를 시작할까요?

(다) 제7차 회의 : 1992. 9. 3(목), 판문점 「평화의 집」

남 : 이번 평양의 여성세미나는 어제 오늘 계속 텔레비전 뉴스를 듣고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개성서 평양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여성들이 먼저 달렸어요.

남·북(일동) : (웃음)

남 : 역시 우리 나라는 여성들이 탁월해. 올림픽 같은 데서도 금메달 따 오고 하는 것이 여성들이 많다구요.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북 : 임선생이 먼저 달리게끔 해서 고위급회담이 좀 먼저 됐더라면. 녀성회담이 먼저 되니까. 또 그것도 좋은 거지, 뭐.

주제도 좋아요. 「아세아의 평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남 : 오늘은 금강산 구경간다고.

북 : 날씨가 좀 맑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남 : 그래요, 오늘 비가 안오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북 : 어제 이우정 단장이랑, 연설이랑 아주 좋더라.

대일공동대처문제도 토론이 되고.

남 : 연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던데.

북 : 이번 8월 28일날 유엔 지명(地名)대회, 거기서 북남대표들이 다 「조선동해」로 불러야 되겠다, 이거 이제 식민지하의 그런 잔재다, 「일본해」라는 것이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보조를 맞춰서 공동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남 : 남성들도 좀 분발을 해야지.

바. 남북 핵관련 회담

(1)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가) 제3차 접촉 : 1991. 12. 31(화), 판문점 「통일각」

남(李東馥) : 시작하기 전에, 「배비장전」이라고 하는 옛날 소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본토에 있는 어떤 사람이 비장 벼슬을, 제주도에 가서 살러 갔는데, 가가지고 기생 아가씨하고 연애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기생한테 찾아가는데 정문으로 못찾아가고, 밤낮 어디로 찾아가느냐 하면 「개구멍」이란 것 알아요? 「개구멍」?

북(최우진) : 알지.

남(李東馥) : 「개구멍」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개구멍」.

그 「개구멍」으로 드나들다 온갖 망신을 당하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넘나들 때마다 이게 꼭 「개구멍」으로 드나다니는 것 같애요.

남(林東源) : 길이 없다 이거지.(웃음)

남(李東馥) : 그러니까 오늘 가령 우리 임무를 오늘 끝내게 되리라고 지금 기대를 합니다만, 우리 임무를 끝내는 선물로 우리 대표들이 합의해 가지고 쌍방 총리들한테 건의를 해서, 새해 첫사업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그 기술자들 모여서 건설하면 간단하게 될테니까, 그 길 좀 포장합시다. 길좀 만들고.

그게 말이야. 그게 완전히 「개구멍받이」야. 드나들 때마다 그 생각이 난단 말이야.

북(최우진) : 그런데 그게 우리 고위급회담 소관에 속하는게 아닌 것 같다. 여기가 공동경비구역이니까.

남(林東源) : 그거야 그쪽에다 얘기해서 하면 되지, 우리야 못할거 뭐가 있어요.

북(최우진) : 공동경비구역이니까 그쪽에서 문을 좀 환희 열어놓자면, 오늘 것 타결하고, 오늘 것 좀 타결해서 선물로 꼭 우리 거래들에게 안겨주고, 그 다음에 하자면 그것도 할 수도 있지.

(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가) 제7차 접촉 : 1992. 3. 14(토), 판문점 「평화의 집」

북(김영철) : 내 오늘 사실 하기 힘든 말 좀 하자고 그래요.

남(林東源) : 처음서부터?

북(김영철) : 지난 접촉에 상당한 정도로 격론이 있었던 말입니다. 어차피 기자분들 있으니까 우리 회담장 내용에 대한, 대표접촉 내용에 대한 게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즉, 왜 그렇게 격론이 심했느냐?

최근 대화역사에 그런게 없었는데, 복잡하지 않은 문제가 복잡하게 돼있고, 또 큰 변이 나지 않을 문제가 변이 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자꾸 질문이 들어와요.

특히 우리 대표들 호상간에 언쟁이 높다보니까, 호상 인신 무슨 그런 것도 있었다는데, 누구냐? 이렇게 질문까지 들어와서, 대답을 피하는데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생각한 것은, 오늘 대표접촉은 좀 차분하게 서로 자중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남(林東源) : 그래요. 좋은 생각이예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격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 돼서는 안 되겠지요. 두말할 여지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격론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은 피합시다.

그런데 비공개 회의였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는 일체 모르는데.

북(김영철) : 한참 할 때에.

남(林東源) : 공개 했구만, 공개해.

북(최우진) : 다 들어왔었으니까.

북(김영철) : 몽땅 다 여기 들어왔었는데요, 우리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가) 본 회의

〈환 담 자〉

우 리 측	북 측
〈위 원 장〉 孔 魯 明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위 원 장〉 최 우 진 (외교부 순회대사)

① 제5차 회의 : 1992. 5. 27(수), 판문점 「통일각」

남 : 최위원장은 언제 돌아왔습니까?

북 : 나는 평양에 도착한 게 22일 저녁.

남 : 사건난 날 도착하셨네. 최위원장와서 사건이 난 게 아니요?

북 : 그런 또 무슨 사건을, 남쪽에서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금요일만 일어나는가? 다른날도 일어나지.

남 : 아니, 아니. 무슨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거 큰일났다. 최위원장하고 뭐 무슨 얘기가 되겠나?

북 : 아하, 우리 공위원장 뭐 앉자마자 무슨 사건 말씀하는 거 보니까 무슨 사건처리공동위원회 아십니까?

남 : 사건처리공동위원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작년 12월에 기본합의서가 된 이후에 이제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국민들 사이에 이미 생각합니다. 정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취급이 되도록 하루속히 북측에서도 중대한 결심을 해주시길 요청하고, 개인적으로 촉구합니다.

북 : 그거는 공위원장이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북남합의서가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큰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건 바로 북남합의서 채택을 달가와 하지 않고 이행되는 것도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건 하

는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우리가 맞장구를 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미 우리는 군사분과위원회때도 귀측이 제기하기에, 또 우리 입장도 밝혔고 또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그건 우리와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우리가 관련없는 문제가지고 벌써 앉자마자 이렇게 한다는게, 나는 공무원장이 오늘 회담에 립하는 태도가 상당한 정도로 우려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게 좋다는 거, 이걸로 우선 경고하고 넘어갑니다. 그러지 맙시다.

남 : 최위원장, 그거는 말이요, 우리가 지금 아직 핵통제공동위원회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로의 환담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데. 최위원장도 나도 남북고위급회담의 대표입니다. 대표의 한사람으로서도 또 내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우리 남북간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걸 남북전체의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관계가 없다, 또 군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다, 군사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지는 않았습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우리측이 군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잘 음미하셔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남북관계, 모처럼 시작된 화해·협력에 우리의 이 노력이 저해를 받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북 : 가만있어. 북남합의서도 이행되지 못하게 하고 핵통제공동위원회 사업에도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기 위한, 이와같은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와같은 사건을 만들어냈다는게 명백해지거든. 그러니까 그건 왜그런가? 앉자마자 뭐 인사도 똑똑히 안하고서 그런문제 제기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남 : 인사하게 됐어요? 인사를 하게 됐어?

북 : 벌써 그건 뭘 보여주는가 하게 되면 이것은 귀측이 확실히 북남합의서와 공동선언 리행에 관심이 없고 이걸 전진시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 농락당하고 맞장구를 치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똑똑히 알고.

남 : 여보시오. 최위원장.

말이라고 말을 하면 다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엉뚱하게 책임전가 할려고 그러지 마시고, 남북고위급회담의 대표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이죠,

서로 인식을 하고 우리 본연의 문제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됐지, 지금 얘기도 하기전에 뭐 조성을 한다, 난관을 조성한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언사부터 놓하시면, 상호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최위원장하고 많이 얘기를 해서 최위원장하고 얘기하면 그래도 뭐가 통할 것 같은 생각을 했더니 딴 생각을 하고 지금 저렇게 언성을 높이니, 그러시면 안되세요. 그만 하십시오.

〈부 록〉

남북고위급회담 및 관련 회담·접촉 개최현황

남북고위급회담 및 관련 회담 · 접촉 개최현황

1.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 제1차 회담 : 1989. 2. 8 판문점 「평화의 집」
- 제2차 회담 : 1989. 3. 2 판문점 「통일각」
- 제3차 회담 : 1989. 10.12 판문점 「평화의 집」
- 제4차 회담 : 1989. 11.15 판문점 「통일각」
- 제5차 회담 : 1989. 12.20 판문점 「평화의 집」
- 제6차 회담 : 1990. 1. 31 판문점 「통일각」
- 제7차 회담 : 1989. 7. 3 판문점 「평화의 집」
 - 제1차 실무대표접촉 : 1990. 7. 6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제2차 실무대표접촉 : 1990. 7. 12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제8차 회담 : 1990. 7. 26 판문점 「통일각」

2. 남북고위급회담

가.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 제1차 회담 : 1990. 9. 4-9. 7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셀라볼룸」
- 제2차 회담 : 1990. 10.16-10.19 평양 「인민문화궁전」
- 제3차 회담 : 1990. 12.11-12.14 서울 신라호텔 「다이네스티홀」
- 제4차 회담 : 1991. 10.22-10.25 평양 「인민문화궁전」
- 제5차 회담 : 1991. 12.10-12.13 서울 위커힐호텔 「무궁화홀」

- 제6차 회담 : 1992. 2.18-2.21 평양 「인민문화궁전」
- 제7차 회담 : 1992. 5. 5-5. 8 서울 신라호텔 「다이네스티홀」
- 제8차 회담 : 1992. 9.15-9.18 평양 「인민문화궁전」

나. UN가입관련 실무대표접촉

- 제1차 접촉 : 1990. 9.18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제2차 접촉 : 1990.10. 5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제3차 접촉 : 1990.11. 9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다. 제3차 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 제1차 접촉 : 1990.11.21 판문점 「통일각」
- 제2차 접촉 : 1990.11.27 판문점 「평화의 집」
- 제3차 접촉 : 1990.12. 1 판문점 「통일각」

라. 제4차 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 제1차 접촉 : 1991. 8. 5 판문점 「평화의 집」
- 제2차 접촉 : 1991. 8.10 판문점 「통일각」
- 제3차 접촉 : 1991. 8.16 판문점 「평화의 집」

마. 기본합의서 내용조정과 문안정리를 위한 대표접촉

- 제1차 접촉 : 1991.11.11 판문점 「통일각」
- 제2차 접촉 : 1991.11.15 판문점 「평화의 집」
- 제3차 접촉 : 1991.11.20 판문점 「통일각」
- 제4차 접촉 : 1991.11.26 판문점 「평화의 집」

바.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 제1차 접촉 : 1992. 1.23 판문점 「평화의 집」
- 제2차 접촉 : 1992. 1.29 판문점 「통일각」
- 제3차 접촉 : 1992. 2. 7 판문점 「평화의 집」

3. 남북정치분과위원회 회의

- 제1차 회의 : 1992. 3. 8 판문점 「평화의 집」
- 제2차 회의 : 1992. 3.27 판문점 「통일각」
- 제3차 회의 : 1992. 4.23 판문점 「평화의 집」
 - － 제1차 위원접촉 : 1992. 4.29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제4차 회의 : 1992. 5.19 판문점 「통일각」
- 제5차 회의 : 1992. 6. 9 판문점 「평화의 집」
- 제6차 회의 : 1992. 7. 2 판문점 「통일각」
 - － 제1차 위원장접촉 : 1992. 7.10 판문점 「평화의 집」
 - － 제2차 위원접촉 : 1992. 7.3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 제3차 위원접촉 : 1992. 8. 5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 제4차 위원접촉 : 1992. 8.19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제7차 회의 : 1992. 8.28 판문점 「평화의 집」
 - － 제2차 위원장접촉 : 1992. 9. 4 판문점 「통일각」
 - － 제3차 위원장접촉 : 1992. 9. 8 판문점 「평화의 집」

4. 남북군사분과위원회 회의

- 제1차 회의 : 1992. 3.13 판문점 「통일각」

- 제2차 회의 : 1992. 3.30 판문점 「평화의 집」
- 제3차 회의 : 1992. 4.30 판문점 「통일각」
- 제4차 회의 : 1992. 5.25 판문점 「평화의 집」
- 제5차 회의 : 1992. 6.19 판문점 「통일각」
- 제6차 회의 : 1992. 7.16 판문점 「평화의 집」
 - － 제1차 위원장접촉 : 1992. 7.23 판문점 「통일각」
 - － 제1차 위원접촉 : 1992. 8. 3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 제2차 위원접촉 : 1992. 8.12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 제3차 위원접촉 : 1992. 8.2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제7차 회의 : 1992. 8.26 판문점 「평화의 집」
- 제8차 회의 : 1992. 9. 5 판문점 「통일각」

5. 남북교류 · 협력분과위원회 회의

- 제1차 회의 : 1992. 3.18 판문점 「평화의 집」
 - － 제1차 위원접촉 : 1992. 3.25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 제2차 위원접촉 : 1992. 4. 2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 제3차 위원접촉 : 1992. 4.2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제2차 회의 : 1992. 4.18 판문점 「통일각」
- 제3차 회의 : 1992. 4.27 판문점 「평화의 집」
 - － 제4차 위원접촉 : 1992. 4.28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제4차 회의 : 1992. 5.30 판문점 「통일각」
- 제5차 회의 : 1992. 6.26 판문점 「평화의 집」
- 제6차 회의 : 1992. 7.28 판문점 「통일각」
 - － 제5차 위원접촉 : 1992. 8.1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 제6차 위원접촉 : 1992. 8.21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제7차 회의 : 1992. 9. 3 판문점 「평화의 집」

- 제1차 위원장접촉 : 1992. 9. 7 판문점 「통일각」

6. 남북 핵관련 회담

가.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을 위한 대표접촉

- 제1차 접촉 : 1991.12.26 판문점 「통일각」
- 제2차 접촉 : 1991.12.28 판문점 「평화의 집」
- 제3차 접촉 : 1991.12.31 판문점 「통일각」

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 제1차 접촉 : 1992. 2.19 평양 「백화원 초대소」
- 제2차 접촉 : 1992. 2.27 판문점 「통일각」
- 제3차 접촉 : 1992. 3. 3 판문점 「평화의 집」
- 제4차 접촉 : 1992. 3. 4 판문점 「통일각」
- 제5차 접촉 : 1992. 3. 6 판문점 「평화의 집」
- 제6차 접촉 : 1992. 3.10 판문점 「통일각」
- 제7차 접촉 : 1992. 3.14 판문점 「평화의 집」

다.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 제1차 회의 : 1992. 3.19 판문점 「통일각」
 - 제2차 회의 : 1992. 4. 1 판문점 「평화의 집」
 - 제3차 회의 : 1992. 4.21 판문점 「통일각」
 - 제4차 회의 : 1992. 5.15 판문점 「평화의 집」
- 제1차 위원접촉 : 1992. 5.15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제2차 위원접촉 : 1992. 5.2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제3차 위원접촉 : 1992. 5.23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제5차 회의 : 1992. 5.27 판문점 「통일각」
- 제6차 회의 : 1992. 6.30 판문점 「평화의 집」
- 제7차 회의 : 1992. 7.21 판문점 「통일각」
- 제8차 회의 : 1992. 8.31 판문점 「평화의 집」
 - 제4차 위원접촉 : 1992. 9.19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제5차 위원접촉 : 1992. 9.3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제6차 위원접촉 : 1992.10.14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제9차 회의 : 1992.10.22 판문점 「통일각」
 - 제7차 위원접촉 : 1992.10.29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제10차 회의 : 1992.11.18 판문점 「평화의 집」
- 제11차 회의 : 1992.11.27 판문점 「통일각」
- 제12차 회의 : 1992.12.10 판문점 「평화의 집」
 - 제8차 위원접촉 : 1992.12.14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제13차 회의 : 1992.12.17 판문점 「통일각」
 - 제1차 위원장접촉 : 1993. 1.25 판문점 「통일각」